금주의 법구-〈법구경〉
원망만으로는 원망을 풀 수 없다.
원망을 떠나야 이를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2 1994~2016 제1117호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전법중심도량 관심 저하 '현장 포교 컨설팅' 시급

조계종 전법도량 재인가 신청률 급감 '비상'

오는 2021년까지 전법중심도량을 300곳(현재 123곳)으로 지정,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종책에 먹구름이 꼈다. 현재 지정된 전법중심도량들의 재인가 관심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당초 "8월 30일까지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지난 8월 12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했다. 재인가는 전법도량마다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올해 대상 사찰은 2014년도 신규 등록한 5곳과 기존 전법도량 80곳 등 총 85곳이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재인가를 신청한 전법도량이 절반을 밑돌았고, 결국 포교원은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신청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포교원은 10월 초까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미신청 사찰에 연락해 재인가를 독려했다.

이 과정서 현재(10월 4일 기준)까지 전법도량 재인가를 신청한 사찰은 85곳 중 47곳. 55% 수준이다. 2015년도 35곳(100%), 2014년도 68곳(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확인결과 주지 및 소임자 교체 등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사찰이 다수 있었지만 현행 전법도량 제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혜택 없이 보고서만 작성

전법도량 재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찰 관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혜택'과 '번거로운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포교활동은 전법도량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도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얘기다.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사찰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인가 의지가 없는 사찰이라 하더라도 지정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재인가 보류상태'로 남아 대상 사찰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영남권 어린이포교를 담당하는 A사찰 관계자는 "대형사찰은 소임자가 따로 있고, 지도법사에 대한 복지 또한 준수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개개인에게 업무가 과중한 작은 사찰은 보고서 하나도 무거운 짐이 된다. 대단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B사찰 관계자는 "우리는 어린이법회가 없다. 어린이집만 운영하는데 종단서 전법도량을 권유하기에 응했다"면서 "지난 재인가 때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대신 구두로 의지만 밝혀달라고 해서 말만 했다. 올해도 (종단서) 전화가 와서 난처함을 알렸지만 재인가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르면 전법도량에 제공되는 혜택은 △종단서 개발된 교구재 및 프로그램 우선 지원 △사찰 연계한 종단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 지원 △전법도량 간판 게시 △포교사 자원봉사 지원 등이다. 교구재 및 프로그램은 종단 차원서 개발되는 게 많지 않고, 전법도량이 아닌 사찰이 교구재를 요청했을 때 '전법도량 미신청'을 구실로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찰과 연계한 종단사업 역시 극히 드문 사례다. 일선에서 지역포교를 담당하는 사찰들이 전법도량에 대해 체감온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85곳 대상 사찰 중 55%만 신청
8월 마감서 9, 10월 3차례 연장
2014 · 2015년보다 현저히 감소
현장선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포교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법도량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포교를 위해선 지역 실정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이 절실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매뉴얼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국에 보급돼 있는 포교 매뉴얼의 대부분은 2000년대 중후반 제작된 것으로 법요집 · 지침서 · 동영상CD 등이다.

서울 도심서 포교하는 C사찰 주지 스님은 "올해 전법도량 재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려다 사명감으로 했다. 어린이법회 아이들은 고정적인데 종단서 보내준 단주만 계속 쌓이고 있다"며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및 사찰 특성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사찰 지도법사 스님은 "요즘 아이들이 한 살만 달라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지적으로 성숙하고 예민하다"며 "각 학년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법문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종단 자료로 해결할 수 없다. 포교 컨설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새 포교종책을 발표한 포교원도 최근 현황을 분석하며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자 · 실무자 회의와 지역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포교원 측은 "현행 제도가 신청만 받는 수동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개별 사찰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모범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춰 변화시켜 보급하고, 열린 플랫폼서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50개 이상의 전법 프로그램을 발굴해 어린이 ·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교구차원의 접근'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방법을 만들어 제공하는 건 종단 의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구 포교국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포교전문가들을 모아 대안을 연구하고, 교육받은 신도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창간 22주년 특집 INDEX

선지식에게 묻는다 A6
월서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한국불교의 변곡점 A9~12
다불교 & 탈종교

그대는 자비보살 A14·15
만오 스님 부산 도원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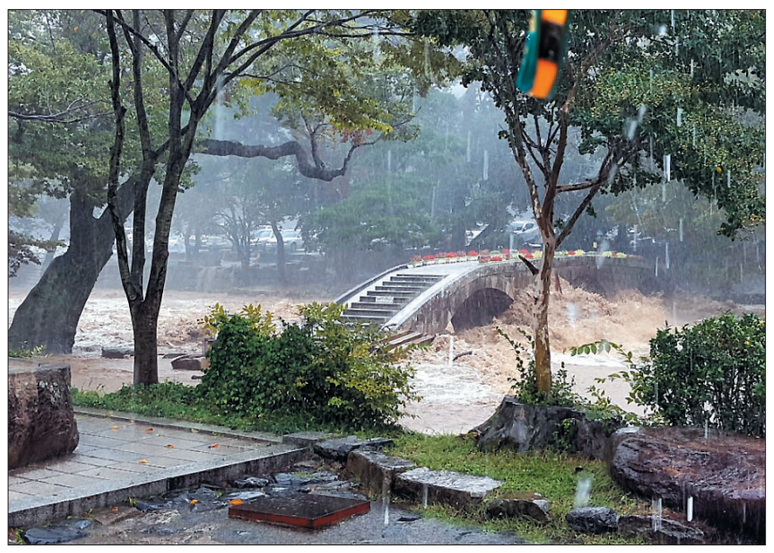
100만독 정진 원력, 세세생생 이어지리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주지 무원)가 진행하는 '좋은일 실천수행 법화산림 백만독 관음정진' 수행에 동참한 신도 2000여명이 정진삼매에 빠져있다. 100만독은 10월 1일 결제를 시작해 2017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천태불자들은 100만독 정진 기간 동안에는 좋은일 실천 수행자경문에 매일 '일일일선'을 실천하고 기록하며, 자신을 점검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10월 태풍으로 불교계 피해 '막대'

통도사 다리 유실 등 피해
주말 개산대재도 축소 운영
조계종, 6일 긴급구호단 급파



통도사 삼성 반월교가 불어난 물에 휩쓸리고 있다. 통도사는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인해 개산대재 일정을 축소했다.

지난 10월 5일 한반도 남부지역에 들이닥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사망 7명 실종 3명을 비롯해 이재민은 총 90세대 198명이 발생했다(10월 6일 기준). 특히 양산 통도사 등 불교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양산 통도사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내 일승교가 무너져 빗물에 유실됐고, 월영교 다리가 끊어졌다. 또한 산문 옆 소나무가 부러지고 경내 소나무 20여 그루가 뽑혔으며, 공양간 및 경내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는 10월 8~9일 예정된 개산대재 중 8일 괘불이운을 비롯한 괘불헌공, 다례재, 들차시음회 등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통도사는 "태풍 피해로 인해 행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암자도 피해가 잇달았다. 서운암과 자장암은 산사태로 둑이 무너졌고, 치운암으로 가는 다리가 파손돼 진입이 불가한 상태다.

아울러 10월 7~19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서 예정됐던 BBS불교방송 주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도 10월 21~23일로 연기됐다. BBS 측은 "태풍 영향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비에 젖은 사적지 잔디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10월 6일 울산 태풍 피해 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총재 자승) 선발대를 급파했다.

조계종 측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속 집계돼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긴급구호단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다"며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지원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긴급구호단 선발팀은 손상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장을 필두로 울산 현지 인력 10여명과 결합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성미 · 박아름 기자



700일 맞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장기플랜이 생명



2013. 8 / 서울시 · 조계종 MOU


2014. 11 / 총본산 성역화 사업 출범


2014. 11 / 추진위 현판식


2016. 3 /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


2016. 5 / 초파일 모연법회


2016. 6 / 모연릴레이 캠페인

지난 2014년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3000여 대중이 모여 한마음으로 총본산 성역화 원만회향을 서원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대 불사로 꼽히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가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날 성역화불사 추진위 출범 이후 조계종은 불사를 본격화했다. 올 10월 13일 총본산 성역화불사추진위가 출범 700일을 맞는다.

최근 부지 매입 · 기부 이어져
조계종 매입 후 국가 기부체납
법난 피해보상 원칙 세워야

속속 매입되는 조계사 일대 부지

성역화불사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성역화불사는 부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삼오모텔 매입, 2015년 상아불교사 일대 매입에 이어 올해 9월 1일에는 대웅전 맞은편 을유문화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계사 측은 현재 임차인들이 이주하는 2017년 4월 경부터 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종무소를 비롯한 사무공간 활용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성역화불사 추진은 부지 매입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사업이 2018년까지 진행되며 2025년까지 관련 정비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족한 매입자금, 기부는 늘어

문제는 매입 대금 지급이다. 오랜 숙원이던 을유문화사의 경우 총 137억 5000만원에 계약 했지만 계약금은 30억원으로 100억원에 대한 잔금지급이 남아 있다. 이 밖에도 매입 부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역화 불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배정은 수시배정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그때 배정된다. 다행인 점은 최근 성역화 불사에 기금 답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불사추진위가 6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50일간 진행한 '모연릴레이 캠페인' 후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가 계속된다. 이를 통해 총 6866만원의 기금이 모연 됐으며 불사추진위 측은 모연릴레이 캠페인으로 홍보가 진척된 것으로 자평한다.

박성주 추진위 모연팀장은 "사찰의 동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익명의 불자가 1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몇천원부터 10만원까지의 소액기부자, 또는 개인기부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성역화 불사의 취지에 공감한 분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재 성역화불사 모연기금은 10월 4일 기준 49억 9536만원이 모인 상태다.

민간자본보조 방식 한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성역화 불사도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그 근본에는 성역화불사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부와 서울시, 조계종이 함께 추진하는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의 중심에 있다.

여기서 법난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이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진행되는 것이 명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조계종이 땅을 매입해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에 향후 법난 기념관 운영을 비롯해 종단 운영에 정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단계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 명분을 쌓고, 근본적으로 피해보상에 의한 사업진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혜총 스님은 "성역화 불사는 장기적으로 한국불교 총본산을 새롭게 하는 대작불사"라며 "회향하는 날까지 스님과 신도들,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며 함께 동참해 뜻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추진위는 10월 31일 제2차 전국사찰 동시 초하루 법회에서 추가 모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월에는 성역화불사에 동참한 이들에게 스님들의 애장품을 선물로 전달하는 감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종단에 피해 끼친 점, 깊이 자책"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10월 5일 공개 참회

태고종 125차 종회서 입장표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중



종단운영을 둘러싼 폭력사태로 검찰에 구속됐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위 사진>이 종도들 앞에서 공개 참회했다.

도산 스님은 10월 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태고종 제125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점에 깊은 자책과 참회를 드린다"며 "많은 생각 끝에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종단 주요 소임자들과 논의해 거취를 정하고자 종단에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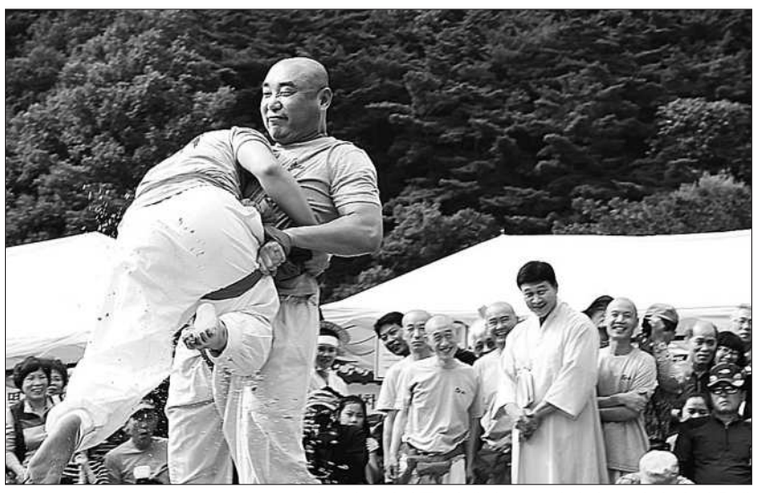
현재 도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실형 선고에 따른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날 도산 스님은 "소송의 부당함이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 나면 책임을 묻고, 인용된다면 저 역시 그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참회에도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을 둔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원장 혜일 스님 측이 '이미 도산 스님은 종무원법상 징역형 확정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종회 전 배포했다. 또 종회 개회 직후 총무원장 면직을 주장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제125차 임시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54명 중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헌 · 종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교육기금 환수 건이 결의됐다. **김주일 기자**



으랏찻차, 힘내라 불교! 산중전통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동화사 승시축제가 가을 팔공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월 1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화사 경내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마당이 펼쳐졌다. 승려 씨름대회에서 참가한 스님이 다른 참가 스님을 번쩍 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종회의원 연수… 김영란법 대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사회현안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한 연수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0월 4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불기 2560년도 중앙종회의원 연수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수석부의장 자현 스님,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등 스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입재식에서 "연수를 통해 종단과 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회의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과 현대사회와 건축에 대한 강의 등으로 토론을 벌였다. **윤호섭 기자**

"秋夜, 국화향 가득한 조계사로 오세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11일 개막, 12일 야경템플스테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조계사가 국화향기로 물든다. 가을밤 사찰에서 국화향기에 젖어드는건 어떨까. 제6회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이 10월 11일 개막에 이어 한 달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화향기 나눔전은 조계사와 인사동 일대의 야경을 만끽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야경(夜景) 템플스테이'가 처음으로 열린다.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총 8회에 걸쳐 범종루 앞 데크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야경템플스테이에서는 전통차 시음과 함께하는 다식 만들기, 지화 만들기, 마음챙김 명상과 소원지 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또 서울시청 시민청, 북인사마당,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에 비치된 쿠폰을 제출하면 참가비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국화 나눔전에는 다양한 국화조형물이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번 나눔전에는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허영만 화백의 '날아라 슈퍼보드' 등장인물인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국화 토피어리, 잉어국화, 국화가 만발한 조계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수요 작은 음악회 달빛'도 국화 나눔전을 풍성하게 만든다. 전자 바이올린 연주, 재즈, 아쟁 해금 연주,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1월 6일에는 어린이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도 진행된다. 대회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 부처님과 나, 우리 가족이 함께 꿈꾸는 미래로 총무원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 후 마술쇼와 비보이 공연도 진행된다.

이밖에 조상천도와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중양절 국화 수륙재(10월 9일),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10월 11일), 제7회 종로구와 함께하는 채용박람회 일구데이(10월 12일),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으로 행복한 동행 바자회(10월 28~3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인사동에서 가래떡을 나눠주는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11월 11일) 등도 마련된다. (02)768-86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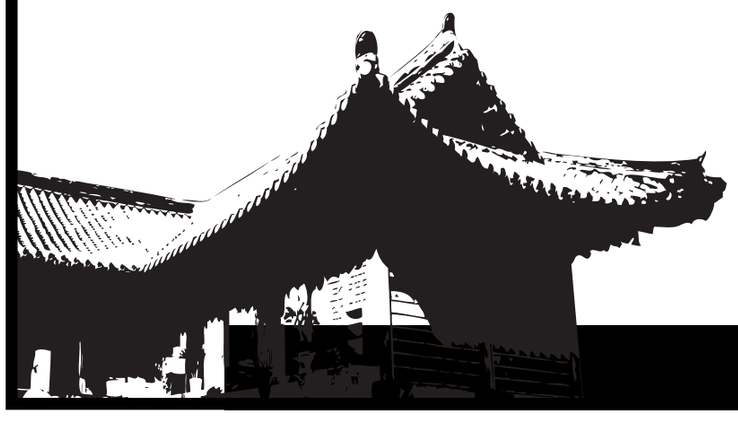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순례문화 견인차, 108산사회 '10돌'

10월 14~15일, 10주년 법회
대장정 기록한 백서 발간도

817만3560㎞. 지구 204바퀴, 달까지 11번 왕복할 수 있는 이 거리는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순례기도회가 그동안 순례를 위해 이동한 수치다. 2006년 9월 서울 도선사 입재 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영축총림 통도사부터 2015년 10월 서울 도안사 회향에 이르기까지 매달 5천여 불자들이 순례길에 나섰다. 9년간의 대장정, 이를 한데 묶은 5권 분량의 백서가 10주년을 맞아 발간됐다.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이하 108산사회)'는 오는 10월 14~15일 서울 도안사서 '거룩한 인연 아름답게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108산사회 백서 〈희망의 연꽃으로 피어난 9년 발자취〉 고불식도 진행한다.

혜자 스님은 9년간에 걸친 기록을 모아달라는 주변 요청에 따라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그간의 여정을 기록한 '신행전법의 새장을 열다'(1·2권), 순례길에서 있었던 특별한 행사를 담은 '대중 속에 불심을 심다'(3권), 신행수기와 학술세미나(4권), 언론에 비친 108산사회(5권)로 정리돼 있다.

108산사회는 출범 당시 세간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새로운 신행문화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108산사회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정을 소화하며 순례를 불교계 신행문화로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12년 10월 31일 서울광장서 열린 108산사순례회 6주년 기념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거룩한 인연 꽃피우자' 주제
천도재 비롯 다양한 행사 마련
법산·자광 스님 법문 이어
'평화의 불' 기행화보집 선봬


최근 발간한 108산사회 백서.

혜자 스님은 "기존 순례는 사찰에 가서 신도들에게 일정 시간을 주고 참배하게 하는 수동적 성향이 강했다"면서 "108산사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천수경〉을 독송하고, 108배와 축원을 올리며 진심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백서 발간에 대해 "이 같은 행적을 기록해 불자들의 신심이 회향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자 스님은 순례를 하면서도 신도들에게 순례사찰 이름을 새긴 염주알을 손수 하나씩 나눠주며 독려했다. 그 개수만 무려 65만개다.

세간에는 지난해 회향으로 순례가 끝났다고 알려졌지만 혜자 스님은 현재 108산사 순례 중간에 합류한 불자들과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53기도도량 순례 역시 병행 중이다. 스님은 이번 10주년 기념법회와 백서 고불식을 통해 불교계 내외에 감동을 전하고,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오전 10시 시작되는 기념법회는 1부 천도재 및 기도, 2부 기념법회, 3부 축하공연 및 108평화보궁 참배 순으로 이어진다. 14일과 15일 같은 행사가 이틀간 진행되는데 이는 참석 인원을 한 번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사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과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룸비니동산서 채화해 해외와 전국 60여곳에 분등하고 있는 '평화의 불' 이운과정을 담은 기행화보집 〈발길 닿는 곳곳마다 평화의 불 수놓다〉 발간기념식도 열린다.

혜자 스님은 "9년간 순례만 한 것이 아니라 군장병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도 함께 했다"며 "기념법회 이후에도 이 같은 자비행을 실천하도록 회원들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혜자 스님이 주석하는 서울 도안사는 지난 8월 4일 은선묘아미타삼존불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383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사찰이 됐으며, 9월 21일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생활·엘리트체육 연계로 미래 설계"

이기흥 조계종 중신회장, 대한체육회장 당선

임기 2021년 2월까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61, 前 수영연맹 회장·사진)이 제40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기흥 후보는 10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열린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나와 총 투표수 892표 가운데 294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당초 세간에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을 81표차(213표)로 따돌리고 사상 첫 통합체육회 수장직을 맡게 됐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이후 처음 선출하는 초대회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기존 50여 명이 투표하던 방식을 개선, 선거인단을 1405명으로 확대해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투표율은 63.49%로 예상보다 열기가 높았다.

이날 이기흥 당선인은 당선인사서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모두 통합체육회 내에서 하나로 녹여내야 한다"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재정자립 △체육인 일자리 창출 △스포츠 의·과학 도입 통한 경기력 향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는 10월 6일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이기흥 당선인은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대한카누연맹 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계에서는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남북교류, 그 전망은?

민추본, 10월 12일 신계사 복원 9주년 기념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0월 1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남북불교교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30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남북불교교류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한편, 신계사 복원 과정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토론회는 본부장 법타 스님의 '북한 불교의 이해' 기조강연에 이어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의 '남북불교교류의 역사와 흐름'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의 경과 및 의의'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의 '남북불교교류 계획과 전망' 등 주제 발제가 진행된다. 사회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았다. **박아름 기자**

茶聖 초의 선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예술의 전당, 11월 6일까지 '바라밀다' 특별전

한국 차문화를 정립했던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열린다.

예술의전당은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을 기념해 '초의선사-바라밀 다(波羅蜜茶)' 특별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서울서예박물관 3층 역사상설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초의 선사와 관련된 희귀 유물 70여 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특히 눈여겨 볼 작품은 '다산사경첩(보물 1683-1호)'을 비롯해 '문수보살도(범어사성보박물관 소장)', '죽로지실(竹爐之室·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전다삼매(煎茶三昧·남농미술관 소장)', 초의 선사의 유품인 차 주전자 '흑유(黑釉·개인소장)' 등이다.

이동국 서예부장은 "추사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써서 보낸 '죽로지실' 작품은 삼성박물관 리움서 27년만에 처음 대여할 정도로 아끼는 작품으로 실물로 볼 기회가 흔치 않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획을 통한 음양 원리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실(室)'이란 글자를 둥근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건축가들도 "우리가 오랫동안 구상해야 하는 건축기법을 단 한 글자로 표현했다"며 감탄했다.

선묵(禪墨), 불화(佛畵), 선시(禪詩) 등 다방면에 정통했던 초의 선사는 차를 선(禪)의 경지까지 끌어 올려 우리나라 차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선문사변만어'를 통해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의 선사의 유품 흑유 주전자. 개인 소장품으로 이번 전시서 공개된다.

초의선사 열반 150주기 기려
유품 주전자 등 70여점 전시
10월 15일 기념 학술대회도

이동국 부장은 "초의 선사는 조선 말기 문화사·예술사·정신사 전부에 걸친 '전방위 메신저' 같은 존재"라면서 "유학자들과 나이·신분을 초월해 격의 없이 교유하며 차를 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초의 선사 열반 150주기 학술대회가 10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예박물관 4층서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초의 선론과 조선후기 선논쟁(정병삼)을 비롯해 △초의차 완성과 그 영향(박동춘) △초의선사의 시문학 고찰(김미선) △초의차 전승 맥락과 제언(정서경) △초의와 경화세족의 교유(박철상) △초의와 다산·추사의 서(書) 비교 등이 발표된다. (02)580-1053

신성민 기자

한국 '참여불교' 과제 모색

불사연, 10월 12일 '지속가능성과 평화 위한 참여불교 세미나'

'참여불교'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참여불교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10월 12일 오후 3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서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참여불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 참여불교 현황을 통해 한국 참여불교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이날 발제는 유승무·민정희·정웅기 씨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주원·유정길·퇴휴 스님이 나선다.

먼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참여불교의 정치사회적 개입과 시사점' 주제 발표에 이어 △민정희 기후생태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불교의 사례'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의 '한국 참여불교 운동의 성찰과 모색' 등 발제가 이어진다. **박아름 기자**

인사말씀



조석으로 스치는 바람결에 오색 빛 계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한 줌의 갈대와 한 송이 국화꽃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심오한 미소와 사계四季의 무상진리를 깨치게 합니다. '보림꽃예술중앙회'에서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제6회 전시회 [마음 머물다]를 갖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72년부터 시작된 꽃길과 1992년 보림꽃예술중앙회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장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 연마해온 회원들이 뜻을 모아 스님을 모시고 불교 및 일반작품 90여점을 미흡하지만 한자리에 펼쳐봅니다. 꽃과 Image 소통이 조화를 이룬 보림의 꽃 향연에 발길을 옮기시어 잠시 휴식과 힐링의 시간되시길 바라오며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원 일동

함께 하는 문화마당

남성 4중창	육화림 솔리스트 앙상블	10월 18일 낮 12시
피아노 독주	황명주	10월 18일 낮 12시 ~ 오후 1시
현악4중주	플러스앙상블	10월 19일 오후 3시30분 ~ 4시
찬조출연	기원사 합창단	10월 18일 (화) 오전 11시
궁중 전통다례 시연	명원문화재단	10월 19일 오후 3시 ~ 3시30분
체험 프로그램	꽃다발 만들기	10월 18일 오후 3 ~ 4시 10월 19일 오후 4 ~ 5시

제6회 보림회 꽃꽂이 전시회
마음 머물다 花화 画화 話화

2016. 10. 18(화) ~ 19(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현대백화점 미아점 10층 사파이어 홀
전시개막 : 2016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 주최 : 보림꽃예술중앙회(불교꽃예술연구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기원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재)대각회, 대한불교조계종 기원사 신도회·부부법회, (사)한국꽃꽂이협회,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사, 현대불교, 법보신문사, 월간 금강

일 주 문



큰사랑 어르신잔치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경내서 '제11회 큰사랑 어르신잔치'를 개최한다.



대전시민 화합한마당

영제 대전 광수사 주지 스님은 10월 6일 경내서 '경제회복기원 및 대전시민 화합한마당 음악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자명 영덕 기원정사 주지 스님은 9월 30일 비영리단체 빈곤 · 장애아동 후원 공로가 인정돼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가을창작수련회

원담 현대불교문인협회장 스님은 10월 8~9일 산청 율곡사서 '제1회 율곡사 괘불재, 그리고 시가 있는 밤골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화요열린강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0월 18일 오후 7시 마포 다보빌딩서 '한국불상'을 주제로 10월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은 10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서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천부경〉, 진공묘유 내포된 고불경"

통일기원 〈천부경〉碑 조성한 각근사 주지 무진 스님



10월 3일 개천절 맞아 각계 인사 초청 제막식

"우리가 흔히 아는 〈천부경〉은 단군신앙과 대종교의 경전으로 알지만, 깊이 들어가 공부하면 분명 고불경(古佛經)이며, 유불선과 역경 등 동양사상의 원조라 할 수 있죠. 〈천부경〉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천지는 나와 더불어 본래 하나란 뜻이며 분별을 넘어선 평등성지의 대승경전이란 의미입니다."

10여 년 동안 〈천부경〉을 연구하고 강의한 경북 상주 각근사 주지 무진 스님 〈오른쪽 사진〉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상주 지역 인사 100여 명을 초청해 '100일 기도 원만회향 및 천부경 비석 제막식'을 봉행해 눈길을 끈다.

"제가 〈천부경〉에 담긴 불교적 교리를 핵심만 요약해 사찰서 강의하면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웬 스님이 다른 종교 경전을 강의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찬찬히 풀이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불교적 교리를 설명하면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죠. 글로벌 시대에 우리 불교부터 마음을 열고 다종교적 가르침을 폭넓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화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진 스님은 〈천부경〉 교리에 나와 있는 경구들을 꼼꼼히 짚어가며 설명을 이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과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불교적 교리가 내포돼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진공묘유'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는 법화경과 반야심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시간을 초월했기에 세월이 가도 시들지 않으며, 공간을 초월했기에 두루물물이 진리가 아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부경〉이 바로 고불경이란 증거입니다."

무진 스님은 그동안 〈천부경〉 강의 요약본을 들고 대중 포교를 위해 상주지역의 교회, 유교단체 행사, 천도교 회관, 상주경찰서, 상주 문화원, 상주 교육청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종교와 상관없이 〈천부경〉 속에 들어 있는 불교적 가르침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스님은 "이번에 100일 기도 회향과 함께 제가 주지로 있는 각근사를 〈천부경〉 성지로 만들어 초종교 적으로 누구나가 이 경전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곳에 와서 경전 공부와 기도 정진, 더 나아가서는 연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족 통일이나 인류의 세계일가(世界一家) 건설도, 천지만유가 하나서 비롯해 하나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필연을 설명한 이 경전의 요체처럼 〈천부경〉을 공부하며 통일불사도 함께 펼칠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기도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4)531-3439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구 대성사, 49주년 기념법회

화산 스님 "생활 · 대중불교 목표 정진"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는 10월 1일 경내 서원당서 창립 4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기념법회를 봉축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대구권 중심사찰로 성장한 대성사는 생활불교 · 대중불교를 목표로 대구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다가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천태불자들도 함께 더욱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암사, 산사마당 잔치 열어

10월 2일, '마음열고 환희롭게' 주제로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10월 2일 제242회 정기법회와 제10회 산사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가을 속에 진리 속에 마음열고 환희롭게'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서 법사로 나선 지형 스님은 "인간의 큰 공덕은 보시가 으뜸이니, 부처님 길을 가려면 큰 서원을 세워 수계를 받아 발원해야 한다"며 "보시바라밀의 참뜻을 알아 청정한 마음속에서 저 언덕의 열반과 깨달음에 도달하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국외재단 이사장에 지건길 씨

문화재청 10월 1일자로… 임기 3년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연구를 위한 특수 법인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2대 이사장에 지건길 前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0월 1일자로 제2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지건길(池健吉, 1943년생) 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19년 9월말까지 3년이다.

지건길 신임 이사장은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조사 · 연구, 환수 ·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에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배움 정진해 참사람 돼 주세요"

동국대 경주캠, 외부 장학금 전달 잇달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지역 불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부 장학금이 잇달아 지원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9월 2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선도장학회 장학금을 비롯한 9개 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아래 사진〉

이날 행사서는 선도장학회(이사장 선도), 나무심장학회(이사장 김순이), 길상장학회(이사장 대운), 관음장학회(이사장 만오), 박여련화장학회(이사장 박필순), 백년장학회(이사장 보안), 연진은성장학회(이사장 은성 · 연진), 정진인장학회(이사장 변금연), 천지당장학회 등의 장학금 3100만원이 학생 32명에게 수여됐다.

이외에도 앞서 26일 개최된 태영장학회와 무진장학회, 27일 무금사장학회가 잇달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10월 1, 2일에도 혜선장학회, 원법사장학회 장학금수여식을 통해 총 76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일붕 스님 평화사상 받들자"

일붕문도중앙회 22대 회장에 천강 스님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천강)는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세계법왕일붕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위 사진〉

이날 법회는 제22대 회장 천강 스님 취임 및 제21대 회장 송산 스님의 이임식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상축문(수석부회장 청파 스님) △일붕 스님 행적소개(공동수석부회장 법광 스님) △일붕 스님 추모육성법어 △21대 회장 이임사 △일붕 스님에게 올리는 메시지(수석부회장 광명심)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공동수석부회장 문수 스님) △발원문 낭독(공동수석부회장 보현 스님) 등이 이어졌다.

제22대 회장에 취임한 천강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일붕 스님의 자비와 평화사상이 온 누리에 펼쳐지고 길이길이 빛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한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노인의 날엔 더 행복하세요"

마천복지관, 새마을금고와 사회공헌활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시형)은 9월 30일 서울아산병원 새마을금고(이사장 김암)와 함께 '노인의 날 기념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리엔 김암 이사장을 비롯한 아산병원 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이 직접 복지관을 방문, 지역 어르신들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禪刹大本山 梵魚寺 開山大齋



金井叢林 梵魚寺 方丈 知有大宗師
『涵虛得通禪師의 金剛經 序文』禪說

함허 득통선사 금강경 서문 선설

■ 시 간 : 10월 13일(목) / 14일(금) / 15일(토) 오전 10:30 ~ 11:30
■ 장 소 : 범어사 보제루
■ 교 재 : 금강경 오가해 서문

범어사 개산조 다례(대웅전) 및 팔관회 관련행사(범어사 문화광장) 10월 15일 (토) 오후 2시 ~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 문의 | 051)508-3122~5 | 홈페이지 | www.beomeo.kr



베트남공연단이 고국 전통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머리에 쓴 장식과 의상이 신비감을 자아내며 이채롭다.



찬불가요를 부르는 베트남가수들과 스크린 뒤의 관세음보살 배경 사진이 인상적이다.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번 음악회에는 베트남 불자 등 600여명이 모였다.

‘아오자이’ 실려온 佛音… 고향생각 ‘흠뻑’

원오도량, 베트남사찰 건립기금 모연음악회
고국 가수들 무료 공연, 600여 관객 기립박수

“학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분들에 비하면 별 거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요. 그리고 고향의 음악을 손수 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서 한국으로 유학 온 레짱 씨는 울먹였다. 머나먼 이국땅서 느끼는 향수(鄕愁)와 온갖 어려움을 딛고 꿋꿋이 살아가는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었다. 눈물 흘리진 않았다. 끝내 미소를 띠었다. 고국의 아름다운 음악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주한 베트남사찰 원오도량(지도법사 팃 드엉 탄)이 10월 2일 서울 용산아트홀서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고국음악회를 열었다. 아울러 종교인 중 대다수가 불자인 베트남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한국도량 건립 모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베트남사찰은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서양에는 있지만 아직 한국에는 한 곳도 없다.

이날 원오도량은 ‘사찰 지붕, 그리고 민족’이라는 주제 아래 베트남가수들을 초청,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을 마련했다. 초청가수들 역시 행사 취지에 공감해 공연비를 받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

공연에 앞서 객석을 가득 메운 600여 명의 베트남인들은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베트남식으로 봉행했다. 함께 자리한 한국스님과 불자들도 예를 갖췄다. 이후 베트남 남녀로 구성된 공연단이 베트남 전통예술공연을 펼쳤다. 단원들은 전통춤과 전통무술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돋우고,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관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은 가수들이 출연하자 엄숙했던 공연장은 곧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베트남어인 노랫말은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하반야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옴마니반메훔’ 등의 가사는 명확히 전달됐다.

여타 국내 음악회와 다른 점은 하나의 무대가 끝나갈 때마다 주최 측이 공연자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베트남문화가 돋보였다.

유일한 한국인 공연자 허철영 테너는 ‘넬슨 도르마’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성악곡을 선보였다. 풍부한 성량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고음에 관객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허철영 테너는 “마치 고향분들과 함께인 듯 공연이 편안했다”며 “원오도량의 베트남사찰 건립이 많이 알려져 국내에 멋진 도량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 중간에는 현재 원오도량이 국내서 펼치고 있는 활동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한국불교계와 교류하는 모습부터 연등회 참가, 효도법회,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모습이 소개됐다. 결혼이주여성인 응옥여임 씨는 영상인터뷰서 “한국에 베트남인들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들만의 사찰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며 “베트남불자들이 힘을 모아 사찰 건립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한국도량 건립 발원
원오도량 7개 지부
십시일반 성금 모아
부지확보 고군분투
한국불교 도움 절실

스트레스 날린 자리
주한 베트남인 鄕愁
고국 음악으로 달래
전통공연 · 찬불가요
어릴 적 추억 ‘물씬’

이어 사찰건립기금 모연을 위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에는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50가지 마음씨앗이 그려진 그림 ‘마음의 정원’과 베트남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가 나왔다. 마음의 정원은 한 베트남 여성불자가 250만원에, 달마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음악회의 대미는 베트남 유명 여가수인 피눙이 장식했다. 피눙은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곡 위에 감미롭고 애절한 목소리를 얹어 감동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피눙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향수에 젖어들었다.

베트남에 가족을 두고 온 근로자 응우옌 풍 씨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서 지낸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베트남사찰 건립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베트남인의 초대를 받아 온 창원 금강 정토사 수미향(51) 불자는 “평소 주지스님께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인연으로 오게 됐다”면서 “베트남과 한국이 불교로 하나 되는 자리로 느껴져 가슴 벅찼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와 조화이룬 도량 건립 발원”
원오도량 지도법사 팃 드엉 탄 스님



“그동안 주한 베트남불자들은 한국불교와 종파를 구분하지 않고 조화롭게 여러 행사를 치렀습니다. 모두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한국불교와 조화로울 수 있는 도량을 세우고자 베트남불자들이 마음 모았습니다.”

베트남사찰 건립기금 모금음악회를 주최한 원오도량 지도법사 팃 드엉 탄 스님〈사진〉은 구상 중인 도량의 지향점을 ‘한국불교와의 조화’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원오도량은 1차 목표였던 사무실을 인천 남동구에 마련한 이후 현재 사찰부지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베트남불자들이 작은 모임을 통해 국내 사찰을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원오도량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현재 서울 · 충북 · 대전 · 전주 · 울산 · 마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지부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 종교인의 절반가량은 불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 결혼 하든 늘 절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베트남사찰이 없어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베트남불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팃 드엉 탄 스님이 주한 베트남인들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전. 스님은 우선적으로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전국 사찰을 돌며 교류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가 다문화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렇기에 이제는 베트남사찰을 마련해 베트남인들을 돌보는 한편, 한국불교와 더욱 여법한 교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확보와 행정처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에 사무실을 임대했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지를 확보하고, 사찰을 짓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담당하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불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호섭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영암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장 : 지성
부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무 : 도은, 정해
교무 : 본각,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진화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각원, 현타
복지 : 화광
감찰 : 서호,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의식 :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권소라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사업부
총괄원장 : 이창훈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사업부 : 대덕화

▣전국신도회
남신도회장 : 설주성
여신도회장 : 김춘자
수석부회장 : 윤근
신도회장단 : 김생수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행복은 추구대상 아냐… 비우면 찾아오는 귀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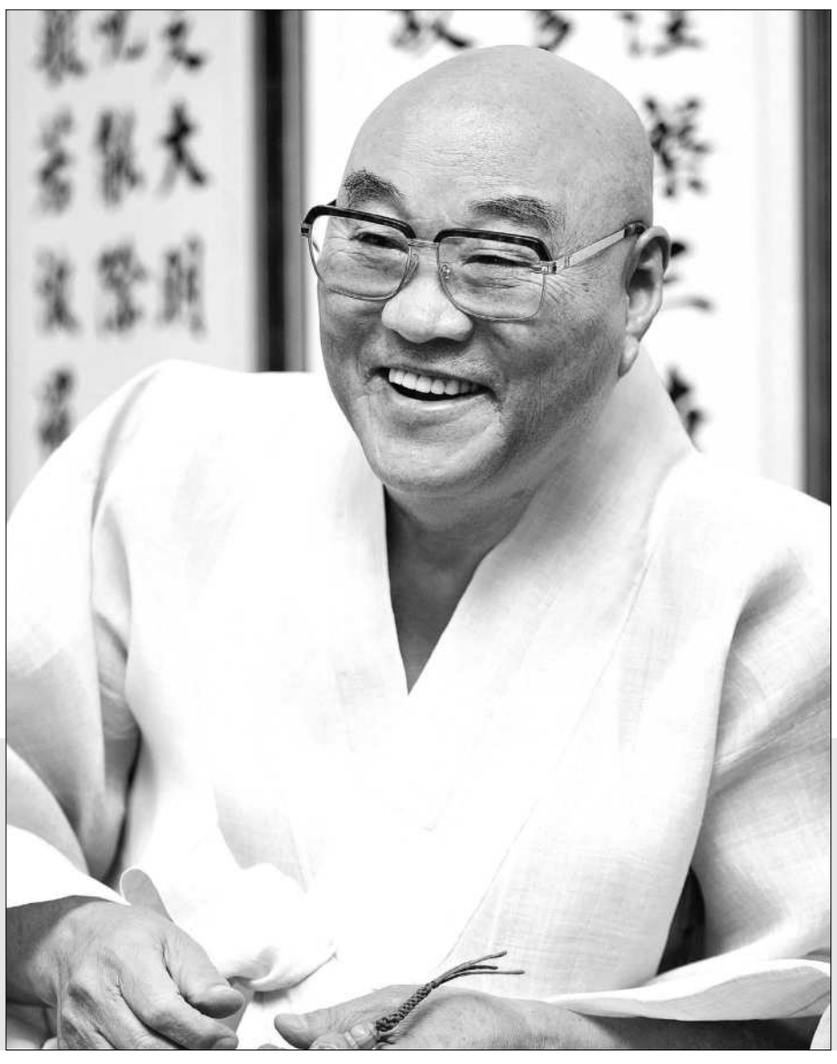
선지식에게 듣는다

월서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1956년 전남 구례 화엄사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선승이다. 스님은 한국전쟁 후 전투경찰에 근무할 당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처음 체험했다.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서 동료들의 전사를 목격 한 것이다. 제대 후에도 그 고통의 잔영은 가셔지지 않았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지리산 실상사 약수암으로 찾아가 금오 스님을 친견한 후 곧바로 출가했다. 이후 스님은 수행정진에 진력했으며, 특히 30여년 전부터는 ‘선묵일여’(禪墨一如) 정신으로 정진한 선사로 유명하다. 본지는 창간을 맞아 월서 스님에게 자비나눔의 의미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육신은 그냥 한 벌의 옷일 뿐입니다.
> 탐심이란 한 번 입고 버릴 옷에
> 치장을 하는 허망한 짓이지요.

▶월서 스님은

193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남지장사, 분황사, 불국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중앙종회의장(1990), 호계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에 오른 월서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현재는 법주사 조실과 천호희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깨달음이 있는 산사〉 〈행복하려면 놓아라〉 〈거울 속 성불의 길〉 등이 있다.

> 제행이 무상하다는 인식에서
> 본래면목의 ‘한 물건’을 찾아내는
>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캄보디아 오지학교에 학용품을 전달하는 월서 스님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추구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몇년 전 펴낸 법문집 ‘행복하려면 놓아라’에서도 밝혔듯이 행복이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귀결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속의 묵은 욕심과 때를 벗겨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 집니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죠.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가까운 절을 찾아가 보세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도 목욕탕입니다. 육신의 때를 벗기는 곳이 대중 목욕탕이라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천호희망재단 설립 이후 나눔행 실천에 활발하신데요.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셨나요?

-사찰의 주지를 지내고 선방서 참선만 해오다 뒤늦게 어려운 아이들의 실상에 눈을 떴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으로 2007년 방문한 북한서 굶주리는 동포 어린이들을 본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첫 자선 서예전을 열어 도왔습니다. 미력하나마 내 온전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였지요.

그러다가 2012년에 캄보디아 오지를 방문할 기회가 생겨 가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교과서도 없이 공부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 하고 천호희망재단을 설립해 교과서와 학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 프놈펜 시아누크왕립불교대학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씨엠립 인근 바탐방 지뢰마을에는 쌀을 보냈습니다. 힘들지만 가능하면 협찬 없이 혼자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업을 짓기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였지요. 인생을 회향할 나이인데 마지막에 좋은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웃음)

▲구호사업중에 특별히 교육 사업에 전념하시게 된 계기는요?

-캄보디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이란 말이 있지요. 〈관자(管子)〉서 유래 된 말인데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의미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 성어입니다. 또한 〈권수(權修)〉편에 보면 1년 계획으로는 곡식 심는 것 만한게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 심는 일 만한 게 없으며, 일평생 계획으로는 사람 키우는 일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는 생각서 이 사업을 앞으로 죽을때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텝퐁 스님의 요청도 구호활동을 하게 된 이유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느정도 후원을 하셨는지요?

-승왕 텝퐁 스님은 캄보디아서도 재정이 열악한 북서부 국경지역 쁘레아비히어 주와 오도르민쩨이 주 학교들에 교과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캄보디아 벽지 마을 학교에 체계적인 교과서 지원을 매년 하기로 약속했지요. 2개 주의 학교 중 1~2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 수 대비 50%~100%의 교과서를 지원하고, 제작되는 교과서에는 겉표지에 후원자를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네 번 정도에 걸쳐 교과서 2만부 정도를 후원했지요. 앞으로 3만부 정도 더 후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뿐 아니라 네팔과 라오스 등에도 교육 불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올곧게 보시행을 펼치며 살 수 있던 데에는 스승인 금오(金烏 · 1896~1968)스님의 가르침이 크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1956년 환갑의 나이로 구례 화엄사 주지였던 금오 스님은 스무 살의 새파란 제자가 조금이라도 게으른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놔두지 않고 계속 수행과 공부, 울력 등을 시켰지요. 그때는 무척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평생 저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게 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수행자는 냉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을 망치게 돼죠. 은사 스님이 참선을 강조한 것도 바로 수행이 바탕이 돼야 공부도 잘한단 이유 때문임을 뒤늦게 알았지요. 금오 스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월서도 없었을 겁니다.

▲스승인 금오 선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업적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신데, 그동안 어떤일을 하셨는지요?

-금오 스님께서는 청정승단을 수호하는 불교정화운동과 선불교 정통을 몸소 확립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지만, 문자로 가르침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들이 유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불교의 큰 소실이라고 생각해 스님의 어록과 가르침, 유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 ‘금오선수행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선사의 정화운동을 조명한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을 펴냈고, 이를 기반으로 동국대 종학연구소와 합심해 금오 스님의 생애와 수행관, 계율관, 선사상 등 선사의 삶과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한 〈금오스님과 한국불교〉, 법문을 정리한 〈금오집〉 등을 잇달아 발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신문과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물을 책으로 묶고 저의 제자들도 금오선사 연구로선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금오선사 탄신 1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스님의 연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법주사 조실도 겸하고 계신데 후학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육신은 그냥 한 벌의 옷일 뿐입니다. 탐심이란 한 번 입고 버릴 옷에 치장을 하는 허망한 짓이지요. 저는 50살이 지나면서부터 삶의 무상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인식에서 본래면목의 ‘한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삶의 무상성을 깨달아 마음을 바꿔 욕심과 화와 집착을 줄이는 지혜를 내는 것이 ‘생활 속의 불교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상성을 생각하면 욕심 덜 내고, 덜 섭섭해 하고, 덜 화내고, 덜 집착하게 돼 어리석음이 줄어듭니다. 도인처럼 탐(욕심), 진(성냄), 치(어리석음) 삼독심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참고 줄이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한 자락 청하겠습니다.

-‘금강경 오가해(金剛經 五家解)’에 ‘竹密不防流水過(죽밀불방류수과)/ 山高豈碍白雲飛(산고기애백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해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구름 지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구름처럼 걸림 없이 살라는 뜻이지만, 어떤 역경이라도 물과 구름처럼 뚫고 가라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경이 닥치면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피하지 말고 돌파하세요. 그러다보면 분명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인내하는 그 순간이 잠시 지루하더라도 이겨내시면 반드시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네 삶의 흐름이자 순리죠.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네팔불교 룸비니 평화재단과 교류하는 국내 유일한 종단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敎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전법대화상 : 우각당 도 일 대 선 사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 77대)

원로최고의원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보각. 덕암. 지원. 법하

원로의장 : 돈오 종회의장 : 법장 총무원장 : 동담 중앙연수원장 : 대웅
사정원장 : 귀천 승정원장 : 덕암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중앙선원장 : 혜광
승가대학장 : 도안 교육원장 : 무아 포교원장 : 효천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보관

총무부장 : 지관 재무부장 : 수연 교육부장 : 응수 호법부장 : 혜관
사회부장 : 도법 규정부장 : 광명 비구니부장 : 보현 문화부장 : 연제
사서실장 : 지혜 문도총무 : 청아 사무국장 : 적광

종도 모집중입니다.
현 종 도 425명
등록사찰수 412개 사찰

경기교구종무원장 : 금조 인천교구종무원장 : 진각 경남교구종무원장 :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 성법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 무정 총본산행자교육원장 : 승관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 053)325-0400.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훈민정음 보급 불경 언해가 큰 역할”

조계종 교육원 · 한국불교학회, 10월 5일 기획 세미나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0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과 불교’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들과 국문학자들이 한글 창제와 보급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천 스님은 조선 왕실 불사에서 훈민정음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살폈다. 스님은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 반포 이후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한 〈용비어천가〉와 한자어를 우리 글로 바꾸는 기준인 〈동국정음〉을 만들었고, 이외에는 모두 불교와 관련된 글을 우리말로 번역했음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정천 스님은 “세종대 언해된 불전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있다”며 “세종은 백성들에게 친숙한 불교로 훈민정음을 널리 유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후 가장 많은 불경을 언해한 군주는 세조다. 그는 1461년(세조 7년)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적지 않은 불교 서적을 간행했다. 불경 언해에도 조예가 있던 세조는 스스로 12건의 언해본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세조대 간경도감에서 발행된 불경 언해는 총 15건이다.

월인천강지곡 등 언해본 발행과
왕실불사 내 훈민정음 활용 살펴
창제 주역 신미 스님 조명 ‘눈길’

성종과 연산군대에 이르러서는 왕후나 대비가 주로 발원해 언해본 발행이 이뤄졌고, 중종부터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왕실불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 이 시기부터는 각 사찰별로 불경 언해가 이뤄졌다.

정천 스님은 “세조 당시 언해된 경전은 승가에서 유행하거나 자신이 좋아했던 경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승려의 교육을 위한 의도도 가미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훈민정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불교로 전환시켜 불교의 사상적 발전을 가져다줬다”면서 “백성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불교로 훈민정음을 보급시키고, 보급된 훈민정음은 다시금 불교를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과 한국불교학회는 10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과 불교’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훈민정음 창제 주역으로 알려진 혜각존자 신미 스님을 조명한 박해진 씨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박 씨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을 저술하기도 했다.

박 씨는 “〈세종실록〉의 편수관이었던 정인지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록 앞뒤를 잘라내고, 임의 편집해 왜곡했다”며 이어 “〈월인석보〉에 협주된 신미, 수미, 설준, 홍준, 효운, 지해, 해초를 비롯해 가정대부 김수온의 역할도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슬옹(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천개의 강에 떠오른 부처님 말씀과 세종의 꿈’, 영석 스님(동국대)의 ‘간경도감의 선서언해본 연구’,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세조의 상원사 중창과 〈상원사중창권선문〉에 대한 검토’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KABC, 사용자 확대… 신집성문헌 독창적”

동국대 불교학술원, 9월 30일 ‘ABC사업 실효’ 세미나

통합대장경·불교전서·신집성문헌
기록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방문자 87% ‘신집성문헌’ 이용
“ABC 사업, 2단계로 심화될 것”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이트.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추진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이하 ABC) 구축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9월 30일 교내 학명세미나실에서 ‘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학술원이 집성한 자료의 서지 사항, 고해상도 사진 등을 제공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이하 KABC)’에 대한 실효성과 콘텐츠 활용 지향점 등이 분석됐다.

이날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ABC 구축사업의 가치와 성과’ 기조 발제에서 불교학술원이 제공하는 아카이브 시스템 KABC의 2014년 개설 이후부터 사용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 중 87%가 새롭게 집성한 ‘신문헌집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사찰 역사, 의례, 사상문화 등의 범주에 속하는 기록문화를 ABC사업단에서 집성한 것이 ‘신집성문헌’이며, 이는 ABC사업의 독창성을 대변한다”면서 “KABC의 이용자 대다수가 신집성문헌을 이용한다는 통계는 동국대 ABC사업의 진가를 충분히 공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올해로 동국대 ABC사업의 1단계 5년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장해 더욱 심화하는 2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정 원장은 “ABC사업은 그간의 노력과 경험으로 2단계에 안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1단계 사업을 더욱 심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향후 3단계에서는 그간 병행해온 성과의 실용화를 최대한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천학(동국대)의 ‘원효 저술 일문(逸文)의 실태와 의의’, 원과 스님(동국대)의 ‘〈승만경〉의 일승장에 대한 원효의 해설’, 정재영 · 안대현 ·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조선 초기 〈능엄경〉 석독구결(釋讀口訣) 자료의 발견과 그 의의’, 이대형(동국대)의 ‘조선시대 승려 문집의 성격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편찬의 가치’ 등 10편의 주제 논문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태고보우법통설’은 만들어진 역사”

최병헌 교수, 30일 보조사상硏 세미나서 파격 주장

17세기 청허 휴정 문손들이
불교계 주도하며 법통 창작
태고보우법통, 현대도 영향

효봉, 태고 법맥 계승했지만
지눌의 개혁정신도 받아들여
“태고보우법통설은 폐기하고
지눌 · 원효의 확대 史觀 필요”

한국불교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태고보우법통설과 문중 개념은 만들어진 역사이며, 이를 뛰어넘은 통합적인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보조사상연구원이 9월 30일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한 ‘효봉 스님 열반 50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수선사 보조국사와 송광사 효봉 스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효봉 스님의 전법계보를 분석하고 태고보우법통설에 대해 비판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태고보우법통설이 본래 계승돼 내려오던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16~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청허휴정(淸虛休靜)과 동문인 부휴선수(浮休善修) 계통이 크게 부상했으며 이들 문손들이 불교계를 주도하게 됐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에는 주류층이 된 청허 계통과 부휴계통 간의 경쟁의식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청허 계통의 문손들이 주류로 자리잡게 된다. 청허 계통 중에서도 핵심은 편양언기(鞭羊彦機)의 문손들이었고, 이들이 태고법통설의 창작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송광사만은 부휴 선사가 1609년 송광사의 요청에 부응해 벽암각성 등 400여 명을 거느리고 중수를 담당했던 것이 계기가 돼 대대로 부휴계 문손들이 주석했다.

최 교수는 “법통이나 전법 계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심전심으로 전수되는 사자상승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중국 선종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청허-편양의 문손들이 근현대 각 종파의 부침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인 종정의 배출을 독점하고, 태고보우법통설이 부동의 정통설로 받아들여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통설은 문중의식으로 강화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2년 통합종단의 종정으로 추대된 효봉 스님도 청허 계통의 문손으로 태고법통설의 계승을 자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최 교수는 효봉 스님의 역사인식에 주목했다. 효봉 스님은 태고보우의 법통을 계승하면서도 보조지눌의 가풍과 결사 정신을 새롭게 인식해 계승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역사 인식은 현대 불교의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는 효봉 스님의 뚜렷한 역사의식의 소산으로써 송광사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태고보우법통설’은 폐기돼야할 ‘전근대적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 불교사에서도 신라말 고려초 전법계보가 조작되고 있었음을 회양산문의 법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서 “법계정심 이전의 법계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허구임이 밝혀졌다. 이제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태고법통설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를 개혁해 중흥하기 위해서는 태고법통설을 폐기하고, 지눌의 선교통합사상과 정혜결사 정신, 원효의 통합불교사상과 대중화 운동의 정신을 재인식하고 계승하려는 확대된 불교사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목우자 지눌의 생애와 사상-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에 대해,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다시 생각해보는 돈오점수론’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는 ‘효봉 스님 그리고 지눌을 배움(學訥)’을, 법산 스님은 ‘효봉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의 현실’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분노, 불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밝은사람들硏, 11월 19일 15회 연찬회

분노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나쁜 감정 기제일까, 아니면 ‘대분심(大憤心)’과 같이 깨달음과 목적을 위해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일 수 있을까. 분노를 불교적으로 해석 ·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주제로 제15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는 분노에 대한 초기불교 · 선불교 · 사회학 · 심리학 · 서양의학 · 한의학 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논의한다.

초기불교 부문에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붓다의 분노’를 주제로 참여하며, 선불교 부문에서는 김호귀 동국대 교수가 ‘선종에서 분노의 대응원리와 활용’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사회학 부문에서는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분노의 사회적 원천과 파장’을, 심리학 부문에서는 권석만 서울대 교수가 ‘분노의 경험과 표현’을, 서양의학 부문에서는 김광기 동국대 교수가 ‘뇌과학적 견지에서 보는 분노’를, 한의학 부문에서는 구병수 동국대 교수가 ‘감정과 기에서 본 분노’를 각각 논한다. 연찬회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교재인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11월 초 발매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봉 (사)범불교조계종 창종 수계 대법회 및 종도 모집 축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번호 : 191321-0001925

불기 2560(2016)년 10월 29일 (음, 9월 29일) 토요일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번지 / 055-351-3689)

총무원장 **범성 대명** 010-3193-3689

종도 모집 안내

❶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전법사 등록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1부
- 법당사진(내, 외) – 1부 / 사찰 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4매
- 계좌번호 : 농협 351-0902-3064-63 / (사)범불교조계종

❷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전법사,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사)범불교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은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일체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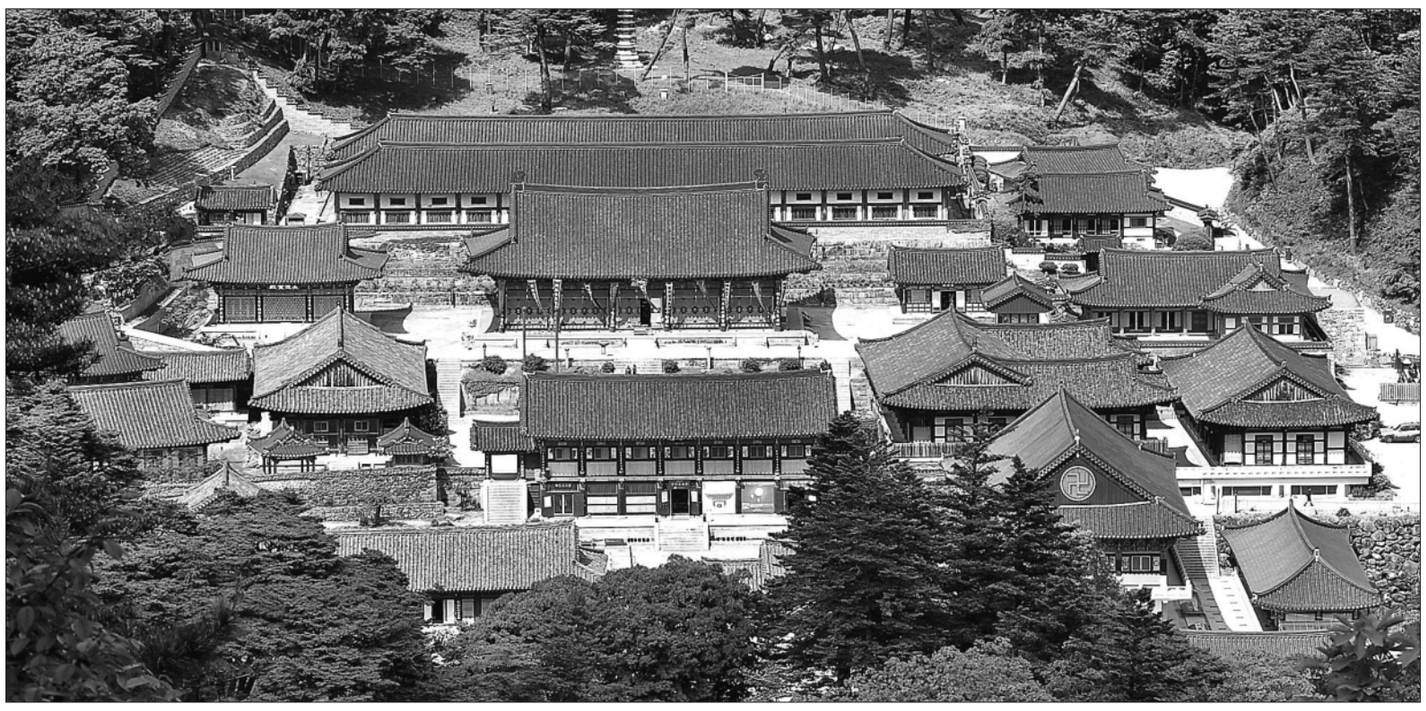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

승려와 교유로 고단한 격무 피로 잊어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㉛ 모재 김안국

어린 시절부터 孝 관심 높고
책 발간해 교화사업에 힘써
탁월한 글재주로 시문 남기며
茶香 속 유불 경계 넘나들어



모재 김안국이 자주 찾아와 승려들과 시를 교유한 가야산 해인사. 그는 하루 종일 쌓인 문서와 씨름하면서도 승려들을 만나 수행자와 속인의 삶에 대해 고찰했다.

사진제공=해인사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 1478~1543)은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조광조와 함께 도학에 밝았던 인물이다. 자는 국경(國卿)이며 호(號)를 모재라 하였다. 저서로는 〈모재집〉 〈모재가훈(慕齋家訓)〉을 남겼고, 사림파의 선구자로 지극한 정치(至治)를 표방하였다.

1503년 별시문과에 합격한 후 승문원에 등용된 이래 박사, 부수찬, 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517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향교마다 〈소학〉을 권했다고 하니 이는 어린 시절 〈소학〉을 읽었던 감동과 관련이 깊은 듯하다. 〈국조인물고〉에는 그가 7세에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소학〉의 '효성스럽도다. 민자건(閔子騫)이여' 라고 한 장구(章句)의 대목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이것으로써 법을 삼을 것이다"고 하였으니 어린 시절부터 효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의 호를 모재(慕齋)라 한 것은 부모에 대한 사모의 정과 효심이 지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화사업에도 힘써 〈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정속언해(正俗諺解)〉 등을 간행 · 보급했고, 〈벽온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등 병을 치료하는 책을 편찬하여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늘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는 참찬으로 임명되던 해인 1517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소장파 명신들이 참화를 당할 때 겨우 화를 면하고 파직되어 고향 이천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다. 여주 천녕(川寧)가에 작은 초정(草亭)을 지어 범사정(泛ᵃ₩亭)이라 불렀고 당명(堂名)을 팔이정(八怡堂)이라 하였다. 이곳을 찾는 고을 사람이 술을 싣고 오는 자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함께 즐겼다고 한다. 이렇게 은일을 즐기고 후학을 양성하던 그가 다시 등용된 것은 1532년이다. 예조 판서는 물론 좌참찬, 대제학, 찬성 등 높은 관료로 임명되어 비교적 순탄한 벼슬길에 올랐다.

무엇보다 그는 경악(經幄)과 서연(書筵)에서 시강(侍講)할 때에는 성리학(性理學)을 주로 하여 간결하고 유순하게 끝까지 관철시켰으므로, 임금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역수(易數)에 깊이 들어가 심오한 이치를 탐색하였고 천문(天文) · 지리(地理)를 두루 탐구하여 널리 관통하고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 중에는 그에게 제발(題跋)을 부탁하는 이들이 많았으니 이는 그가 시문에 밝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승려 붕중(弸中)과 교유했던 사실이 눈에 띄는데 이는 〈국조인물고〉에 "1511년 일본 사신인 승려(僧侶) 붕중(弸中)이 내빙(來聘)하였는데, 공을 선위사(宣慰使)에 충원하자 예의를 갖추어 대우함이 체모를 얻었으며 또 시문(詩文)을 지어 서로 주고받은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붕중이 대단히 추앙하고 복종하여 말하기를 "상국(上國)에 알현하고 이웃 나라에 빙문(聘問)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공 같은 인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다. 그가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기를 애틋하게 여겼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뒤로 왜사(倭使)가 내조(來朝)하게 되면 반드시 공의 안부를 묻곤 하였다는 것이다. 김안국도 붕중을 위해 시를 지었으니 이는 바로 〈차붕중상인청금운(次弸中上人聽琴韻)〉이다. 그의 깊은 의중은 다음과 같다.

옛 뜻을 이어 오랜 안족(雁足)에 의거했지만
(古意仍將寄古徽)
자주 속된 귀 기울여도 아직 희미하네
(頻傾俗耳尙依俙)
산골짜기 흐르는 물, 졸졸 메아리 치고
(澗中流水淙淙響)
하늘가 오락가락한 구름, 자유자재 나는구나
(天際閑雲自在飛)

김안국의 이 시는 붕중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聽琴)〉라는 시를 차운하여 지은 듯하다. 그러므로 붕우가 연주하는 거문고의 고상한 경지를 속된 사람으로 표현했고, 자주 귀를 기울여도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붕중의 탄주 솜씨는 마치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메아리를 치듯, 구애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유롭고 은근하였던 듯하다. 아마도 붕중과 그 자신을 백아와 종자기로 비견하여 지음(知音)의 우정을 나눈 사이로 상정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속내가 어렴풋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승려들과 교유했는데 해인사를 방문한 그에게 시를 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취중에 문득 마음가는대로 써준 시는 이렇다.

눈 푸른 가야산 주인은(倻山主人眼紺碧)
몇 년이나 산중에서 수행을 했던가
(山中幾年掛飛錫)
객이 이르자 문에서 맞이하며 말없이 웃는데
(客至迎門笑不言)
창창한 가야산, 계곡물 맑아라
(倻山蒼蒼倻水綠)
산승은 나를 알고 나 또한 산승을 알지만
(山僧知我我知僧)
잠잠히 서로 보며 말없이 앉았네
(默坐相看話不應)
가파른 언덕에 아름답게 핀 봄꽃
(巖畔春花開灼灼)
못에 비친 밤 달은 맑고도 고요해라
(潭心夜月照澄澄)
잠시 벼슬살이 고충을 피해(暫逃簿領韝中苦)
홍류동 동천을 찾았노라(來訪紅流洞裏天)
조물주는 일각의 한가함도 싫어하는 듯
(造物似嫌閑一刻)
다시 산승에게 시편을 청하게 하네
(更敎山衲乞詩篇)
잠시 선방을 빌려 턱을 괴고 졸다가
(禪窓暫借支頤睡)
나를 잊은 후에야 곧 명해짐을 알았네
(覺後忘吾正嗒然)
어느 곳의 노승이 와서 시구를 청하는가
(何處老僧來索句)
내 말없이 이미 무연을 말했네
(我無言說亦無緣)

가야산은 수많은 시인 묵객이 찾았던 승경지이다. 이곳에 위치한 해인사에는 선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대찰이다. 김안국 또한 이 경승지를 찾았다. 이곳의 승려들이 앞을 다투어 시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단한 격무를 잠시 쉬고자했던 그는 '조물주는 일각의 한가함도 싫어하는 듯/ 다시 산승에게 시편을 청하게 하네' 라고 하였다. 그의 여유와 넉넉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가파른 언덕에 아름답게 핀 봄꽃/ 못에 비친 밤 달은 맑고도 고요' 한 가야산은 그의 말대로 동천(洞天)이었던 셈이다. 말없이 무연(無緣)을 말할 수 있었던 김안국은 분명 불교의 참 원리를 이해한 선비였다.

그가 장흥사의 사미승 신인(信仁)을 위해 쓴 시에는 서정적인 여유와 해학이 넘친다. 그가 이 시를 쓰게 된 연유는 "장흥사에서 놀다가 돌아가려는데 마침 가랑비가 내렸다. 사미 신인이 또 종이를 가져와서 가는 길을 막으며 시를 구했다. 부담없이 쓴 시(遊長興寺 欲還適小雨 沙彌信仁 又持紙遮行索ㅁ書)"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방에서 차 마시기 끝내고 돌아가려하니
(禪窓茶罷客將歸)
쏴아 맑은 바람 불고 가랑비가 내리네
(颯颯淸風細雨)
길손을 잡으려는 산의 뜻을 뉘 알랴
(山意欲留誰得會)
시를 청하는 사미승만이 알았으리라
(乞詩僧亦解山機)

장흥사 선방은 그와 교유했던 승려와 아름다운 유불의 교유가 무르익는 곳. 이들의 고담(高談)은 차향 속에서 더욱 깊게 피어났을 것이다. 조선 전기의 차 문화는 고려의 유습이 잔재했던 시기이다. 이 무렵 차 문화를 주도한 것은 사원의 승려들이었다. 더구나 사미승까지도 문기(文氣)있어 김안국에게 시를 청했던 사격(寺格)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어 그가 사운 사미에게 준 시에도 차가 나온다. 〈장흥사 사미 사운에게 주다(贈長興寺沙彌思雲)〉를 감상해 보자.

비온 뒤 활짝 핀 작약(芍藥來看雨後花)
사미승이 월중차를 다려 권하네
(沙彌烹勸月中茶)
화려한 비단 휘장아래 양고주가
(羊羔華屋圍紅粉)
선방의 차와 견주면 무엇이 나을까
(較與禪房味孰多)

작약은 5월의 꽃이다. 초여름이 막 시작되면 작약이 핀다. 그런데 사미승은 월중차를 다린단다. 물론 그가 즐긴 차는 햇차였을 것이다. 선방의 아취는 작약보다 고상하고 맑은 차에 있었던 터이다. 한편 그가 현중 승려를 위해 쓴 시에 허탄한 속세의 삶과 속기를 벗어난 승려의 삶을 선명하게 대조했다. 〈현중승려에게 주다(贈玄仲上人)〉는 이렇다.

더러운 길에 잘못 떨어져 허망한 이름
좇았더니(誤落塵途逐浪名)
남가의 미몽을 어느 때나 깰까
(南柯迷夢幾時醒)
삼생이 청산의 빚을 아직 갚지 못했는데
(三生未償靑山債)
천장의 허공에 백발만 남았네
(千丈空餘白髮蓬)
붕새의 길, 진실로 뱁새가 원하는 것 아니니
(鵬路固非 鷃願)
참죽나무의 봄을 어찌 여치나 하루살이
나이로 짐작하랴(椿春寧數蟪蛄齡)
다른 해에 만일 다시 만나길 약속한다면
(他年 許重逢約)
깊고 그윽한 숲, 맑은 바람 웃으며 맞으리
(林壑淸風一笑迎)

1514년에 왕의 명으로 송도에 갔던 그는 무더운 장마철의 더위를 피하려고 송도에 위치한 광명사에서 집무를 본 적이 있었다. 하루 종일 쌓인 문서와 씨름하던 중에 현중 스님이 찾아왔는데 현중은 준수한 용모에 눈 푸른 납자였다. 그의 말을 듣고 피로를 잊은 건 김안국이다. 바로 붕새는 현중일 것이며 자신은 뱁새에 비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600년을 살았던 춘 나무의 나이와 하루살이를 비견하였으니 이는 수행자와 속인의 삶을 대비적으로 말한 것이리라.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이갈지

■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김형구

■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 종정사서실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총장 한광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0-7100 / 전송 (043)420-7399 / www.cheontae.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지족
차석부의장 금용

중앙종회 의장 설운
수석부의장 법담
차석부의장 시각

호법원 부원장 상묵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호명
교육부원장 백운
총무부장 도안
교무부장 상진
재경부장
문사부장 성인
규정부장 도법
홍보부장 자우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그림 · 박구원

세계불교 도래·명상 산업화… '멜팅폿' 한국불교

〈Melting Pot〉

한국불교의 변곡점, 다불교&탈종교 – ① 한국불교, 준비가 필요하다

'멜팅폿(Melting Pot).' 현재 한국불교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다. 흔히 '멜팅폿'은 인종과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동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한국불교에 적용시키면 '세계불교의 용광로'로 표현될 수 있겠다.

현재 한국불교는 '다불교'라는 큰 조류를 맞이하고 있다. '다불교'는 다문화와 세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에는 미얀마·태국·스리랑카·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불교를 포함해 일본과 대만, 서구화된 불교까지 다양한 국가의 불교가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해외불교의 한국 진출은 1990년대 시작된 동남아 불교국가 노동자들의 이주현상과 증가, 2000년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한 테라와다 불교의 전파와 과학화된 서구불교의 역수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

'다불교'라는 현상적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다. 그는 다불교의 특징을 한국의 전통불교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성택 교수는 "다문화라는 말의 핵심은 '한국문화를 중심에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에서는 대승불교, 간화선이라는 중심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 중심이 해체된 상황을 '다불교'라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불교 현상은 역사적 유례가 없는 사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다불교를 다문화의 확장판으로 보고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윤승용 이사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불교만으로는 현대 불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수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한국불교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신도 중심의 불교가 돼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불교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불교 현상의 대표 사례는 광풍에 가까운 초기불교에 대한 열기이다. 2000년대 이후 초기경전 번역과 함께 위빠사나 등 초기불교 수행법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완벽하게 자리잡았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라고 자신했던 간화선은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3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불자 중 4%만이 "간화선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웰빙·힐링 열풍과 더불어 명상 대중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양에 전파된 불교가 마음 수행 등으로 변화돼 오히려 역수입되고 있다. 실제, 존 카밧진에 의해 체계화된 MBSR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접목되면서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기, 마음수련 등 유사불교 형태의 마음 수련들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9월 3일 조계종 포교연구실과 불광연구원 주최로 열린 '탈종교화 시대, 종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란 주제의 학술연찬회서 탈종교화와 다불교 현상을 연계시켜 비판했다.

명법 스님은 "명상의 대중화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이 되는 것)와 함께 발생한 근대적 현상"이라며 "명상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소비문화의 하나로서, 명상의 유행과 더불어 오히려 탈종교화와 종교의 사사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업주의와의 결탁은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불교 상황은 다종교 상황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불교를 약화시키고 종교를 사생활 또는 취미생활로 여기게 했다"면서 "이제 한국불교는 종교 시장에서 타종교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불교전통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이 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다불교와 탈종교 현상이 공통적으로 갖는 현상은 바로 '탈제도화'다. 이는 기성 종교·종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불교는 중심 권위의 해체로 기성 전통 종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탈종교 현상은 세속화와 탈제도종교화로 세분돼 나타난다.



태국 방콕의 한 불교사원의 수많은 불상들. 다불교시대를 맞은 한국불교도 다양한 불교를 만나고 있다.

각국 불교 백화점된 한국불교
초기불교에 높은 관심 가져와
권위·중심 해체된 다불교 상황

탈종교화, 한국사회 명백한 현상
종교, 사생활의 영역으로 추락해
명상 대중·산업화 明暗 분석해야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종교 단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을 나타낸 사람은 83%에 달했다. 불자의 경우 85%가 가톨릭인은 84%가 개신교인은 73%가 종교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행 생활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탈제도화 현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의 '탈종교화' 주제 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탈종교화 시대에 세속적 제도들이 종교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종교의 전문영역이었던 분야에 기업들이 나서서 힐링의 산업화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고, 영성을 마케팅의 주요 범주로 활용하고 있다. 대중스타에 대한 팬덤은 청소년의 유사종교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1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영덕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1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덕연수원에서 명상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산업, 동화그룹 등도 명상센터 형식의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선도, 단월드, 마음수련원 등 유사 종교 수련단체들이 전국 조직을 넘어 세계로 진출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자체 수련법를 개발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규모 명상센터를 세우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혜란 가톨릭대 외래교수는 '신자유주의와 종교 상품화' 제하의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이전에는 상당 부분 제외됐던 종교 영역을 소비문화로 흡수하면서 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현 시대에서 종교문화는 일종의 '주인 없는 자원'으로 쉬운 상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 불교는 이 같은 변화 현상들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남는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아직 현상 인식과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명법 스님은 "한국불교는 아직까지 다문화, 다종교, 다불교 상황을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상대주의를 허용할 만큼 권위주의도 청산하지 못했다"면서 "불교를 현재적 경험 속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다시 현재 한국 상황과 접합시키는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용 이사는 "선종이라는 큰 줄기의 전통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불교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현재의 규격화된 불교로는 현대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 전통을 중심으로 수용과 보완 작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국불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는 "다불교 현상은 불교 전통간의 상호 교류와 불교의 국제화 운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통해 불교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우월성과 정체성만 내세우기보다 서로 배우며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실상 산문종



실상선원 선원장 성환

천 축 사 정헌, 성우
용 암 사 지공
천 지 사 천공

대 중 일 동

실상선원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22-4 ☎ 02)745-8503
천 축 사 | 충남 논산시 계백송정4길 86-4 ☎ 041)734-2680
용 암 사 | 경북 청송군 개일월매길 736-54 ☎ 054)873-3607
천 지 사 | 전남 함평군 학동로 1110-102 ☎ 061)322-1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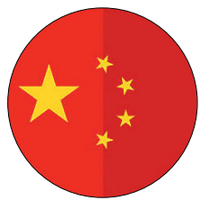
동남아·일본·대만·서구까지, 한국은 '불교 각축장'

한국불교의 변곡점, 다불교&탈종교
② 한국은 세계불교 백화점



조계종 해외승려초청 연수에 참가한 해외 스님들이 법회를 보고 있다. 스님들의 다채로운 가사색만큼 한국불교의 다불교 현상도 확연하다.

해외불교 한국진출 한축은 '이주민'



중국 70여만 명



태국 7만 6천여 명



캄보디아 4만 천여 명

관심 받는 불교명상, 대부분 위빠사나

명상 논문 매년 22.7% 증가

명상 논문 중 위빠사나 30.5% 초기불교 12.6% 선 8.4%

2000년대 급속히 늘어난 해외불교 법당

스리랑카	양주	마하보디사	2005년
	평택	마하위하라사	2005년
	구미	이주민공동체	2006년
티베트	부산	광성사 한국티베트센터	2007년
캄보디아	산본	캄보디아법당	2008년
네팔	동두천	용수사	2008년
몽골	서울	몽골법당	2008년
미얀마	부평	담마두따센터	2008년
	부산	미얀마선원	2009년
	부평	미얀마전법선원	2009년
	대구	따수카 사원	2009년
태국	안산	담마제디야람사원	2013년
	양주	파와나사원	2013년
일본	부산	진여원	2015년
	전국	SGI	1960년대
대만	서울	불광산사	1999년
중국	부산	보리수약사선원	2013년

국내 이주민 대부분 불교국가 출신
2008년 테라와다불교 법인화
중·일도 부산지역 중심 진출

명상 관심↑, 명상 대회 등 열려
명상 관련 논문 매년 증가세
"자기개발 차원으로 확장 특징"

폭발적인 이주민 증가와 해외불교 직접 전래

가장 먼저 동남아 남방불교의 한국 전파는 동남아 불교국가 이주민의 정착과 맞물려 있다.

통계청 '2015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주민은 136만명에 달한다. 2010년 96만명에 비해 42%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대부분이 불교국가에서 온 이들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대만을 비롯한 중국계가 51.6%(70만 여 명), 태국 5.7%(7만 6000여 명), 캄보디아 3.1%(4만 1000여 명)에 달한다. 미얀마와 네팔도 각각 2만여 명이 넘는 이주민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년 사이 이주민 증가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불자인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 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스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열고 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는 이주민 관련 법당은 17곳에 달했다.

김현덕 마주협 사무국장은 "1998년 2곳에 불과했던 법당이 2000년 이후로 급증한 상태"라며 "현재 파악된 수치는 조계종 등록 후 지원을 받는 법당으로 최근 자체운영하는 법당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기불교 열풍 이어져

여기에 2000년대 본격화된 상좌불교 수행의 열풍도 이어지고 있다. 상좌불교의 한국진출은 이제 완연히 자리를 잡은 상태다. 2008년 12월 한국 테라와다불교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 한 것은 한국에도 상좌불교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 초기 미얀마 파욱센터 등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배운 이들이 한국에 센터와 수행처를 열었다면 최근에는 이들 센터나 이 곳에서 활동한 외국스님들이 직접 한국에 분원을 세우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초기불교 수행을 전하는 곳은 40여 곳이 넘는다.

일본 · 대만 · 중국 불교도 교세 확장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진출을 급격히 늘려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일본 30여 종파에 150만명 이상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일련정종 입정교성회, 정토진종, 천리교 등 법화 · 정토 계통의 종단이 포교원을 건립하고 있다.

한국에는 1960년대 한국에 진출한 SGI(창가교육학회)가 대표적이다. 2000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12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며, 1230개 지부가 있다. 이와 함께 일련정종 계열로 동대문 일련정종(한국일련정종총본부), 일련정종 강동본부(대한정법일련정종법화강불교회), 일련정종 대한사(연화산 대한사)가 있으며 부산 일련정종 고려사는 20만 신도를 비롯해 18개 종파 25만여 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는 일본 진언종 계통인 진여원이 부산에 지부를 두고 한국포교에 나서기도 했다.

대만도 1990년대 초부터 한국 포교에 관심을 가져 1998년에는 대만 불광산사 한국지부격인 사찰이 장충동에 법당을 개원하기도 했다.

명상 · MBSR 등 서구화된 자기개발 담론 거세

최근에는 서양에 전파된 불교가 마음공부와 수행 등으로 진화돼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2010년부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의 고승들과 저명한 마음명상지도자들을 초청해 국내서 직접 수행법을 지도받는 단체가 많아졌다.

충남 천안 '호두마을', 서울 과천 '보리수선원' 김해 '반야라마' 등에서는 명상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보리수선원이 2013년 제1회 국제명상심포지엄을 연데 이어 참불선원이 2014년, 2016년 명상 수행승 아잔브람을 초청, 세계명상힐링캠프를 열기도 했다.

명상에 대한 관심은 명상관련 연구의 급증에서도 드러난다.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의 '명상 어떻게 연구되었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명상 관련 논문은 총 413편으로 매년 22.7%씩 증가했다.

명상 논문 중 심리 관련 논문이 130편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관련 논문이 95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불교 명상 논문에서는 위빠사나 및 사티와 관련된 논문이 29편으로 전체 30.5%를 차지했으며, 초기불교가 12편으로 12.6%를 선은 8편으로 8.4%에 불과했다.

존 카밧진에 의해 체계화된 MBSR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미국서 유행하는 'MBSR' 또는 '마음챙김에 바탕한 스트레스 감소'는 한국서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한국으로 진출하는 다양한 불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MBSR을 비롯한 명상 프로그램도 자기개발 차원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한국불교도 해외로 진출하고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 진각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Buddhism in Daily Life, Daily Life of Buddhists

"불기2560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유사 마음수련 홍수… 禪 참의미 알리자

한국불교의 변곡점, 다불교&탈종교
③ 탈종교 현상과 명상 대중화



명상 단체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 명상 대중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무분별한 수행법 범람은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사회의 종교가 가지는 공통된 문제 현상은 '탈종교화' 이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젊은 층들의 종교 이탈이 심각한 문제다.

종교의 나라 미국에서 무신론자가 점차 늘고 있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의 최신 보고서 '엑소더스: 미국인들은 왜 종교를 떠나는가, 그리고 왜 돌아올 것 같지 않은가' 에 따르면 미국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혹은 '나는 무신론자다' 는 응답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25%이다. 1986년 7%, 1996년 12%, 2006년 16%였던 미국 '비종교인구' 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신을 믿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연령대별 '비종교 인구' 비율은 18~29세 39%, 30~49세 29%, 50~64세 17%, 65세 이상 13%였다. PRRI는 "30년전 20대 가운데 10%에 불과했던 비종교 인구가 4배 가까이 폭증한 것" 이라며 "종교에 있어서도 세대간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 이었다. 연구소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60%가 "종교적 가르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 같은 탈종교화 현상은 세속화와 탈제도종교화로 세분돼 나타난다. 불교에서 이 같은 현상과 맞닿아 나타나는 사례가 명상의 대중화이다.

명상의 대중화는 불교에는 큰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이 서로 앞 다퉈 자신들이 설립한 연수원에 명상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고, 명상 수행에 대한 정보와 수련장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기실, 참선이나 명상 수행은 특정 종교나 종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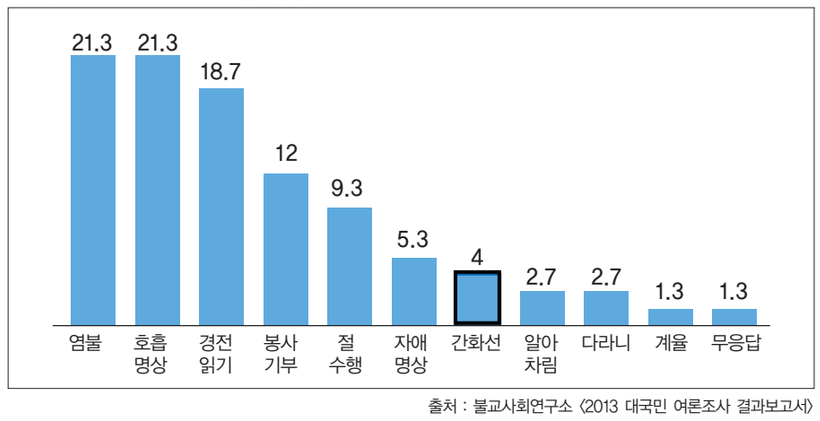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수행하는 재가불자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불자 중 70.4%가 실천 중인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없다' 고 답했다. 그나마 '있다' 고 답한 불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염불(21.3%)과 호흡명상(21.3%)이 주류를 이뤘고, 간화선을 수행한다고 답한 불자는 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불교사회연구소가 올해 9월 발간한 〈조계종 수행 현황과 과제 연구 보고서〉는 "현재 조계종단의 크고 작은 갈등도 종단 구성원들이 수행에 무관심하거나 수행상의 혼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단 구성원들 사이의 불교관과 수행관의 불일치가 다양성을 뜻한다면 환영할 일이나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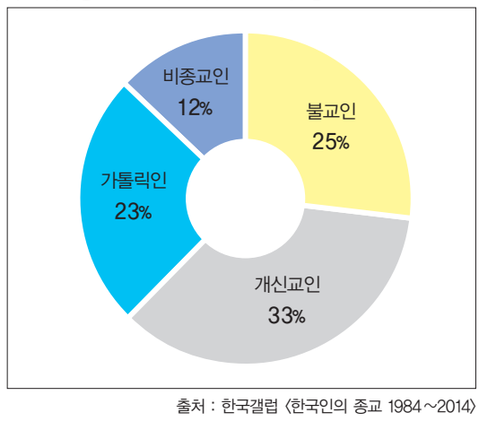
탈종교화 현상은 명상의 대중화와 함께 유사 불교 수련법의 범람도 함께 가져온다. 이는 종교적 수행을 사사화(私事化) · 세속화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표1〉 한국불자들의 수행 경향 (%)



출처 : 불교사회연구소 〈2013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표2〉 종교별 마음수련 참여 경험 (긍정응답, %)



출처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불자 중 4%만 간화선 수행
유사수련 경험자도 많아져
종교 사사화 경향 확대일로

수행, 자기 위안 활용 세태
명상 대중 · 상업화 明暗봐야
종단 수행체계 개발 필요해

실제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마음 수련 참여 경험이 있다' 고 답한 응답자 중 25%가 불자였고, 개신교인이 33%로 가장 많았다. 가톨릭은 23%로 비슷해 모두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였다.

'종교보다 개인적 수련에 관심이 많다' 는 응답에는 불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인은 25%, 가톨릭인은 29%였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종교계에서도 사사화 경향이나 얽매임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한국인들의 신앙이 제도 종교 중심의 신앙 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신앙 생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한 종교의 사사화, 세속화는 종교적 수행문화를 소비문화로 환치 시킨다. 김성건 서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문 '종교의 미래:사회학적 전망' 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 변동은 △제도 종교에서 소비적 영성으로 전환 △종교의 사사화와 상품화로 요약된다"면서 "이는 종교인과 종교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성찰적 신앙에서 세속적 건강과 부(富)의 숭배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대중들이 좇는 명상 대중화의 환상을 경계했다. 명법 스님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위로' 나 '만족' 위주가 됐다. 사찰에 법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나 경연장에서 만족을 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예전엔 스님들에게서 직설적이나 핵심을 찌르고, 현실서 가치 없다고 판단된 부분을 파격적으로 언급하는 태도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르치는 스승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고 현 세태를 평가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원래 명상이나 불교적 수행은 단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연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나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치관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조계종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조계종 교육원은 전국선원구좌회와 협의해 '간화선 지침서' 편찬을 추진했고, 2005년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을 간행해 2만권 이상 출간하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렇다 할 노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종단 차원의 간화선 종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명상 열풍과 인성교육 강화 시류에 맞춰서 불교계 안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명상 포교 현장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위해 2015년 4월 21일 한국불교명상지도자협회를 출범했고, 올해 5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현재 협회는 협회 명의의 명상지도사 자격증을 국가 등록으로 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종 명상지도사' 양성 과정을 2년 째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교사회연구소가 9월 발간한 〈조계종 수행 현황과 과제 연구 보고서〉는 의미가 큰 연구 성과이다. 보고서는 현재 조계종의 수행 현황부터 역사와 전통, 문제점과 전망 · 과제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내고 있다.

보고서는 "종단 차원의 수행체계와 이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이 다양한 유사 종교 수련단체들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불자들이 사찰이나 부처님 교법서 마음의 고통을 해결 못하고 종단 밖의 수행 · 수련 단체로 가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면 그것은 불교와 종단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단 차원의 사부대중 수행체계 정립과 수행종책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런 종무행정을 담당할 수행 전문 부서와 기구 설립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종단 수행 종책에는 수행이 무엇이며, 목표와 수행 방법, 효과를 담아내면서 프로그램 교재, 매뉴얼 개발과 보급, 지도자 양성 방안, 국내외 수행센터 운영과 지원 방안을 담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종단 지도부와 제방 사부대중은 종단 수행체계의 정립과 실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화선이 최상승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간화선이 최상승이라는 전통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직지 · 돈오의 간화선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보며, 해결할 수 있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립해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함께 정진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불법을 외호하며 범 종단지로서 한국불교언론의 막중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高僧長老團.
世界佛教考試委員會. 大韓佛教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教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 팩스 02)733-5615 / H.P : 011-229-6061

“변화는 이미 시작… 중도적 수용·극복 필요”

한국불교의 변곡점, 다불교&탈종교
④전문가 제언–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불교에서 ‘다불교(多佛敎)’는 내재된 현상이다. 여기에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탈종교 현상은 명상 대중화·종교 사사화(私事化·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이 되는 것)와 함께 다각적으로 한국불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불교와 탈종교 현상에서 한국불교의 변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불교 현상이 가져온 것들

다불교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성 제도권 불교에 대한 실망감을 들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종단에서 경전 해석이나 불교사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존재하지 않고 학자들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자들의 교리·역사 해석은 그들이 하는 일이다. 조계종단은 끊임없이 종단만의 해석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문적 해석과 종교적 권위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불교는 세계불교사에서 한국과 서구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며 “다불교 현상은 한국불교 특유의 개방성, 포용성이 강점처럼 보이지만, 자기 해석을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크다. 현재 한국불교는 다불교 현상에 대해 어떤 논의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의 지적은 조금 더 신랄하다. 스님은 다불교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종교의 사사화, 세속화 현상 등이 불교를 시대 언어로 전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온다고 비판했다.

명법 스님은 “전통 종단인 조계종이 현대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초기불교에 대한 대중의 선호가 높은 이유는 초기 경전이 쉬운 우리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가 되니 ‘그 수행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다불교를 다문화의 확장판으로 보고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윤승용 이사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불교만으로는 현대 불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수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한국불교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신도 중심의 불교가 돼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불교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 역시 “다불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김용표 교수는 “다불교는 이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지구촌 시대가 가지는 긍정적 요소”라며 “불교 전통별로 불타관, 경전관, 교리, 윤리와 계율, 신앙과 수행 체계 등에 상이한 점이 많다. 이웃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사이비 불교를 가려내고 참된 불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법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사생활 영역으로 넘어간 종교 세속화 가속… 공동체 회복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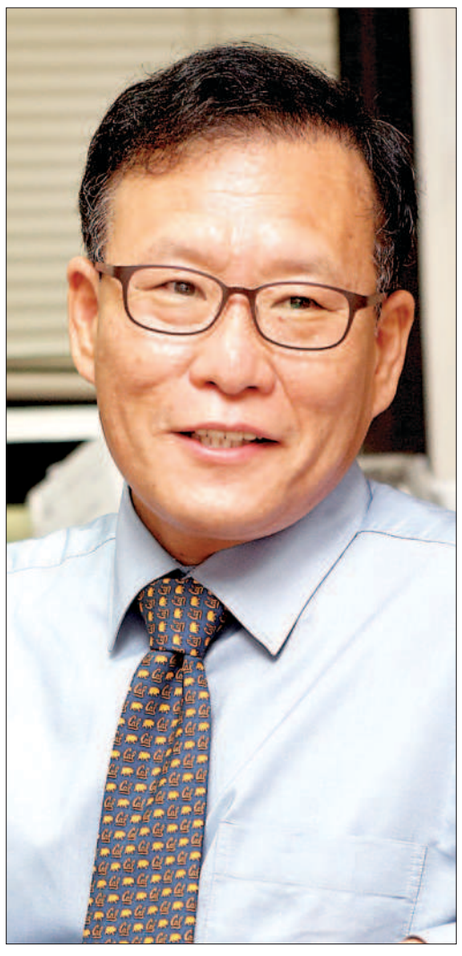
탈종교가 가져온 것들

탈종교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다층적인 분석들을 내놨다. 명법 스님은 “탈종교 현상은 종단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방식의 근대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 전통을 현대사회서 살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탈종교화와 함께 나타나는 종교의 사사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명상 대중화와 함께 나타나는 마음 수행법의 난립은 종교의 세속화를 가속시킨다고 봤다.

명법 스님은 “명상 인구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쉬운 것을 강조하다보니 당장의 효과만 바라게 된다. 결국 근원적 변화에 대해선 무관심하다”면서 “예전엔 종교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생활의 일부로 취급한다. 자본주의적 경제가 만연해 대중들은 종교도 자신에게 득이 돼야 믿고, 당장 얻는 것 외엔 관심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용표 교수 역시 탈종교화에 대해 ‘종교의 세속화’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명상과 웰빙 문화는 내면적 탐구보다는 피상적인 상품화의 단계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다불교 넘어 미래불교를 준비 후천개벽 이끌 선지자적 종교 돼야”

발전해가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적 상업문화와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전통 종교는 점점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기존 종교가 주던 여러 기능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대체종교’의 물결이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에서 비롯된 다양한 명상 수행들이 가지는 근본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로베르토 M. 웅거 하버드대 교수의 ‘인간실존의 음흑한 진실을 끝까지 직시하기보다 일종의 안심용 형이상학(feel-good-metaphysics)을 통한 위로를 제공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명상 수행 대중화가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다. 수행의 목표는 내 행복을 넘어 모든 존재는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불교,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심화되고 있는 다불교와 탈종교 현상에 대해 한국불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윤승용 이사는 두 현상이 심화될 경우 기성 한국불교 종단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

“해외 종교 흐름, 민첩히 파악 시대 맞는 전법 방법 개발 절실”

그는 “다불교와 탈종교 현상에 대해 기성 종교와 종단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다불교 중 명상단체가 많은 것은 시대적 조류이며, 이들 중에는 고전적 도덕이나 윤리도 무시하고 종교 중심 권력과 제도 해체를 주장하는 곳도 많다. 이들은 명상을 상품화하고 상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불교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한국불교는 자신의 전통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개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불교가 시대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법론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표 교수는 “부처님이 〈깔라마〉에서 설하신 바와 같이 ‘탐진치를 소멸해주고 사무량심을 증장시키는 종교’는 받아들이고, ‘사이비는 아니지만 불만족스러운 종교’도 잘 선별하여 이를 교화시켜나가는 방편적 지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대중화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하며, 해외 종교문명의 새로운 흐름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시대에 적합한 전법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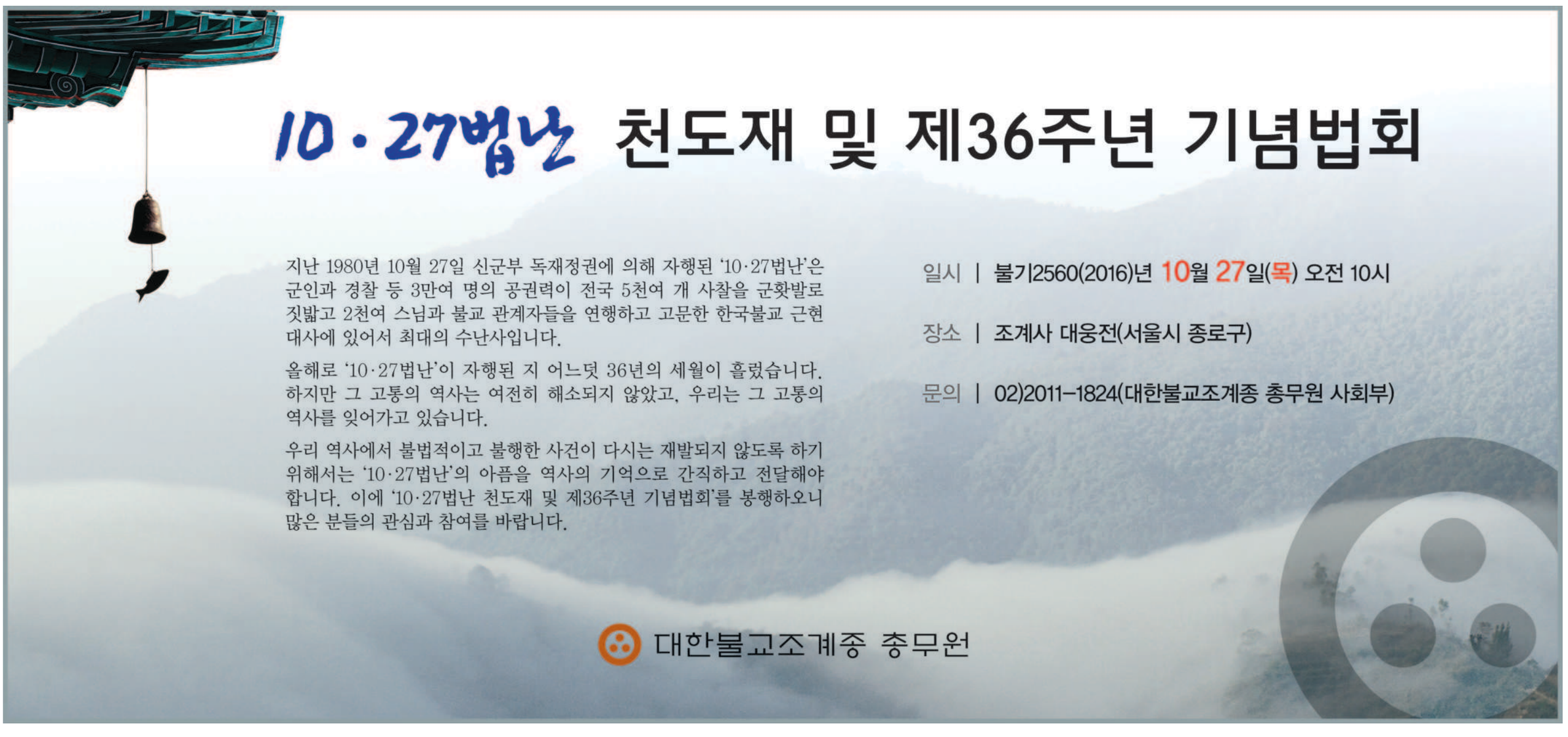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다불교 현상, 주체적 수용 고민해야 전통 중심으로 보완·개방 작업 필요”

명법 스님은 현재 내재된 두 현상들이 한국불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불교가 가진 공동체 정신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물려받은 전통유산과 불교공동체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부처님 정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구현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택 교수는 다불교를 넘어 한국불교가 ‘미래불교’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다. 조성택 교수의 ‘미래불교’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마땅히 도래했어야 하는 형태의 불교를 의미한다. 그는 “현재는 다불교로 가는 이행기다. 조계종이 자기 해석적 권위를 회복하고 다불교 현상을 포용해야 한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모습이란 일종의 새로운 변화인 후천개벽을 감당할 수 있고, 후천개벽을 불러올 수 있는 종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래불교는 일종의 선지자적 종교”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인설립 허가번호 제 2014-4호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42-0005848 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 장 월하 성철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법연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 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 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둥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승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 · 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천불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혜봉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총무원장 태일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안개 지공
천상의전상조극락정토원 대표 정관법사
한국불교천지조계종 총무원장 성진
범종단환경보호연합회 이사장 혜봉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회장 정관 일해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현도
전국교정,교화불교전법사단 법성 성주
대금강불교조계종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대승조계종 동연당 도우
향토불교승가연합회 조향
대한불교태선조계종 은산 덕호
대한불교천안종 회령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금봉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수송동)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절 낡아도 인재불사 먼저”…

그대는 자비보살

만오 스님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20대 초반 석남사에서 출가했다. 현재 부산 도원사 주지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35년 간 지역 소년소녀가장 돕는 것을 시작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금 후원 및 세계선센터 건립, 지구촌공생회 · 굿네이버스 · 엄홍길휴먼재단 기금 전달 등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4억6천만원.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사람을 통해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진 거금이다. 나눔의 주인공은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79). 자신이 생활하는 데는 최대한 청빈하려 노력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겐 가진 걸 아낌없이 퍼주는 수행자다.

나눔을 실천함에 있어 화두는 ‘인재불사’, 오직 그것만이 답이라는 만오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지난 9월 30일 부산 엄궁동에 위치한 도원사를 찾았다.

지구촌에 핀 희망의 씨앗

아프리카 케냐 남부 카지아도주에 희망이 일렁였다. 현지인들은 학교 울타리를 짓기 위해 주춧돌을 쌓았다. 그들이 찍은 사진에 보인 학교부지는 거친 황무지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눈빛은 반짝였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모았다고 한다. 학교를 짓기 위해 기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봉사하며 기쁨의 손길이 모인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희망’은 그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했다.

이들이 희망의 첫 삽을 뜨고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대상이 바로 만오 스님이었다. 스님의 나눔이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고, 그 희망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꿔놓았다. 학교 짓는 모습을 사진으로 본 만오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만오중고등학교’는 그렇게 탄생했다.

지난 9월 23일 만오 스님은 불교계 국제구호 NGO 지구촌공생회에 2억6천만원을 후원했고, 스님이 전달한 후원금은 아프리카 케냐에 새 삶을 안겨줬다. 이전까지 카지아도주에 만연한 가난은 현지인들에게 단순히 배고픔만을 안겨주진 않았다. 교육 기회도 박탈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조혼을 강요받으며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만오중고등학교는 먼 거리를 오가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숙사를 짓는다. 만오중고등학교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할 터전이 되고 있다.

만오 스님은 이보다 앞서 9월 21일 굿네이버스에도 2억원을 기탁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말라위 지역 환자와 산모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7월에는 엄홍길휴먼재단과 후원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에 14번째로 지어질 학교 건립에 동참한 것이다. 앞으로 스님은 학교가 착공되는 12월부터 완공 예정인 2018년 1월까지 3억5천만원을 매달 나눠 기부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 희망을 안겨준 만오 스님의 발자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부산 만오사를 찾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기자에게 스님은 손사래를 쳤다. 당연한 일이니 크게 할 말이 없다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눔은 마음으로 하는 것

도원사 법당을 마주했다. 20평 규모인 소담한 대웅전의 단청은 색이 바랬고 문지방은 낡았다. 법당 아래 요사채로 들어가자 무엇 하나 새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낡은 좌탁을 넓게 펴고 앉아 말을 아끼는 스님에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으로 어떻게 큰 기부를 할 수 있었는지 묻자 스님이 답했다.

사찰 개 · 보수, 증축 불사보다
환자 · 청소년 후원이 최우선
“시줏돈을 독사 대하듯 해야
천원 한 장의 값어치 안다”

“시줏돈을 전달한 거예요. 저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죠. 신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힘들게 모아 부처님 전에 정성을 올리는 거예요. 한 푼이라고 해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들이 낸 것을 모아 그들이 복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좋은 곳에 회향하려 하는 것이죠.”

만오 스님은 옆에 앉은 상좌 도원 스님에게 “시줏돈 보기를 독사 대하듯 두려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말을 이었다.

“요즘에는 스님들이 절에 들어와서도 호화스럽게 살려고 해요. 그런 삶을 꿈꾸며 출가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참 슬픈 일이죠. 출가 전에 편하게 살고 아끼지 않았던 그 습관대로 대접받고 지내려 하잖아요. 근데 신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시겠어요. 가족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요. 단돈 천원짜리 한 장도 천근만근이 되는 거죠. 정말 무거워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느껴야 합니다.”

만오 스님은 불자들이 낸 보시금을 자신을 위해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했다. 옆에서 스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던 상좌 도원 스님이 “병원에서라도 편히 계셨으면 좋겠는데…”라고 운을 떼자 만오 스님은 곧바로 “말이 많다”며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막았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만오 스님에게 부탁했다. 스님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며 극구 사양했다. 고집스럽게 거듭 매달리자 스님은 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만오 스님은 자신을 위해선 최대한 돈을 아끼고 있었다. 신장이 망가져 잦은 병원 입원에도 언제나 6명이 모여 복작거리는 다인실을 택했다. 행주 하나가 찢어지면 깨끗하게 빨아 꿰매 쓸 정도다. 요사채에 자리한 가구와 집기들은 대부분 주변 아파트에서 쓰다 버린 것을 모은 것이다. 신도들이 가져다주는 좋은 물건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다. 스님은 가끔 절에 일을 도와주러 오는 이들을 위해 물건을 꼭 챙겨두었다가 도와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은 필요 없다”며 건넸다.

만오 스님은 시줏돈을 전혀 안 쓴다고 했다. 그리고 나눔을 위해 철저히 모아 회향한다고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어린이재단, 동남아 지역 학생 30명 후원 등 매달 정기적으로 나눔에 사용되는 지출만 어림잡아 130만원이 넘었다. 그리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관음장학회를 설립하고, 부산 해동고와 구덕고등학교 등 곳곳의 학생들을 위한 후원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2억원을 전달했고, 비구니 학인스님들을 위한 수행관 사라림 시공에도 참여했다. 올해 5월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세계선센터 건립을 위해 6억원을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에 동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은 집을 지어주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동국대병원을 찾은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가 심장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모든 병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그를 살렸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에도 스님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후원하지 않는 것은 나눔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그릇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기독교에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후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본 연합회는 1988년 창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현재 197개 종단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입종단회원 입회를
환영하며 법인설립에 관한 일체의 행정지원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회장단 및 법인이사장 의 륜 사무총장 산 수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본 종단은 1994년 창종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을 인가받은 단체로서,
사암등록을 환영하며 특별 우대하고 업무에 관한 일체의 행정지원 등을 해드립니다.

종도 및 법인 이사장 의 륜 사무총장 산 수

본 산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2073-134 불탑사
사무처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연락처 : 본산 033)671-7751. 사무처 033)534-3956
사무총장 겸 총무원장 : 010-3300-0408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 홈페이지 http://kbta.cafe24.com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홈페이지 http://keunbon.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圓滿融通 人格完成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종 정 원정 성관

총무원장 배 진 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 팩스 02)857-5094

종교 넘나드는 자비의 수레꾼



만오 스님이 지구촌공생회에 후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케냐 현지인들이 만오중고교를 짓는 모습.



스님은 굿네이버스에도 2억 원을 전달했다.



엄홍길 휴먼재단과의 후원 약정 체결.

하는 것인데 왜 그리 구분하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만오 스님은 굿네이버스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아프리카 산모들이 건강한 아기를 낳으며 행복하길 서원했다.

"아기 낳을 곳이 없어 땅 위에서 낳는다고 합니다. 2차 감염으로 산모가 죽고 아기들도 목숨을 잃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병원을 짓지 못하고 의료장비조차 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데 어디에 돈을 써야겠습니까?"

스님은 매년 있는 절 행사에서 공양미와 보시금 등이 들어오면 크게 기부할 곳과 매달 지출할 기부금을 나눠 통장에 입금한다고 했다. 행사가 없을 때 어려워질 절 형편을 생각하고, 기부처에 후원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인재 불사가 참된 불사

만오 스님 나눔의 중심에는 오직 '사람'이 있었다. 낡은 대웅전을 보며 "단청불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에 스님은 인재불사가 먼저라고 했다.

"대웅전 문지방이 너무 낡았죠? 하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술 넣어주고, 공부하고자 하는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청이 낡고 문지방에 문제가 있어도 지금 우리는 밥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불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스님은 현재 자신이 교육불사에 뜻을 갖게 된 근원을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찾았다. 대한민국 독립 후 아주 가난했던 그 당시에도 스님의 어머니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굶더라도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교육을 강조하신 어머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당시 학교도 못 가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까지 편하게 다녔어요. 공부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 덕분이었죠."

어머니 가르침 때문이었는지 만오 스님은 출가 후에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전 제주도에 몇 년 있었는데 그때는 고아원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고아원이 있어도 정부 지원이 없어 열악했죠. 고아원에서 지내는 것보다 절에서 돌보는 게 낫겠다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스님이 키운 여아만 5명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키웠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학교 진학에 이어 호주로 유학까지 보냈다.

"제주도에서 두 명을 먼저 만났고 이곳에 와서 또 세 명을 만났죠. 부모가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이,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몸에 진물이 나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지능이 부족해 16살이 되도록 머리조차 스스로 못 감는 아이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성장해 독립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생을 마감해 지금도 제 마음에는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구촌공생회 · 굿네이버스 등
9월에만 4억6천만원 후원
35년 어려운 이웃 돌보며
지역 복밭 일구는 데 앞장

열악한 지역은 복 밭

만오 스님이 부산 엄궁동에 온 것은 1981년쯤이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스님은 요양 차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머물렀고 스님들이 전해주던 여러 경전내용과 새벽 염불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부처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염불 소리가 정말 아름답고 스님들이 건네준 경전으로 만나는 부처님 말씀은 감동적이었죠."

그 후 고등학교 졸업 후 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저는 풍족했어요.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출가 후 부산 엄궁동 산속에 절을 짓고 보니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비참하더군요. 그때 산 아래 600세대 정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지금의 동래와 대연동까지 매일 10㎞를 걸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였죠. 마실 물도 먹을거리도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눔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님은 당시 어려웠던 부산 엄궁 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어려운 이들이 많은 이곳이 자신에게는 '복밭'이었다고.

"새벽에 도량석을 돌 때였어요. 과거 생으로 이번 생은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 다음 생을 위해 어떤 복을 지었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깨달음은 인과법을 통해 철저히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스님은 나눔을 실천했다. 지역 통장을 불러 모아 마을에 어려움을 겪는 집이 어디인지 묻고,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나눔은 35년이란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만오 스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다.

"정말 순수하게 나눔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요? 알고 있는 데 없어요? 취재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직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부산=하성미 기자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⑧

사띠의 힘은 명상의 일상성

지금까지 네 가지 대상에 대해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을 명상의 내용으로 하는 사념처(四念處)를 살펴보았다. 사념처라는 체계 안에서의 '사띠(念)'는 '대념처경-청정도론'의 설명을 지침으로 삼아 '주의집중/알아차림'을 발휘하고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발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과 실천의 체계는 현재의 남방불교에서도 확고한 지침으로 견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교 밖에서도 스트레스 완화 등 갖가지 치유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불교명상의 사띠를 '주의집중/알아차림'으로 해석하여 확립한 하나의 의미 있는 사용설명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관련 서적에서 보듯이 사념처를 '유일한 길' '부처님이 직접 수행한 최고의 명상법' 등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태도에만 빠져 있으면 마치 불교의 내용이 사념처의 체계 안에 모조리 갖추어져 있다는 시선에 제한되기 쉽다.

〈상윳따니까야〉 제77의 10이나 〈잡아함〉 제615 '비구니경' 등의 서술에 보이듯이, 사념처는 선정(禪定)의 방법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상호보완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아함〉 제98 '염처경(念處經)'을 살펴보면, '몸에 대해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身念處)을 닦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명상법인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선정'(四禪定)의 제1~3단계의 정형적인 서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념처' 수행을 통해 '사선정'의 제3단계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념처와 사선정의 밀접한 결합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맛지마니까야〉 제125 '단타부미' 경에서도 "사념처를 닦아 사선을 수행하고, 번뇌를 모두 없애버린 능력을 성취하여 마침내 괴로움/괴로움의 발생과 소멸/그 소멸에 이르는 길과 번뇌[漏]/번뇌의 발생과 소멸/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된다(如實知見)"는 서술구조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교 명상법은 결코 단일한 하나의 해석체계나 실천의 방법으로 단순화 할 수 없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통적인 해석체계나 방법론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 있음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사띠라는 하나의 엔진은 사선(四禪), 삼매(三昧) 등의 또 다른 명상 영역과 맞물려 있는데, 이 경우 사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띠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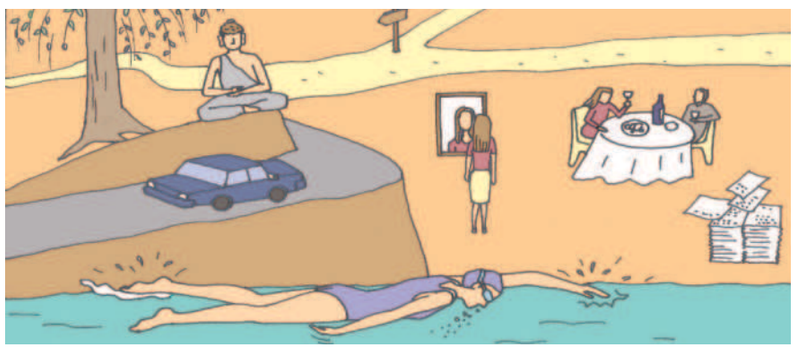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이 땅에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내장된 반성적 사유의 존재이다. 니까야의 운문계열 경전들과 후대 논서들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사띠의 '성찰' 기능은 갖가지 명상의 진행과정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사띠는 가만히 앉아서 몸/느낌/마음상태/사유 대상 등에 '주의집중/알아차림'만을 반복함으로써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를 통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사띠에 명상을 일상의 영역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잊지 않기/주의력의 발휘와 지속'이라는 의미에 내재된 힘이다.

하루 종일 '주의집중/알아차림'의 무한반복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중간 중간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 바로 거기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짧지만 강렬하게 사띠의 힘을 운용할 수 있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호경
중앙종회의원 서봉. 삼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원장 보단
중앙교육원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앙법사단장 무진 법사단부단장 혜등 법사단총무 혜련
비구니회회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붓다선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힐링명상!

붓다선은 깨달음의 경에 실존하는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행운의 행동명상입니다.

"수행자여 귀를 기울여라. 나는 감로의 경지를 성취했다.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삶이 변화되는
최상의 행복에 도달한다"(붓다)

세계승가회 붓다선 센터 (www.worldsangha.org)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태평동) 2층 (070-7717-2276)

기신론을 전한 역경보살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범어 원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신론은 두 가지 번역본이 있다. 하나는 진제(眞諦: Paramartha, 499~569)의 역본이고, 다른 하나는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 652~710)의 역본이다. 이 가운데 진제 역을 구역(舊譯), 실차난타의 역을 신역(新譯)이라 하지만 아직도 진제의 역본이 많이 유통되어 있다.

진제는 서인도 우선니국 바라문 출신으로 양무제가 사신을 부남(扶南: 현재 캄보디아에 세워졌던 고대왕국)에 보내 고승과 경전을 모셔오고자 했을 때 무제의 청에 의하여 546년에 중국에 들어왔다. 많은 경론을 가지고 처음 해남에 도착했다가 광주를 거쳐 548년 양(梁)의 수도였던 건강(建康)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역경에 종사하려 했으나 때마침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후경(侯景)의 난이 일어나 무제가 유폐되고, 후경이 왕권을 잡았다가 후경마저 살해되는 난리의 소용돌이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를 초청한 무제가 사망하자 그는 후원자를 잃고 각지를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유랑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경론을 번역한다.

기신론과 무착의 〈섭대승론(攝大乘論)〉도 이때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번역된 것들이다. 그는 한때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76부 315권의 경론을 번역하여 역경의 공로자가 되었으며 구마라습, 현장, 불공(不空)과 더불어 중국 역경사상 4대 역경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후진(後秦) 요흥(姚興)이 세워준 번역도량에서 수많은 불교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번역에 종사했던 구마라습이나 당(唐) 조정의 지원을 받으며 대자은사에게 많은 물자의 공급을 받으며 번역에 종사했던 현장과는 너무나 다른 진제의 역경 환경은 비참했었다. 그는 곤궁에 시달리자 다시 인도로 돌아가려 했으나 실패하여 죽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임시 숙소에서 번역 작업을 계속하였다. 때로는 강경 · 강론에도 힘썼다. 그는 주로 인도 유식학파의 무착이나 세친의 논서들을 번역해 중국에 유식사상을 소개하였다. 그가 죽은 후 섭론종이 성립되면서 그를 개조(開祖)로 모시었다. 중국불교의 13종 가운데 섭론종의 개조(開祖)가 된 것이다. 기신론 외에도 그가 번역한 대표적인 논서는 〈섭대승론〉, 〈섭대승론석〉, 〈구사석론〉, 〈중변분별론〉, 〈전식론〉, 〈십칠지론〉 등이 있다.

진제 · 실차난타, 두 번역본 존재
두 역경가 동아시아에 큰 영향

신역 기신론의 역자 실차난타는 총령의 북쪽에 위치한 우전국 출신이다. 학희(學喜)로 번역되는 그는 대 · 소승에 통달함은 물론이고 박학다식하여 외전에도 밝았다 한다.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우전국에 〈화엄경〉의 범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범본과 번역할 사람을 모셔오도록 하였다. 이에 당나라 증성(證聖) 원년(695)에 화엄경 범본을 가지고 낙양에 온 삼장(三藏)이 바로 실차난타였다. 그는 대편공사(大遍空寺)에서 남인도 출신 보리유지(菩提流志: Bodhiruci)와 의정(義淨) 등과 함께 화엄경 번역을 시작하였다. 이때 측천무후가 직접 역장(譯場)에 찾아왔으며 서문을 짓기도 하였다. 중간에 절을 옮겨 완성은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하였다. 복례(復禮), 법장(法藏) 등의 도움으로 성력(聖歷) 2년(699)에 번역을 완성했다. 이것이 80화엄이다. 이때부터 80화엄이 유통되면서 중국에서 화엄경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실차난타가 번역한 경전은 80화엄이 가장 공들인 것이었으나 그 외에도 기신론, 능가경(대승입능가경 7권), 문수수기경 등 19부를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차난타에 관한 기록은 개원석교록과 송고승전에 전해진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노모를 만나기 위하여 704년에 우전국으로 돌아갔다가 중종의 청으로 708년에 다시 장안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710년 10월에 59세의 나이로 입적을 하였다. 화장을 했을 때 혀가 타지 않고 남았다 한다.

재물 많아도 마음이 없다면 베풀겠는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⑩보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無信心者誰信是語。設有美食有飢者在前不能施與。是人食 不能施與。況勝解脫能施與人。設令多有財物有來乞者。 無施心。況施少物。不見是人於生死中有少樂處。適可住於涅槃。若人於大水邊不能以少水施與。生死之中苦惱無量。汝莫在中住。適可速入般涅槃。如有大水欲施人不以為難。如有悲心欲取涅槃亦不為難。世間糞土易得於水。 貪之人聞乞糞土猶懷慳惜。況復財物。(무신심자수신시어。설유미식유기자재전불능시여。시인식상불능시여。황승해탈능시여인。설령다유재물유래걸자。상무시심。황시소물。불견시인어생사중유소락처。적가주어열반。약인어대수변불능이소수시여。생사지중고뇌무량。여막재중주。적가속입반열반。여유대수욕시인불이위난。여유비심욕취열반역불위난。세간분토이득어수。간탐지인문걸분토유회인석。황부재물。)

번역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만, 설령 맛난 음식이 있고 목전에 주린 이가 있어도 보시할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이 음식을 늘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수승한 해탈을 남에게 베풀어줄 수 있겠는지요. 설령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구걸하는 이가 왔을 때 오히려 베풀 마음이 없다면, 설령 적은 재물인들 베풀까요. 이런 사람은 생사 가운데 조금이라도 즐거운 곳이나 열반에 나아가 머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큰 물가에서 적은 물도 베풀어줄 수 없다면, 생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속히 나아가 반열반에 들어야 합니다. 큰 물가에 있으면서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자비심이 있으면 열반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흙도 물가에서는 얻기 쉽거늘 인색하고 탐욕스런 사람은 더러운 흙을 구걸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속으로 아까워하거늘, 하물며 재물이겠습니까.

해설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또 그 정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도 말하기를 "젊은이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젊은이들이 게을러진다"고 했다. 더 나아가 "가난해야 열심히 일한다", "가난해야 애를 많이 낳는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근래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군비에 사용될지 모른다며, 인도적 구호조차 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서 무엇을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일까. 남에게 베풀면 내 남은 것도 뺏어 가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허투루 소비할지언정, 국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복지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이다.

이런 현상 앞에서 불법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세상은 어쩌면 불법의 이상적 세계관과 이렇게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보살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 보살행마저 부인한다면 세상이 정말 서글퍼지니까. 본문에서의 반열반(般涅槃)은 '완전한 깨달음'을 뜻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面上無瞋 供養具)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口裏無瞋 吐妙香)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心裏無瞋 是眞ᄀᆞᆫ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無染無垢 是眞如)"

어떤 분이 번역했는지는 모를 일이나 원문의 뜻은 살리되 부드럽고 아름답게 한글로 옮기신 그 법력(法力)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유명한 게송은 '문수동자게(文殊童子偈)'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게송을 전한 무착 스님의 수행력이 담겨있는 '무착게(無着偈)'이기도 한 것이다.

무착 스님이 문수동자를 만난 이야기는 〈송고승전〉20권에 담겨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무착은 당나라 때 스님이다. 그의 스승은 화엄학의 제4조인 징관스님이다. 스승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우고 익혀 화엄사상에 통달하게 된다.

그 무렵 들려오는 소문에 오대산의 북대와 동대사이에 루관곡이라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에는 금강굴이 있는데 가끔씩 문수보살이 화현(化現)한다는 것이었다. 무착은 문수보살 친견을 위해 루관곡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금강굴은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무착 앞에 나타나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스님은 이곳 계곡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금강굴을 찾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착의 대답을 듣고 노인은 안내하겠다며 손짓으로 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황금빛 아름다운 사찰이 나타나 있었다. 사찰에 이르자 한 동자가 사찰의 문을 열어준다.

법당과 탑이 황금으로 장엄된 황금사찰이었다. 유리잔에 담긴 차(茶)까지 대접 받은 후 무착은 슬그머니 하룻밤 묵고 갈 뜻을 비친다. 그러나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게송을 들려주는데 그 뜻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칠보(七寶)로 만든 건물이나 탑은 언젠가는 무너져 티끌이 되지만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깨달음에 이르면 이는 천년만년의 보배가 된다'는 무착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사찰의 문 밖으로 나오며 무착이 동자에게 절 이름을 묻자 '반야사'라고 짧게 답한 뒤 동자가 게송을 읊는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로 시작되는 게송이었다. 게송을 듣고 무착이 합장으로 고개 숙여 동자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고개를 들자 동자도 반야사도 사라지고 절벽을 이룬 바위산 뿐이었다. 그때 허공으로 문수보살이 사자(獅子)를 타고 사라지고 있었다.

그 후 무착은 더욱 간절심으로 수행에 몰입하게 된다. 무착이 하루는 동지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타고 문수보살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무착 스님은 문수보살을 향해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갈기며 사자후를 내뱉었다.

"문수는 네 문수지 내 무착이 될 수 없다. 무착이 그대로가 무착이거늘 문수따위는 필요없다."

이쯤은 되어야 장부(丈夫)중의 장부인 조어장부(調御丈夫)라 할 터이다. 이전의 무착은 화엄학의 제4조인 징관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워 스스로 화엄학의 통달자라 자처했으나 이론과 원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만으로는 진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소문을 듣고 오대산에 오르는 모습은 타력신앙(他力信仰)의 목마름이었기 때문이다.

황금사원과 유리찻잔에 마음을 두어 하룻밤 머물기를 희망하는 배고픔이 남아 있었다. 문수보살이 곁에 있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 챙김에 소홀했던 것이다. 사자를 타고 구름사이로 사라지는 문수보살을 지켜보며 업덩이 중생임을 자각하는, 후회로 남는 무착이었다.

그 후 무착은 간절심으로 마음을 모아 정진을 거듭해 참사람(眞人)이 된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무착 스님은 뜻을 이룬 후 일상(日常)으로 되돌아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 팥죽을 끓이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생활시도(生活是道)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팥죽의 김을 타고 문수보살이 나타났으나 무착 스님은 서슴없이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는 조어장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원하고 개운한 교훈적인 설화이다.

선지식은 좋은 스승이자 착한 벗
수행정진 통해 '조어장부'로 나가야

법인설립허가번호 : 제2012-43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특허청 업무표장특허등록 제 42-0005657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 정 경담 장각성
총무원장 장운 운산

사회복지 의료재단 전국지부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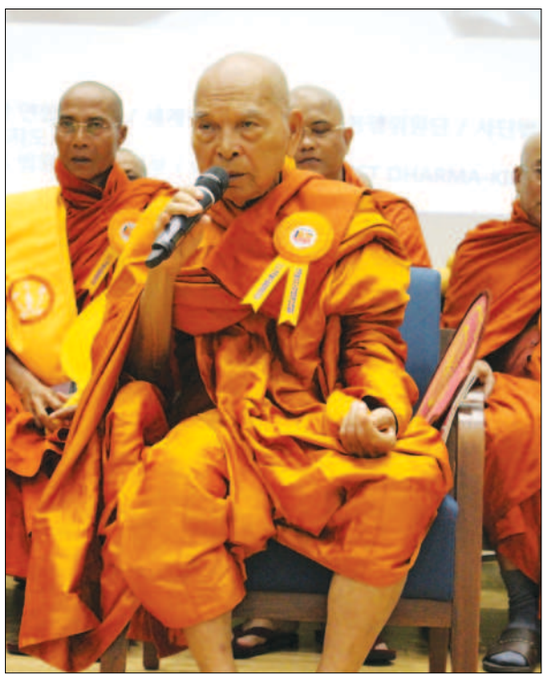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JOGYE ORDER KOREA BUDDHISM &CORPORATION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20-8270 FAX 02)720-8271 http://jogyejong.or.kr / E-mail:jonggyo119@hanmail.net

世界佛教 法王廳 中央政府

국민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봉행

10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800여 대중 동참 성황리에 열려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10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각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세계불교법왕청 법왕) 종정스님을 비롯하여 3일 양국 불교교류를 위해 방한한 미얀마 최고 고승 16분을 모시고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 대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한국 미얀마 우호적 불교 교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온 Dr 킨쉐이(미얀마 정부 경제특보. 미얀마 불교수호협회)회장이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법왕이신 Dr 우 꾸마라 스님과 예인 다빠라 삼장법사스님, Dr 바라 사야도, 짜익티오성 사야도 등 16분의 미얀마 고승과 대승정 목탁스님, 태종사 도성스님, 미얀마 불교수호협회 회장 Dr 킨쉐이,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황우석 박사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하여 대법회를 함께했다. 대법회 행사에 앞서 세계평화에 대한 노력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여 Dr 우 꾸마라 법왕님과 Dr 킨쉐이에 대한 세한대학교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과 미얀마 불교수호협회에서 양국 불교교류에 노고를 인정하는 훈장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BTN불교TV 육법공양단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금강계단 대법회는 법왕 Dr 우 꾸마라 스님의 축원으로 시작되어 건당 품수를 받은 성각스님 외 127명의 스님들에게 일일이 부채와 계첩을 전달하고 보살계를 수지한 708명 불자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과 정갑윤 전국회부의장은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뜻깊은 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각 정당 대표 등 주요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바쁜 일정으로 축전과 화한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BBS불교방송 합창단과 국제붓다봉사단 등 대법회를 위해 노력한 분들께도 미얀마불교수호협회의 기념 뱃지와 선물이 전달 되었으며 품수 건당의식을 마치고 행사 봉행위원단 관리본부장 성각스님의 세계평화 자비방생 발원문 낭독을 끝으로 대법회를 성료 했다.

> 세계불교도의 법왕 Dr 우 꾸마라
>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 건당 품수 성각스님 외 127명,
> 보살계 708명 수계
>
> Dr 우 꾸마라 법왕,
> Dr 킨쉐이
> 세한대학교 박사학위 수여
>
> 양국 불교교류 및
> 불교발전 공로자
>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훈장 수여

3일 방한한 Dr 우 꾸마라 법왕 일행은 금강계단 대법회 일정 외에 양국 우호 교류를 위해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수덕사 방문, 미얀마타운 명명식 참석, 세한대학교 방문, 한국 고궁 및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의 양국 불교문화 및 우호교류를 위한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회장 목탁)가 2009년 세계불교도를 하나로 모아내겠다는 목표로 추진하여, 2013년 (사)세계불교법왕청을 정식 등록하고 2015년 6월 2일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인 Dr 우 꾸마라 스님을 법왕의 자리에 추대하고 2015년 11월 1일 각료 임명장을 수여받아 정식 조직을 갖추고 그 후속 일정으로 한국불교지도자들을 위한 합동 금강계단 대법회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의 중심 추진력인 한국 불교도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 Dr 우 꾸마라 스님을 비롯한 미얀마 최고 고승 16분이 방한하여 행사를 진행한 뜻 깊은 대법회의 자리였다.







Dr 우 꾸마라
법왕님의 법어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불교 지도자와 국회 대표의원 여러분! 오늘의 만남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불교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준비한 한국본부 불교지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과 흑백 갈등조차 초월한 성스러운 행동으로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온 목탁스님을 비롯한 세계불교법왕청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경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유와 합심과 지극한 신심이 있는 소박한 심성을 소유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면서 내일의 기쁨을 위해 하루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건당 및 품수 의식을 환영합니다. 세계불교가 하나로 통일되고 세계인들의 번영과 우애 깊은 신뢰와 협조가 교류되는 계기가 더욱 확대되고 증진된다면 부처님의 서원이 담긴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승정 목탁 스님
경과보고 및 인사말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겸 법왕 비서실장

오늘 이 자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참된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다짐과 전 세계 불교도들이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자리입니다. 세계불교도의 기둥이신 우 꾸마라 사야도를 모신 성스런 자리입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법왕을 모시고자 하는 출범식을 봉행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세계불교도의 최고의 어른이신 불교도들의 법왕 우 꾸마라 성스런 존자님, 미얀마의 큰스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자 닥터 킨쉐이를 모셨습니다. 더욱 더 정진하라는 채칙으로 품수를 주시고 미흡한 불제자들을 가슴으로 안아 법맥을 잇는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넘어 중생고통을 나누는 인간방생, 중생구제, 중생정화, 정신개혁,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기원하며 이 행사의 증명법사가 되어주신 한국의 불교지도자 분들께도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Dr 킨쉐이
인사말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회장 Chairman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존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함을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목탁스님이십니다. 스님과 저는 십수년 간 알고 지냈습니다. 목탁스님은 양국의 우호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미얀마 극빈 청소년들을 위해 기술대학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이나 한국에서 10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건립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양국 연예인 교류 공연을 하시는 모습이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를 보시의 화신이라 하신 것은 과분하고 또 과분한 호칭입니다.

이번 방문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세한대학교에서 주신 소중한 학위는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한국 스님들께 머리숙여 삼배의 예를 올리며 인류의 복지와 평화, 세계의 발전가 세계인의 화합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불교지도자 합동 금강계단

전계대화상 : 우 꾸마라 사야도
교수 아사리 : 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 바라 사야도
갈마 아사리 : Dr 목탁 대승정. 짜익티오성 사야도

건당 품수 성각스님 외 127명, 보살계 708명 수계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각계의 추천을 통해 Dr 우 꾸마라 법왕님과 Dr 킨쉐이 의장은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Dr 킨쉐이 의장은 미얀마불교수호협회를 대표하여 양국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주호영 정각회장에게 미얀마불교수호협회의 감사 훈장을 수여했다.





그 절집의 빛

⑳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불교 우주관으로 장엄한 우주법계

법신-보신-화신은 삼위일체불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三身佛)의 세계관은 대승불교시대의 산물이다. 선종의 십불명(十佛名)에서 밝힌 삼신설에 따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로 연화장세계의 우주법계를 구현했다. 법신(法身)은 우주만유의 근본원리이고, 보신(報身)은 근본기운이 생명력에 미치는 시방삼세의 보편적인 양상, 화신(化身)은 특정한 시공간에 중생구제를 위해 역사적으로 나투신 불신이다. 만유의 실상은 연기법에 의한 삼신불의 세계관으로 화엄의 연화장세계를 이룬다. 삼신불은 중생에 대한 자비력으로 하나의 몸이고, 일체 중생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 곧 여래장으로 법신과 일체가 된다. 그것이 화엄경 법성게에서 말하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의 화엄세계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삼신불의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불교장엄의 근본적인 바탕이자 원형질이 될 수 밖에 없다. 불상조형에서, 혹은 후불탱, 괘불탱 등의 불화에서 한 공간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특정 전각에 따로 독립해서 봉안하는 차이를 가질 뿐이다. 삼신불은 삼위일체불이니 한 분만으로도 세 분 모두를 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보신불과 화신의 다양한 변화신이다. 법신은 광명편조의 진리(=법) 그 자체로서 진리의 인격화다. 보신은 십바라밀 수행과 대원의 실천으로 이상화 된, 완전하고도 원만한 부처님의 몸이다. 대원과 실천적 수행에 따라 다양한 몸으로 나투신다. 48대원의 아미타부처님과 12대원의 약사여래가 대표적인 보신불이다. 보신불은 진리의 자내증으로 삼매에 계신 자수용신(自受用身)과 중생구제와 교화의 대원을 실천하는 타력신앙의 타수용신(他受用身)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노사나불이 자수용신이라면,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는 타수용신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신불에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통일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석가모니불은 무상정등각을 증득해서 법신 비로자나불과 일체가 된 까닭에 노사나불 대신 석가모니불을 모셔, 아미타여래, 약사여래와 함께 조선시대 삼불(三佛) 도상의 전형으로 발전해나갔다. 법신-보신-화신의 삼신불 구도가 수직적, 심층적이라면, 아미타여래-석가모니불-약사여래의 삼불 구도는 수평적이며 분화적인 개념에 가깝다. 삼신불과 삼불을 한 화면에 모시면 석가모니불은 중첩적으로 표현되어 오불회도의 개념이 성립한다. 거기에다 대자대비의 화신인 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과 성문의 수행자들, 수호신중들, 여래장을 지닌 일체중생을 한 화면에 구성하면 삼천대천의 불국토이자 통불교 형식의 거대한 법계우주로 현현한다.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1628년)이 그 희유의 불국토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법형비구 한 사람이 그린 불화

현존하는 오불회 괘불탱은 세 점으로 알려진다. 일본 주린지(十輪寺) 소장 오불회도(조선전기),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영주 부석사 오불회괘불탱(1745년) 등의 셋이다.

괘불탱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독창적인 대형불화이다. 현존하는 90여점의 괘불탱 대부분이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잇따른 전쟁과 살육의 시대상황의 종교적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의 피해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 수륙재 등 야외 의식불교가 성행하고, 그에 따라 대형 괘불탱 조성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신앙형태와 불보살의 세계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건축과 불화는 하나의 중심 불전, 하나의 화폭에 봉안하는 통합적인 양식으로 빈번히 전개했다. 오불회괘불탱은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종교회화의 부응으로 대두 되었다. 괘불탱에는 망자에 대한 천도의식과 극락정토 왕생발원, 현세구복의 마음작용이 담긴, 한 시대상황의 깊은 고민이 투영되어 있다.

> 현존하는 오불회괘불탱은 3점뿐
> 보신 노사나불은 보관 쓴 보살형
> 중생-보살-부처의 수직상승 구도
> 평민 시주로 왕실발원 화풍 계승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삼베에 채색. 불교우주관을 바탕으로 상,중,하 삼단 구도로 법계우주를 표현했다.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은 정묘호란(1627) 1년 후에 화원 법형(法泂)비구 한 사람이 두 달에 걸쳐 그린 불화다. 세로 656cm, 가로 404cm 크기의 삼베 위에 채색한 괘불이다. 화면의 구도는 오색 구름을 이용해서 상, 중, 하 삼단으로 나눠 조성했다. 화면의 2/3를 차지하는 상단은 오불의 부처님 세계다. 일본 주린지 소장본과 부석사 오불회괘불이 수직과 수평의 구도를 취하는데 반해 칠장사 괘불은 두 행의 수평구도를 경영하고 있다. 상단의 윗줄은 화신 석가모니불-법신 비로자나불-보신 노사나불의 삼신불을 배치하고, 아랫줄에는 아미타여래-약사여래를 모셨다.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는 각각 대세지보살-관세음보살, 일광보살-월광보살을 좌우 협시보살로 배치해서 삼존불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불전 건물로 비유하자면 삼신불의 대적광전과 아미타여래-석가모니불-약사여래의 삼불을 모신 대웅보전을 한 곳에 경영한 것과 다름없다. 각 부처님의 세계는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이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은 그리스도교의 성령, 성부, 성자의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삼신즉일신관(三身卽一身觀)으로 하나의 몸인 까닭이다. 상단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보신 노사나불의 장엄이다. 설법인의 수인을 취한 노사나불은 부처의 위계임에도 보관을 쓴 보살의 형태로 화려하게 장엄했다. 수덕사나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여래를 보살로 표현한 이유가 의문으로 남는다.

세상의 중심 수미산과 도솔천궁 표현

중단은 보살의 세계를 펼쳐 놓았다. 지장보살-미륵보살-관세음보살의 구도로 각각 독립된 병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보살이면서 부처이신 미륵보살의 경우 존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솔천궁의 건축 상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기(畵記)에서 괘불탱의 도상적 성격을 미륵하생도의 '용화회'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의외가 아닐 수 없다. 도솔천궁의 바로 위 보살 한 분이 미륵보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용이 휘감아 신성하게 수호하고 있는 수미산 정상 도솔천의 표현은 대단히 희귀하고 독창적이어서 주목을 끈다.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장면은 그 자체가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수월관음도, 지장탱에 가깝다. 하나의 화폭에 대적광전의 삼신불후불탱, 대웅전의 삼존불후불탱, 원통전의 수월관음도, 명부전의 지장보살탱화를 담고 있는 불보살의 만다라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맨 아래 하단은 2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육도중생계다. 면류관을 쓴 왕과 왕비를 비롯해서 고관, 평민, 아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거나 공양물을 올리는 모습이다. 왕과 왕비의 모습은 최상단의 오색광명의 서기가 뻗치는 공간에서도 등장한다. 왕실발원의 괘불제작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가 칠장사를 영창대군의 원혼을 달래는 원찰로 삼은 점도 왕실발원을 뒷받침 한다. 그런데 화기의 시주질 명단에는 평민층 부부들의 시주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정 짓기 어렵다. 화기에는 평민 서른 한 가정, 혹은 개인 명단이 등장한다. 고려시대 시주자의 중심이 왕족과 귀족 중심이라면,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시주의 중심이 평민층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감안 대상이다. 그럼에도 금니로 쓴 화기 등을 고려할 때 왕실발원의 화풍이 계승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용이 휘감고 있는 세상의 중심 수미산과 도솔천궁 세부.



원만보신 노사나불. 부처의 위계임에도 보살로 표현했다.

화기에 13가지 색채안료 목록

화기에 나타나는 시주의 내용도 특별하다. 삼베 포를 비롯해서 공양, 황금, 장식품인 둥근 거울(원경) 등속이 목록에 올라 있다. 시주목록에서 가장 특별한 대목은 13가지 색채안료와 아교다. 안료는 주홍, 대청, 중청, 수토황, 당하엽, 연지, 진분, 삼록, 황단 등으로 다양하다. 여러 괘불탱 화기의 시주질 안료 목록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등장하는 사례다. 그 목록은 전통색채를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안료에 점성을 부여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의 시주도 눈길을 끈다. 시주로 올린 아교는 쇠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고기 부레로 만든 어교(魚膠)다. 이 세세한 시주목록은 당시 시대상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한 시대의 거울상이기도 하다.

화기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當來龍華會中隨喜等盡同受記者也(미래의 용화회에 함께 기뻐하면서 모두 수기를 받을 것이다.)" 오불회괘불탱은 그 화기의 발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사론〉에서 정립한 불교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다. 용화회의 미륵보살 대신 수미산 정상의 도솔천궁을 그려 넣은 뜻도 그제서야 풀린다.

전체적으로는 지상 중생계의 욕계, 보살의 색계, 부처의 무색계로 이어지는 수직구도로 화엄의 우주법계를 짜임새와 공간감 있게 거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 불.법.승 ※

(宗)대한불교삼보종

초대종정 멸공 대종사
법 주 정각 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대선사 부종정 회천 대선사
총무원장 법장

전 종단간부 및 사부대중 전 종도 일동

인사말씀

여래의 지혜와 혜명을 받들어, 본종 창종25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회향하게 되어 지면을 통해 삼배로 감사의 뜻을 올리며 일일이 찾아 뵈옵고 인사 올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넓으신 아량으로 섭수하여 주시며 각 사원에 여래의 가피력이 충만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2층) / 전화 055)338-0089. 080-333-9009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총재 무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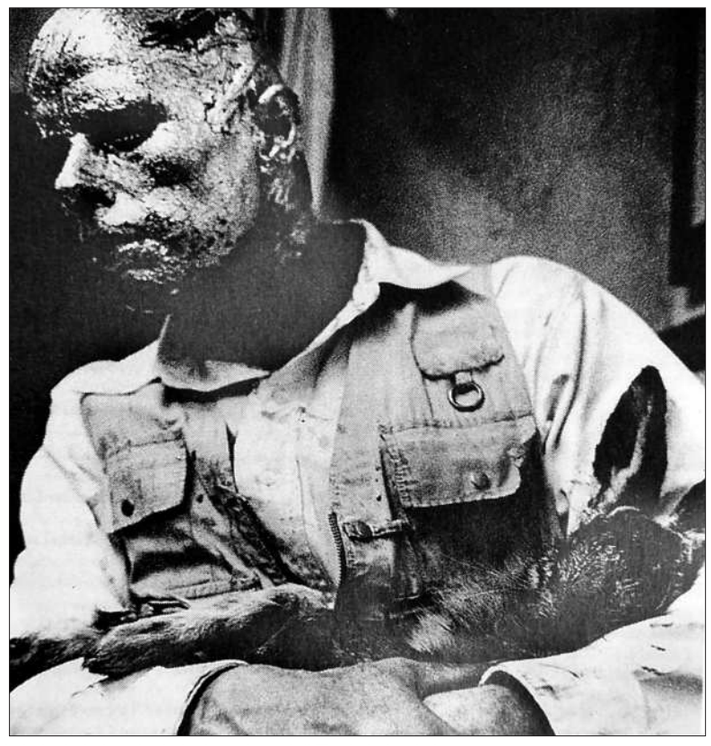
회원 일동

■ 주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화 : 055)855-1772

예술과 현실은 不二… "우리 모두가 예술가"

禪과 현대미술
⑲ 요셉 보이스
(Joseph Beuys)





요셉 보이스의 작품 '피아노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1966, 사진 왼쪽)'과 '죽은 토끼에게 작품을 누가 설명할 것인가(1965, 사진 오른쪽).' 표현 방법과 기법에 구속되지 않는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많은 청중이 모인 강당에서 한 예술가가 예술에 대하여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사회, 정치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그의 이러한 강연은 전 세계를 돌며 진행됐다.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독일)는 예술과 예술가, 사회, 정치, 철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천재예술가였다.

젊은 시절 삶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보이스는 2차 대전에 참전하며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된다. 비행기 부조종사로 소련군과 싸우던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며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자신의 예술의 토대가 되며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여 많은 책을 탐독하게 되는데 철학, 신화, 역사, 미학, 정치, 사회학 등 다양한 방면의 책들을 통하여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아간다. 특히 그가 20대에 처음으로 책을 통하여 접한 불교와 선사상은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존 케이지의 사상과 작품에 많은 감동을 받은 그는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깊은 사유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예술은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역설하며 예술의 확장성을 찾아 그 길을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대학교수로 있는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자신은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학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여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일반적인 경우 한명의 교수는 최대한 20~25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이스의 클래스(독일은 교수제로 교수반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 교수에게 교육을 받는다. 주전공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타 미학, 미술사, 철학 등은 다른 교수에게 수학함)에는 한때 5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시도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 일로 학교당국에 의하여 그는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보이스가 물러난(쫓겨난) 그 자리에 故백남준씨가 교수로 임명되었다. 백남준은 보이스와 막역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물러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백남준은 보이스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보이스는 웃으면서 "그 자리는 너(백남준)를 위하여 내가 그만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하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백남준은 회상하기도 했다. 실제, 백남준이 독일에 정착하고 활동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요셉 보이스이며 백남준은 평생 그를 형님으로 모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보이스가 말하는 예술은 무엇이었을까?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의 선언은 당시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마치 마조도일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예술적으로 풀어 놓은 듯한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필자가 미술대학에 재학하던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예술가가 보이스였다. 당시 그의 작품을 사진에서 보고 예술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Wie man dem toten Hasen die Bilder erklaert(1965, 죽은 토끼에게 작품을 누가 설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행위예술의 한 장면 사진이다. 어떻게 죽은 토끼에게 작품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진으로 인하여 필자는 보이스의 정신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치 선사들의 화두를 대하는 것 같았다. 필자가 선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작품이다. 화두는 살아 있다. 살아 있는 것은 화두를 들고 참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토끼에게 그 어떠한 가치나 존재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를 세계적인 예술가로 만들었다.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상통한다.

즉, 그는 이 행위를 통하여 기존의 예술이나 가치들이 죽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 예술가는 사회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여주어야 한다. 예술의 가치와 영역을 확장시킨 보이스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사회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하는 강연은 주로 사회현상, 정치, 예술 철학 등이었으며 특히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가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 교수로 있던 당시 그는 많은 정치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축적하여 학생정당을 만들어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 문화 예술정책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에 녹색정당으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대 처음 불교·禪 접하고 감동
깊은 사유 가지며 작품에 투영
사회 참여 등 예술 확장성 주장
불자 故 백남준과 막역한 사이
무엇도 구속되지 않는 게 '예술'

예술은 사회현상의 일부분이며 일부를 위한 예술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지향하였다. 그에게 예술은 철학이며 행위이다. 다시 말해 철학적 사고가 예술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실천하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모두 예술"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술적'이라는 말을 자주사용 하는데 주로 새로움, 감동, 조화, 깨달음 등을 지칭할 때이다. 정치가 예술적이라는 표현은 정치가 대중을 위하여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합리적, 논리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수행이 예술적이라는 표현은 어떠한가? 현대의 젊은 수행자들을 보면 참으로 예술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통하여 얻은 진취적 가치를 실현시키며 대중들과 함께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원효 스님의 무애행을 보는 것 같다.

'Infiltration homogen fuer Konzertfluegel(1966, 피아노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의 경험에 바탕 한 작품이다. 그가 부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하여 타타르 지역에 떨어져 원주민들이 동물지방과 펠트 천으로 그를 감싸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신화(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지만 보이스의 많은 작품에 페트(동물기름)과 펠트천이 등장한다. 이는 생존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가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보이스의 작품을 본적이 있는데 이 작품과 유사하다. 작은 나무 세 개를 바닥에 놓고 끝부분을 피아노를 감싼 것과 같은 펠트 천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죽은 나무에 펠트 천을 감싸준다고 하여 그 나무가 살아나거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펠트 천으로 감싸준다고 하여 피아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이스는 시간, 공간, 삶, 죽음, 인간과 자연 등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히 스쳐지나가는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不二)이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분별이 사라지고 오직 순일한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이스가 보여주는 방식은 주로 화두처럼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행위예술, 강연, 설치, 페인팅, 정치참여 등 일상의 예술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는 스스로 기존 예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개인적인 명예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술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현대미술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예술가 중 한명인 보이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사다운 모습을 보여준 예술가이다. 많은 시간 자신이 인식한 내용들을 새롭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그의 모습에서 마치 중생을 무명에서 구하기 위하여 출현한 선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화두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얻어진 깨달음은 다시 현실에서 그 빛을 발현하여야 한다. 저 땅속에 무수히 많은 금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필자가 예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바로 보이스의 영향이 크다. 예술에서 표현방법이나 재료, 기법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도 그 방식이나 방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두가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술은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본래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요셉 보이스가 보여준 예술이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담. 혜산. 대호.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중현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총무원장 산수 부총무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도일. 경담. 도일.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송현.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성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무진 충북교구원장 동행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제주교구원장 효관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4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3436-0796~7 팩스 02)745-1163

상업화 비판 '스님 대여'… 이유있는 인기

일본 불교계 '마이테라' 서비스 화제

일본의 '스님 대여 서비스'가 일본불교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님 대여 서비스'는 가정서 제사를 지낼 때 등 필요에 따라 신도들이 스님을 대여하는 것으로, 시행 초창기엔 종교의 상업화란 거센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엔 '신 개념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불교계는 최근 '스님 대여 서비스'에 대응하는 '마이테라' 서비스를 도입, 본격 시행에 나섰다.

사단법인 '사찰의 미래'는 사찰을 선별하고 스님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마이테라(まいてら, 영어의 my와 사찰의 일본어 발음 테라의 합성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테라' 서비스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를 명제로 시민들과 사찰 간 인연을 맺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위치에 기반해 인근 사찰을 연결해 주고, 인품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친 스님을 소개해준다.

일본불교계가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일본만의 독특한 '단가(檀家)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사찰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찰과 미래'가 진행하는 '마이테라' 서비스 홈페이지. 스님 대여 서비스를 응용해 도시민과 사찰을 연계해주고 있다.

불교식 상례(喪禮)가 보편화된 일본에서는 가족의 사망 시 불자가 아니어도 스님을 모시고 장례식과 49재 등을 진행한다. 일본의 단가제도는 시민들이 조상의 위패나 묘지를 특정 사찰에 모시는 대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찰은 단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례를 책임진다.

하지만 신자 수 감소와 고령화, 젊은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단가가 줄고 있으며 기존 단가제도로 맺어진 유대관계도 약해졌다. 도시화로 인해 단가제도를 맺더라도 사찰 스님을 모시고 제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했다. 하지만 사찰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시민들도 상을 치를 때는 스님을 필요로 하기에 스님 대여 서비스가 탄생한 것이었다.

고령·도시화로 사찰운영 차질로
인터넷 통한 대여 서비스 활발
종교 상업화 비판 받았지만
신 개념 서비스로 주목 받아
투명한 가격 공개 등 이유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계의 관행이 사회 문제화 되며 지탄받은 것도 한 원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스님은 돈이 모자라다며 의식비를 더 요구하다가 상중인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교통비는 물론 식비까지 따로 청구하는 행위가 보도되기도 했다.

'마테이라' 도입의 시초가 된 '스님 대여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8일 일본 최대 인터넷 유통회사인 '아마존 재팬'이 시작하며 본격화됐다. 종교의 상품화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투명하게 서비스 가격을 공지하고 사찰과의 인연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현재 일본 언론에 의하면 '스님 대여 서비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7배로 늘어났으며 문의전화도 1만 2000여 건에 달한다.

결국 '스님 대여 서비스'라는 뜻밖의 사건으로 일본 불교계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제식비용의 불미스러운 관행을 반성하고, 현대인들의 고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단기출가 중인 태국 가수 따사팍 비에 치이가 딸을 안고 있다. **사진출처=coconuts bangkok**

딸 안은 태국 승려에 비난 '봇물'

단기출가 중인 가수 따사팍, "승려 계율 어겼다" 악플 세례

태국서 단기출가 중인 승려가 딸을 안고 찍은 사진에 대해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태국 불교계는 승려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계율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단기출가 중이라도 이를 지켰어야 한단 비판이다.

태국 언론 'coconuts bangkok'은 9월 26일(현지시간) "단기출가 중인 태국 가수 따사팍 비에 치이가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악플 세례를 받았다"며 "네티즌은 아무리 단기출가라지만 여성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따사팍의 부인이자 배우인 수몬팁 굽깁 치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따사팍과 딸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굽깁은 "내 승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내 딸과) 왔다. 사람들이 누가 승려고 누가 딸인지 착각하지 않도록 가발도 착용했다"며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승려가 여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모든 것엔 적당한 장소와 때가 있는 법인데, 따사팍과 굽깁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여론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승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따사팍이 단기출가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태국 승단은 이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현지서 신망 높은 승려로 평가받는 프라마하 파이완 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큰 문제가 아니다. 죄라기 보단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라며 "따사팍은 자신의 딸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는 것 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내면을 봐야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 파이완 스님은 "불순한 의도를 품은 승려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은 죄지만, 이 부녀는 매우 순수하다"며 "무슨일이든 침소봉대(針小棒大)를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아름 기자**

美초등학교, 말썽피우는 학생에게 명상 체벌

'마인드풀 모멘트 룸' 가서 반성문 대신 명상 실시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한 소년이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있다. 그는 지금 명상으로 '벌 받는 중'이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가 도입한 새로운 체벌이 세계 교육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매체 '유(You.co.za)'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로버트 W. 콜먼(Robert W. Coleman) 초등학교는 지난 해 초부터 새로운 체벌로 '명상'을 도입해 학생들을 명상실로 격리 조치하고 있다.

학교는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에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남아서 반성문 써!" 라는 말 대신 '마인드풀 모멘트 룸(Mindful Moment Room)', 즉 마음을 집중 하는 방에 가 있게 한다.

학생들은 은은한 조명과 보랏빛 베개들로 꾸며져 있는 마인드풀 모멘트 룸에서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한다.


미국 볼티모어 로버트 W. 콜먼(Robert W. Coleman) 초등학교는 지난 해 초부터 새로운 체벌로 '명상'을 도입해 학생들을 명상실로 격리 조치하고 있다. **사진출처=You.co.za**

이런 체벌은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근무하는 명상지도자 커크 필리스(Kirk Philis)는 "놀랍다. 꼬마들이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말 명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이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때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필리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나눠 주는 시간에 보통 아이들은 먼저 받기 위해 다투고 밀친다"며 "그런데 선물 주기 전 명상시간을 가졌더니 아이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친구들에게 서로 양보하며 선물을 받았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회상했다.

아이에게 격리 대신 명상을 시키는 이 방법은 지역 비영리단체 홀리스틱 라이프 재단(Holistic Life Foundation)이 제안했다. 로버트 W. 콜먼 학교는 이 재단의 도움으로 학교에 명상실을 꾸몄다.

미국 현지 매체 '업워시'에 따르면 명상으로 아이들을 지도한 뒤 이 학교에는 정학 사례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근방에 있는 패터슨 파크(Patterson Park) 고등학교도 여기에 감명받아 명상 체벌을 도입했다. 역시 정학 사례가 감소했고 출석률이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체벌로 명상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명상이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벌 받아야 할 상황에 명상을 하게 하면 명상은 잘못했을 때 처벌로 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남호주서 최초 불교 매장의식 치러져

4월 3일 개관 엔필드 기념묘지 '불교공원'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에 최초로 조성된 불교 묘지공원서 첫 매장의식이 치러졌다.

불교전문지 'Lion's Roar'은 10월 3일(현지시간) "불교 묘지공원은 최근 증가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불자들의 수요에 따라 지난 4월 3일 엔필드 추모공원(Enfield Memorial Park)서 문을 열었다"며 "지난주 개관 후 첫 불교 전통 매장의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의식은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 로버트 피트(Robert Pitt) 애들레이드 묘지국 회장은 "불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기쁘다"며 "지역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불교식 매장의식이 열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 최초로 조성된 불교 묘지공원서 첫 매장의식이 치러졌다. **사진출처=Lion's Roar**

한편 불교 묘지공원엔 120개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다. 또한 공원 한 가운데엔 4m 높이의 불상을 비롯해 향로와 보리수나무 등이 배치됐다. 유족들은 불상을 중심으로 3바퀴를 돌며 고인을 추모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GM since 2015 GmSoft 천수천안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제 지엠소프트 천수천안 ROGRAM 으로 Smart한 사찰로 리드해 가십시오."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파격가격 및 할인
최초 가입시 2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세팅비 전액무료

사찰신도수	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400명	401~500명	500명 이상
추가사용료	0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합 계	19,800원	21,800원	23,800원	25,800원	27,800원	29,800원
할인 혜택	12개월 결제시 1개월 사용료 할인					

NAVER 지엠소프트, 사찰관리, 신도관리 등으로 검색
대표전화 070-7633-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 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 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 및 시간	수 업 내 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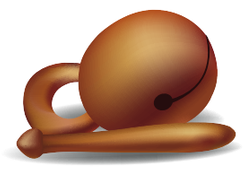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정성을 다해 훌륭한 스승 모시기를 부처님 섬기듯 하며, 성냄과 질투와 탐욕의 마음을 내지 말고 경의 가르침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 반주삼매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뮤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 퇴마. 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연화사)
010-5269-4168

퇴불 철거
(탱화,동불,목불,석불,불기,석물)
모시던 부처님 회향하실때 좋은 인연으로 이원해드립니다
사찰,포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법당철거,신당철거 정성을 다해 철거,퇴불,원상복구 해드립니다.
(주)다사팜
010-2395-3333

25년 전통 국내산 떡갈비 도매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100g 1장 900원 (1팩 2.5kg)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58g 1장 295원 (1팩 17개)
• 육가공 10종 최고의 맛 보유
010-2264-1919. 053-583-1918
국내산 현미 부드러운 누룽지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누룽지는 쌀눈(현미과 미강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만들었음. - 졸음운전 방지, 귀한손님 방문, 주전부리 간식/현미누룽지 270g, 150g/보리와 현미 누룽지/병아리콩 현미누룽지

사주핵심 강의
(명리, 성명학, 영통비법)
기초반, 일반부 :
3개월 60 만원
전문부 (핵심비법전수) :
2개월 100 만원
※ 철학관, 포교당 개업하실 분 (월 4회 강의)
010-3801-4266
운문산 벽송스님 합장

사주학 제10기 모집
• 교육과목 : 사주학, 매화역수, 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응답식 강의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구의동)

특허기술로 탄생한 다이어트 돈까스 도매
• 9가지 자연 곡물 + 5가지 건강야채 (양파,당근,마늘,부추,연근) + 블루베리
• 뱃살 찌지 않는 야식 돈까스 (1봉 150g×7개) 16,000원
• 사찰 스님 드시는 돈까스 (연근 20%, 야채,버섯,대추 / 1봉 15,000원)
• 유치원 납품, 식당업소용, 창업,지역취급 상담
제조원:(주)효경식품 / 판매원:신푸드
010-2264-1919
053-583-191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출가 1-2년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의식, 집전 공부하면서)
지역 : 울산, 안동 (지장정사)
울산 010-3858-0306
안동 010-6475-3439
※출가를 원하는
비구니 행자도 모심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배워야 산다
비법 + 명리 + 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답

우리스님 꼭 필요한
최고 영양공급, 건강증진 체력보강, 당뇨에 탁월한 효과 쌀눈 500g 4만원 / 소화불량, 속쓰림, 3개월분 4만원
주문 010-8561-8253
보건식품처방사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구)
010-9223-34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영남 범음 범패 학인모집
대상 : 비구 · 비구니 스님
현, 무형 문화재스님 직접지도
교육원 위치 : 부산 중구 보수동
문의처 (수시로 접수함)
김해지역 010-5687-9089 제주지역 010-4136-8734
양산지역 010-9340-9674 창원지역 010-4547-11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사찰 처사 (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기초정도 사주 공부를 득한 운전가능한 40-50대 보살을 찾습니다
(원주보살)
금조 합장
010-8961-5498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 제주도 교육원
- 실전위주 단기교육 특강 -
1 불교의식 각종 사물 단기교육
2 범음범패 실전위주 단기교육
3 각종(불공) 1인 진행법 단기교육
(전체교육 3개월)

현 시대에 맞는 실전위주의 톡톡튀는 불교의식 교육을 강의합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포교당 운영 및 수행하시는 주지스님, 법사님 환영합니다.

■ 인터넷 유투브. 다음 (월오스님을 클릭 하세요!)
■ 영남 천수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극락무, 승무, 연화무, 지전무 등 배우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개인특강
■ 범음범패 문의 : 010-3189-0602 월오 합장
■ 불교무용 문의 : 010-3844-9565 하늘소리예술단장 (서련)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 서길 92

염불공덕 성취도량 문수암
전화 064-799-1559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이미 법과 진리를 구해서 얻었다면 안락함을 누리리라.

- 별역잡아함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트인 바다 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위 치 : 진해구 용원동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 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양도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경기도 안성 사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
- 법당 뒷편이 산이며 조용하고 아늑함 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하심
- 양도가액 : 2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위치 : 서울시내산밑
◎ 부지 : 100평 ◎ 대지 : 45평
◎ 법당 : 50평 ◎ 인법당 : 60평
◎ 요사 : 60평 ◎ 요사 : 20평
◎ 양도 : 16억8천 ◎ 양도 : 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 법당,요사채(방4개),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매도액 : 몽땅 2억 2천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중주사찰(급)안내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토지 2,300㎡, 뒷편은 산
- 교통편리하고, 조용하며 남향임
- 현 운영 성업중이나 스님께서 연로하심
- 가액 : 3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지하철역5분거리/버스정류장앞
- 총 236.29 ㎡ (약70평/도시가스/상업용전기)
- 신중, 산신, 영가단, 법당
- 주방, 방5, 화장실2
- 가액 보3000만/월170/시설비없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사찰(급) 안내

- 위치 :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향림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슬라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단청,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2억 3천

010-4548-76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화명동 (요지)
- 3층건물의 3층
- 법당, 공양간 약 60평
- 깨끗한 시설 완벽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신설공사비) 1800만원 (절충)

010-3582-89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103㎡
- 법당, 요사 약 100평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0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5518-660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속 솔밭 속 사찰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 (주인직접)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8-2(성내2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 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법당외에 방4개
- 주위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및 후불탱화, 신장 탱화 인수시에는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보 500만원,월세 50만원

010-6667-8819
010-9087-4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3층 건물중 2층 약 80평
- 방 5개(주방,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교통 편리
- 가액 : 보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4805-59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1층 33평(법당), 2층 24평, 3층 20평 4층 15평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010-5931-1071

사찰,암자,선방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평수 : 약 2,300평
- 지목 : 계획관리지역 + 보존임야
- 특징 : 조용하고, 전망과 조망이 좋고 투자성으로 매우 좋습니다. 주인직접
- 가액 : 2억 3천

010-2215-365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저수지가 훤히내려다보이는 전망최고의 명당터
[사찰] ● 1층 30평 천불상 관음궁전
- 2층 25평 삼존불 및 지장보살 소불 130불 요사채 45평(황토방1, 큰방3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입소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
- 가액 : 17억 5천
- 월수입 약 4천만원(원장 건강상 급 양도)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 650평(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 : 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 포함) 옥외 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 통도사 부근
- 법당 10평(삼존불, 신중, 영단)
- 요사 약 23평, 방3, 거실, 주방 주차장 크게 사용할 수 있음
- 비구니, 보살, 스님, 법사, 철학원 적합
- 공찰 소임관계 급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300만, 월25만 시설비 2,800만(절충가능)

010-5298-735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청 근처, 명학역 도보 10분(명학시장 2층)
- 평수 : 약 42평
- 시설 : 삼존불 외 완비(주방 침실 욕실)
- 가액 :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495-4678
031-441-4678

청평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큰방 1개,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
- 난방 : 석유 보일러
- 실내에 패치카 있음(화목보일러 사용가)
- 가액 : 2억 4천만원

010-9411-530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건물, 목조한옥, 원룸형 10.5평
- 부지 82평, 전 221평 (추가필지)
- 2차선 도로에서 200M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 끝 지점
- 가액 : 9천만원

010-8562-44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지리1길 31-3호
- 별장같은 아담한 45평 단독주택
- 특수담장 대문에 비디오폰 설치
- 화단에 과일나무 정원같은 도량 비구니 스님이면 너무좋은 도량
- 가옥 및 법당시설 모두 7천 8백 임대시: 보 1천 월 40만원 시설비 5백

010-8934-8259 (건물주)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0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 3억

011-9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 3천(대출 2억 포함)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오태동
- 3층 건물중 3층
- 약사여래불, 소불 60불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203-3368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21-11번지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7500만원 대출 + 1억 1천 5백만원
  합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자갈치 시장 입구 명당자리 위치(유동인구 많음)
- 평수 : 약 80평 정도
- 시설 완벽 (금탱화 : 닫집, 기타)
- 가액 : 1억 3천 (보증금, 시설비 포함)
- 건강상 급히 양도함

010-4876-53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조정가능)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87-67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오거리 (위치좋음)
- 2층 전체 약 30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가액 : 보 2,000만원 월 70만 시설비 답사후 결정(현재 법회중)

010-9598-57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팔공산 부근
- 건물 80평
- 주차공간 50대
- 건강상 급히 양도하니 연락바람

010-3807-0040

다용도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 대지: 약 380평
- 건물: 60평(법당 42평, 요사채 18평)
- 위치 최상, 부동산업자사절
- 주인보살 30년운영 건강상이유 급 양도함
- 가액 : 5억 → 3억 9천만원

010-3132-6163
010-9800-757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3길 42-9
- 대지 10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48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0-5405-0752
043-733-2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덕계리
- 교통편리, 시설완벽 사찰로 100평 법당에 방4개
- 가액 : 전세 천만원, 월50만원 집기일체 2,000만원
- 인연있는 스님에게 보시합니다.

010-5269-5440

“ ‘절구통수좌’ 효봉 스님 수행가풍 잇자”

송광사, 효봉 스님 50주기 추모
11월까지 〈금강경〉 주제 대법회

“수행도량 전통 계승해
모범 수행자 거듭나자”
추모록 · 일대기 봉헌도


송광사 사중스님들이 효봉 스님 입적 50주기 추모다례재서 부도탑을 돌며 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1888~1966) 입적 5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다례재가 거행됐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는 10월 2일 대웅전에서 방장 보성 스님, 문도 스님 100여 명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효봉 스님의 입적 50주기를 맞아 큰스님의 뜻을 기리는 다례재와 부도탑돌이 행사를 봉행했다. 추모다례재는 현호 스님의 추모록 〈무무문〉과 효봉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이정범 작가의 전기소설 〈붓다가 된 엿장수〉의 봉헌의식도 함께 진행됐다.

효봉 스님은 ‘절구통수좌’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남달리 수행정진해 수많은 스님과 재가자들의 모범이 된 수행자다. 특히 조계종 통합종단의 출범 후 초대종정에 오른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큰 스승이다.

다례재서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송광사에는 큰스님 수행력으로 이뤄진 절구통수좌의 수행정진 가풍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도 송광사가 수행도량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큰스님 열반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추모세미나, 큰스님의 정신을 담아낸 책 등을 발간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광사는 이 같은 효봉 스님의 수행력을 본받고자 9월 29일 입재한 ‘금강산림대법회’를 11월 17일까지 경내 사자루서 봉행한다. 주제는 대승불교 대표 경전인 〈금강경〉이다.

올해로 12회째인 금강산림대법회에는 종단 고승대덕 스님들이 법사로 초청돼 〈금강경〉에 담긴 깨달음의 이치와 수행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는 29일 방장 보성 스님의 입재법어에 이어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서울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합천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 무상 스님 등 총 8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금강경〉과 관련된 지혜의 법문을 불자들에게 들려준다.

송광사 말사 스님을 비롯한 500여 신도들이 참여한 29일 입재식에서 보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강경〉을 독송하면 부처님을 늘 내 곁에 모시는 것과 같고 호법선신이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다”며 “불자님들도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법문에 이어 〈금강경〉 제1분부터 제5분까지의 해설은 송광사 선원 유나 현묵 스님이 설명했다.

법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송광사 사자루에서 진행하며, 법회가 열리는 49일 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가 함께 봉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웃 고충 살피는 게 과업”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익산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

불교세 미약한 시골서
텃밭 일구며 이웃 도와
선지식 초청법회 비롯
복지사업도 적극 펼쳐

“불교세가 미약한 시골에서 사찰 운영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각 사찰마다 특성화된 포교프로그램을 통해 신행활동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전국에서 개신교의 교세가 가장 활발하다는 전북 익산. 그 중에서도 시골 작은 사찰에서 전법과 포교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 바로 오산면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사진〉이다.

1999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신도도 많지 않고 진입로도 논두렁길 밖에 없던 시골사찰 정각사를 인수한 일행 스님은 가장 먼저 20평 규모의 극락전 불사를 시작했다. 농촌마을의 작은 절에서 불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도통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2000년부터 토지매입 불사를 시작해 2004년 극락전을 완공했다. 2006년에는 요사채 2동을 신축하고 그 후 조금씩 주변 토지를 사들여 현재 2000평에 이르는 토지를 마련해 비로소 여법한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

일행 스님은 넉넉지 않은 사찰살림을 꾸리고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변 밭 500평서 고추, 배추 등 농작물을 심어 재정 확보에 힘을 보탰다. 그것도 부족해 주변 농지 2만평을 임대해 농사를 직접 지으며 선농일체 정신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사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시 불자들의 주문이 늘어나 어렵지 않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농사꾼 다 됐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일행 스님은 이외에 체계적인 신도들의 교육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었다. 정각사의 선지식 초청법회는 시골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유명스님들을 초청, 법문을 청해 들으며 신심을 높이고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다.

매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영어법회를 열어 청소년 포교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골사찰이라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신도수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어느 정도 사찰운영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스님은 복지사업에 눈을 돌렸다. 출가 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스님은 평생을 불자로 살아오다 임종을 앞두고 타 종교로 개종하는 현실을 보고 복지사업에 뛰어들기로 작정해 올해 5월 정각복지센터를 출범했다. 절 옆의 토지를 매입해 건평 60평 규모로 지은 정각복지센터는 주야간방문보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행 스님은 정각복지센터가 안정권에 들게 되면 유치원과 양로원 같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사와 포교, 기도와 수행, 복지사업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은 지난 1월 익산시 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해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변 이웃을 살피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계층의 고충을 파악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사암연합회장으로서 지역의 불교행사는 물론 각 사찰의 다양한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일행 스님. 스님은 오늘도 지역 불교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곳곳을 살피며 하루를 보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년소녀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열려

화순 도원사, 장학금 전달도

화순지역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모후산 도원사(주지 진철)는 10월 3일 경내에서 도원사 창건 12주년을 기념해 ‘제7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음악회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과 구충곤 화순군수, 신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가수 김용임, 현진우, 정현, 온희정, 정주호, 서명희 등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모후산 난타공연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대중에 선보였다.

진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과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군수는 축사를 통해 “화순군의 발전과 지역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는 도원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들, 생신 축하드립니다!”

마이산 탑사 · 쌍봉사
홀몸어르신 초청 생일잔치



진안 11개면 어르신 100명이 참가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변변한 생일상 한 번 받지 못하는 지역 홀몸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성대한 생일잔치를 열었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 진안동부새마을금고는 10월 6일 진안군 마령면 주민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진안지역 11개면 홀몸어르신 100명을 위한 생신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된 이날 생일잔치는 나누우리봉사단의 난타와 색소폰 연주, 부채춤, 살풀이춤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생일잔치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3일 동안 만든 100개의 생일케이크와 찰밥, 미역국, 갈비찜 등 푸짐한 생일상을 어르신들을 위해 차리고,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생일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쌀 5kg, 라면, 김,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푸짐한 선물이 전달됐다.

또한 마령면과 정천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도 초청해 따뜻한 점심식사와 위문품,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도 “가족과 떨어져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후원한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김장김치 나누기, 자비의 연탄 나누기 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법과 포교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범어사 禪의 향연, '염화미소 현장'으로 초대

방장 지유 스님, 개산대재 맞아 금강경 서문 禪說

이 시대의 대선사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선(禪)에 대한 안목으로 〈금강경오가해설의〉의 서문을 살펴보는 시간이 처음으로 열린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0월 13~15일 매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범어사 보제루에서 '함허 득통 선사의 〈금강경오가해설의〉 서문 선설(禪說)'을 개최한다.

범어사 개산대재를 맞아 열리는 이번 법석은 선찰대본산인 범어사의 수행 가풍을 내적으로 더욱 단단히 하고 참구자들이 본래심(佛性)을 깨닫도록 도우며, 현실 생활에서 깨달음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구안됐다.

10월 3일 범어사 주지실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스님은 "가섭 존자의 염화미소가 현실화 되는 법석이 될 것"이라며 "방장 스님의 토굴인 문경 관음사에서 방장 스님이 선방 대중 몇 명을 위해 전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명확한 강의에 감탄해 범어사 대중들 앞에서도 해주시길 간청했었는데 이번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법석에는 누구나 동참 가능하며 교재비 및 참가비는 무료다. 이는 개산대재를 맞은 범어사가 법석의 큰 가르침을 누구나 가득 받아가길 바라는 염원으로 베푸는 것이라 설명했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 후 화엄 십찰을 창건 하실 때 호국 성지로 지어졌다. 물론 화엄 십찰로 탄생을 했지만 금강경 서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일승사상과 관련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개최 의미를 전달했다.

〈금강경〉은 선종의 핵심 내용인 반야에 대해 담고 있다. 특히 〈금강경설의(說誼)〉는 함허 득통 선사가 1414년 황해도 연봉사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여 함허당이라 명하고 금강경오가해를 강의

10월 13~15일, 범어사 보제루서
의상 스님 뜻, 수행으로 펼칠 것
행사 간소화, 법석으로 환희롭게
부산불교聯, 전통 팔관회 의미 더해

하고 주석을 붙인 내용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 서문은 금강경의 강령이자 팔만대장경의 서문이며 우주 삼라만상의 강령과 서문이 된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범어사 개산대재에 맞춰 '2016년 팔관회'를 10월 15~16일 동안 범어사에서 연다. 10월 15일에는 호국 성지 범어사와 그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오후 2시 대웅전에서 호국기원법회로 문을 열고 오후 4시에는 문화광장에서 백희가무를 개최한다.


범어사는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13~15일 오전 10시 30분 범어사 보제루서 방장 지유 스님의 '금강경 서문 선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불교연합회가 범어사 개산대재 기간 중 개최한 팔관재계 법회 모습.

백희가무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와 의병의 활약을 담는 것으로 타악, 사물놀이, 대북연주, 무예시연 등으로 구성된 '달빛 송운 검'이란 제목의 공연이다. 약 1시간 소요 되며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 부회장 무원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정사를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서병수 부산 시장 등이 참가해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짚고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기도한다.

이어 16일 오후 2시 범어사 문화광장서 호국영령위령재를 열고 문헌을 기초로 한 고려 팔관회를 재현하고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아울러 16일 오후 3시에는 문화광장에서 '팔관재계 법회'를 재현하고 계를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산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10월 14~16일 범어사 보제루 아래에서는 '팔관회 닥종이 공예전시'가 마련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행사와 호국을 담은 공예작품을 통해 팔관회 정신과 호국 불교의 의미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범어사 일주문와 보제루 일대에서는 '팔관회 사진전'도 함께 만날 수 있다. 10월 1~16일 간에는 범어사 경내서 팔관회 등(燈)을 만날 수 있으며 탁본,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15~16일 동안 참여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나눔 위한 관세음 자비 도량 구평사 개원

9월 30일 개원식 및 복성 장학금 전달

전북 마이산탑사가 '불도 부산'에 관음기도도량 구평사를 개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탑사 부산분원 구평사(주지 진성)는 9월 30일 구평사 법당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점안식과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주지 진성 스님은 구평사가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지역에 환원할 것을 서원했다. 진성 스님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천개의 눈과 손처럼 마음을 다해 중생을 보살피고 이를 위해 나눔과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평사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세인트 마린 빌딩 구층에 위치하며, 전체 250평 규모에 법당과 산성각, 지장각, 요사채 및 대중 처소로 구성된다. 법회는 매달 관음재일에 열리며 현재 정기법회는 일반인과 직장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북 마이산 탑사 부산분원 구평사가 9월 30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관음기도도량으로 문을 열었다.

주말에 맞춰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이산탑사 부산분원 구평사와 ㈜복성산업개발이 공동 설립한 '구평사 복성장학회'는 지역사회에 추천을 받은 지역 내 모범학생 40여명에게 총 1,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구평사 복성장학회'는 ㈜복성산업개발과 마이산탑사 부산분원 구평사가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만든 장학회다. 하성미 기자

정토사 덕진 스님,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노인 복지 공로 인정받아

노인 복지에 힘쓴 공로로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10월 4일 동천체육관서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복지 발전과 효친 사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서 덕진 스님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덕진 스님은 지난 1995~2004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인근 지역 20개 경로당 어르신 약 300명을 초청했다. 덕진 스님은 "여러 어르신을 공경하고 시민사회를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이곳에 오신 어르신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지족하는 지혜로 편안하시길 기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10월 4일 노인 복지와 효친 사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포교·신행 위한 부울경 소식지 'e붓다' 탄생

10월 5일 창간식 "전법의 창으로 발전 약속"

부산 울산 경남 지역서 도심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들이 '인터넷 불교 뉴스 e붓다'를 창간했다. 'e붓다'는 전법의 창을 새롭게 열기 위해 만든 인터넷 불교 뉴스 창으로, 앞으로 신행과 포교를 위한 지역 중심 뉴스를 담당한다.

인터넷 불교 뉴스 e붓다(대표이사 원허)는 10월 5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창간식을 개최하고 취지 및 제작 과정, 운영 방법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알렸다.

e붓다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부울경 인터넷 불교 뉴스'란 모토로 재가 신도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참여의 장을 적극 마련한단 계획이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불심의 중심이라 알려진 경남과 부산임에도 불구, 많은 언론들이 총무원과 정치적 뉴스에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 신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e붓다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재가자들을 위한 포교와 신행 뉴스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붓다는 앞으로 각 사찰의 홍보 담당자와 연계해 객원기자 제도를 활성화 하고 직접 각 사찰의 뉴스를 전해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다양한 필진을 구성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불자들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사보를 발행하는 사찰을 위한 e북보기 기능을 제공, 각 사찰 행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 신행활동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의지다.

원허 스님은 "앞으로 타 지역과도 연계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법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신심 나는 신문으로 활동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붓다 운영진으로는 대표이사 원허 스님(혜원정사), 운영위원에는 목종 스님(대광명사), 하림 스님(미타선원), 황산 스님(황룡사), 주석 스님(대운사)이며 편집장 및 발행인은 오세룡 사장(현대북스)이 맡는다.



부산 울산 경남의 불교 뉴스를 전할 전법 전문 포교지 '인터넷 불교 뉴스 e붓다'가 창간 됐다. 'e붓다'는 10월 5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창간식을 개최하고 그 시작을 알렸다.

e붓다는 지난 7월 창간 필요성을 논의한 후 9월 초 제작에 돌입, 도메인을 획득하고 운영진을 구성했다. 9월 19일 부산광역시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완료하고 그 시작을 알렸다.

주소는 http://www.ebuddha.co.kr/이다. 하성미 기자

"보현행원 실천하는 병원으로"

센텀해인요양병원 10월 6일 개원

법산 스님은 센텀해인요양병원을 개원하고 10월 6일 해인요양병원 11층 강당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센텀해인요양병원은 앞으로 불교의료기관으로 지역의 환우와 가족을 위해 노력 봉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산 스님은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가운데 화엄경을 설하셨다. 화엄경의 보현행원을 실현하는 불교 전문 병원으로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했다"며 "전문 내과의가 상시 병원을 지키며 운영하고 전문성을 더한 병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텀해인요양병원이 10월 6일 해인요양병원 11층 강당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센텀해인요양병원은 총 13층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 말기암 완화치료와 한의사 재활치료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식 케어를 제공한다. 또한 법당을 설치해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예불과 기도로 마음의 안식을 얻도록 배려했다. 하성미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해인사



화엄경6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고,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을 완역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법성게 3개국어판
신간!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대행 스님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女)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좀 얘기할까 싶어서요. 저희 집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개미야. 부디 네가 살 데서 살아 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거기서 나가 줘.'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심(無心)에서 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부엌 씽크대 위 같은 데 개미가 참 많았는데 개미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니 빵 부스러기니 하는 거를 일부러 놓아 보았어요, 부엌에다가. 그랬는데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개미가 안 오는 거예요. 부엌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거기도 개미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이 마음과 풀 한 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가 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게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건가 아니면 개미가 여기 살기 싫어서 갔는가….

큰스님 좀, 좀 믿어 봐요. 하하하.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거 하나를 체험했을 때는 그 줄을 잡고선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 돼요.

질문자3(女) 네.

큰스님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 또 진드기 하나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전부가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중단을 다치워 버렸어요,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몸을 막 때려서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치우되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로 다 넣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 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인 데서 치우니까 그쪽에서는 내 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급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 도리(無心道理)에서 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응집을 해 가지고 같이 이끌어 주는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普賢)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女)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마음이 그 많은 개미에게 마음이 다 전달이 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함부로 뜯지도 못하겠고요. 어느 벌레 한 마리나 사람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스님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은요, 짚신을 신고 방울을 달아서 저렁저렁저렁 하고 딛고 다녔어요. 미리 달아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밟히지 말고. 이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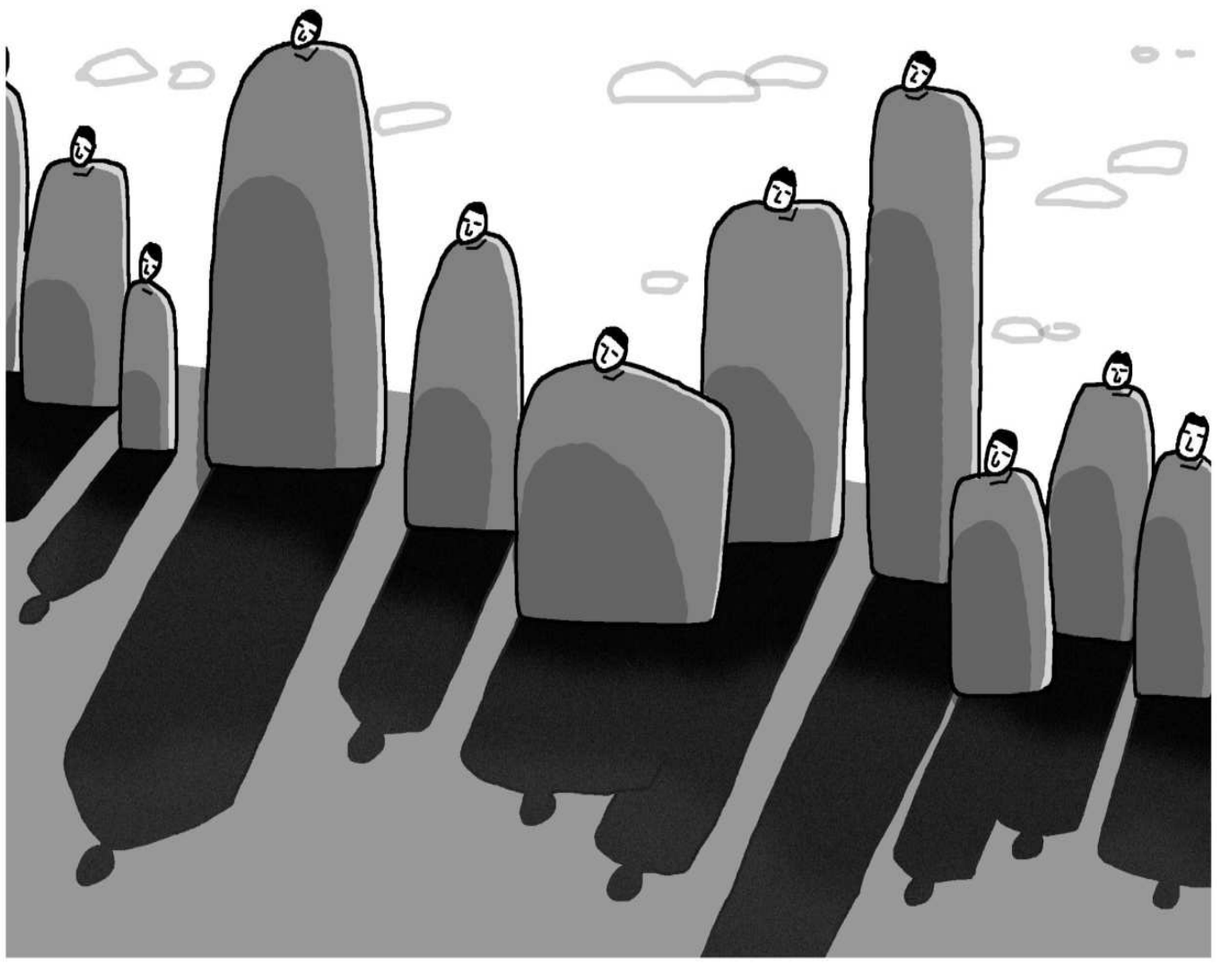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픈 사람들이 와도 낫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걸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죽일 수가 없거든. 이래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거든, 또. 그러니까 길을 틔워 주지. 남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여기선 벌써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기 당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뚱이 있을 때 알아야지 몸뚱이 없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죽어서도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여기서 그냥 그림자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와글와글하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지. 또 강을 건너가려 하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잖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 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죠. 마음이라는 게 타 죽는 게 어딨고 타 죽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개미 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기가 막혀서 하늘을 보고 앙청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질문자4(男) 제가 금방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심장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한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뭣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마는 '이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어떤 인연은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을 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는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큰스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 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 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깟 놈의 거,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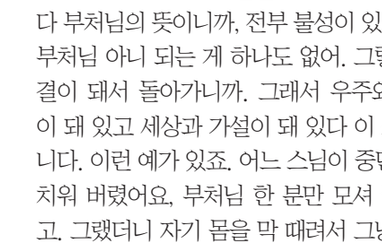
☞ A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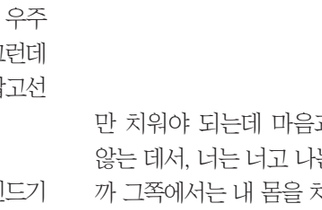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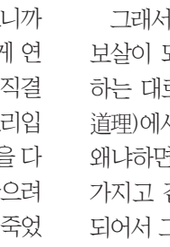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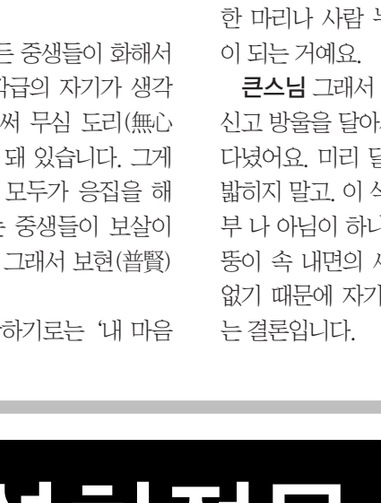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6년 10월 31일까지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이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

☞ A25면에서 계속

상인 것을 칼로 잘려서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아 가지고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렇게 보임(保任)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迷)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사를 가는데 비가 오면은 그게 다 그냥 젖는 겁니다. 이게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 못사는 사람이 이삿짐을 그 차에다 실어 가지곤, 거기에 사람도 타고 이래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엉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하는데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좀 해 주세요." 그러길래 "날더러 '해 주세요'가 아니다.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 오게 해야지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텔레비전에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했다는데 이사할 동안은 비가 안 오고 잘 갖다 놓고 나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랍니다. 하하하.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 주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걸로 한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람 또 없습니까?

질문자5(男) 이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부 삼아서 이사에 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가난한 이사인데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이사 가는 것을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이 안 나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이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이제 턱 맡겨 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가려느냐? 갈래 안 갈래?" 하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맡기고 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거 잘못 맡겨졌는가? 그 여러 가지로 좀….

큰스님 맡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맡기기만 해서도 이게 딱, 침을 딱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 됩니다. 정히 급하면은 '당신만이, 당신만이 가게 할 수 있다.' 또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맡기세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그대로 눌러앉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하고 잘 생각해 봐서 눌러앉고 싶으면 그냥 눌러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는 거보다도 댁에서는 눌러앉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아는 사람이 더러 이렇게 서로 마음도 알아주고 돌보아 주니깐 말입니다.

질문자6(男)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을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7월에 우연히 『도(道)』라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무(無)』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묻는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겨라." 그러셨는데 지금 개구리 찾아 나선 아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엄마 곁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주인공을 몰라서 그런지 또는 아이들이 주인공을 몰라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무슨 애들이?

질문자6(男) 대구에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가 가지고 지금 아마 100일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중에는 혹시 스님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치를 당해 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전부 믿는다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지금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연 따라서 온 업보라고 볼 수 있겠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붙들어서 방에다 앉혀 놓았는데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다 주니까 코를 박고 죽었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거, 또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부. 물론 세상이 바뀌어지고 온통 땅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두가 잘 있다 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겠지만 하여튼 잘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질문자7(女) 다름이 아니옵고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한 10개월째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런데 제가 금방 머리에 스쳐 가는 생각이, 제가 한 20년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제가 불에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머리에 싹 스쳐 가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이러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스님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죠. 허허허. 그게 인간의 양심인데, 바퀴벌레 몸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바퀴벌레가 타 죽을 때 그 애틋한 쓰라림 그런 것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질문자8(女) 스님을 뵙게 되어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의 남편이 어쩌다가 그런 직업을 붙들었어요.

큰스님 무슨 직업요?

질문자8(女) 돼지 새끼를 잡아서 식당에다가 넣는 직업이거든요. 이제껏 그런 일을 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죄를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걸려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큰스님 그럴 거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돼지 새끼가, 모습을 돼지로다가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시키면은 외려 잡은 것이 더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깐 주인공에다 맡기시면서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병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큰스님 장어 같은 거 잡으랬습니까, 어디? 하하하.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고아서….

큰스님 예, 고아서 그 물을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 거를 토막 칠 때에 토막 쳤던 그 자리를 먹으면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그건 전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절대로 산 거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분열이 된 사람들을 보면 산 짐승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갖다가 둘씩 셋씩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질문자8(女) 직업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큰스님 직업에 귀천이 어딨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좋죠. 그런데 돼지를 백 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하하. 그런 법이 부처님의 묘법이죠. 영은, 이 영혼이라는 건 그냥 백, 이백,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은 그거는 무심(無心)의 도리, 도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일 때마다 모든 거는 주인공에 맡기시고, 잘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천도를 시켜 달라는 둥 뭐, 환생을 시켜달라는 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신만이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세요.

내가 애들더러는 그럽니다. "친구야! 이 친구만이, 네 친구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사람 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하는 거 일러 준 대로 하세요.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한 얘기만 하고 그만두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큰스님께서 아마 3월 달이 생신인데 어느 날인지, 그것도 이제는 너무 오래 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여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첫째, 대장부가 방귀씨 눈을 왜 틔우지 못하는가? 둘째, 대장부가 귀신 방귀 털을 더하고 덜함도 없이 먹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가?" "세 번째, 대장부가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왜 끊어 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산천은 두루 푸르른데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한 손 들어 하늘을 꿰어 돌고
한 발 들어 땅을 디디니
일곱 발짝 떼어 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럼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 나설 수도 있는 건데, 하하하.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모두 웃고만 계시니깐 모두 도인들만 계신 모양이야. 하하하.

그럼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할 겁니다.



창간 22주년에 부쳐

불교 언론 네트워크를 기대하며



원 용 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도 공생체
> 언론사간 유대는
> 언론 후발주자로서
> 필수 불가결 요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늘 억울하다. 항상 달에 치이는 것 같아서다. 모든 진리는 달에 있다고 말할 양으로 행인1 혹은 포졸2로 손가락을 조연시킬 뿐이다.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줘 보자. 손가락 없이는 아예 달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새에 따라 눈길의 빈도나 심도가 바뀌기도 할 것이다. 도무지 달을 곰곰이 쳐다보지 않고선 안 될 것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손가락질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자면 달과 손가락은 주종 관계가 아닌 운명적 공생체로 파악해야 마땅하다(指月不分).

달, 손가락 비유는 미디어 판에서도 통용된다. 미디어를 단지 수단으로만 사고하는 이들이 있다.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정보와 오락을 내놓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유하는 측이다. 이들이야말로 미디어를 손가락 신세로 만든다. 같은 정보나 오락이라 할지라도 실리는 미디어에 따라 그 효능은 달라진다. 종이 만화도 재밌지만 웹툰이 더 재밌는 이유는 손으로 밀어 올리며 느끼는 스마트 폰과의 촉감 쾌락 탓이다. 정보 전달에서 신문보다 페이스북이 수월성을 갖는 것은 댓글을 달 공간을 지녔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달의 동반자이듯 미디어 또한 정보, 오락의 공생체다.

손가락과 달을 분리시킨 후 달에다 강한 방점을 찍는 전통이 셌던 탓일까.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종교 언론의 관심은 참으로 적고 더디다. 가끔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없지는 아니나 제안 수준을 넘지 못한다. 소통 과정이 없이는 종교가 느껴지거나 만져질 수 없다.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문턱을 좀체 넘지 못한 대중에겐 더욱 그렇다. 달로 이어지기 위해선 멋지고 적절하며 때론 카리스마 있는 손가락이 절실하다. 종교적 가르침이 더욱 필요해진 지금 세상에선 더욱 그렇다. 종교 언론에 미디어 혁신에 대한 관심이 과소함은 그래서 안타깝다.

바보에서 스마트로 별칭이 바뀔 정도의 미디어 판 움직임에 종교 언론의 대응은 늦었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좋은 내용만 있으면 어떤 미디어에 담기든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이 더 힘을 쓰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고집 탓에 이젠 대중에 접근할 기회마저 차단되는 곤혹스러움도 겪는다. 대중이 애용하는 미디어의 문턱을 넘지 못하니 과거보다 더 나은 내용이 나올 리 만무하다.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문턱을 넘어 그 반복을 깨는 지혜를 도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미디어 판에 맞는 맞춤형 내용을 생산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후발 주자가 꾀할 일은 늦은 자들끼리의 연대다. 각자 도생으론 해결해내지 못한 부분을 연대로 풀어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힘은 연결,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 우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되 개별적으로 기존 네트워크에 줄을 댈 일은 아니다. 유대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존 네트워크와 협상하는 지혜가 후발 주자로선 필수적이다. 불교 언론 네트워크로 만든 포털, 공동운영 블로그, SNS가 그 시작의 예가 될 수 있다. 연대로 만든 작은 손가락이 오롯이 달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미디어 시대로 종교 언론에 그리 가시밭길만은 아닐 터이다.

晩秋 그리고 수상

아버지와 함께한 가을산사 추억



유 자 효
시인 · 언론인

> 할아버지 묘소 있는
> 부산 선암사 인근 선산
> 이제는 아파트 촌으로
> 가족의 부산시대 막내려

젊은 아버지는 추석 성묘에 나서셨다. 아버지께는 형님이 두 분 계셨지만 큰 형님은 일찍 타계하시고 둘째 형님은 고향인 삼천포에 계셨다. 그래서 부산의 친척 가운데는 아버지가 가장 어른이셨다.

할아버지 차례는 셋째 아들인 아버지가 모셨다. 우리 집에 숙부와 장손인 사촌형이 와서 차례를 지내고 성묫길에 올랐다. 할아버지의 산소는 당감동 선암사 근처에 있었다. 어린 내게 성묘는 하나의 여행이었다.

차에서 내려 시골길을 한참 걸어갔는데 다리 위에 놓인 철교를 건너야했다. 나는 무서워 철교를 건너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철교를 건넜다. 그래도 무서워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살며시 눈을 떠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목 사이로 개울물이 까마득히 보였다. 나는 무서워 얼른 다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등은 넓고 편안했다. 그 등에 업혀서라면 철교가 아니라 그 어떤 위험한 곳이라도 안전하게 갈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 아직도 겁이 많은 내가 가끔 해보는 생각이다.

부산은 할아버지께는 외지였다. 운조루 5대 종손의 4남이셨던 할아버지는 처와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구례를 떠나 삼천포로 갔다. 삼천포에서 자란 내 아버지는 10대 때 가출하셨고 큰돈을 모아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고아가 된 조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옮겼다.

내 최초의 기억은 할아버지의 죽음이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는데, 어른들의 울음소리에 잠깨어 보니 큰 방 위쪽에 누가 흰 이불을 쓴 채 누워 계시고 남자 어른들이 엎드려 곡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독실한 불자였다고 한다. 집에 불단을 모셔두고 불공을 드렸고 부산 선암사를 자주 찾으셨다고 한다.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선암사 근처의 산지를 사드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부산 지역 자손들의 선산을 조성할 요량이셨다. 산을 산지 몇 년 되지 않아 할아버지가 타계하셨고, 아버지의 소망대로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선암사 범종 소리를 들으며 영면하실 수 있게 되었다.

성묘가 끝나면 아버지는 선암사를 찾았다. 아버지가 절에 들어서자 웬 스님이 쫓아나와 반기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와 스님은 절간 툇마루에 앉아 긴 이야기를 하셨다. 그동안에 나는 숙부와 사촌형에 끌려 선암사 앞 개울에서 가재를 잡았다. 깨끗한 개울물에 아른아른 비치는 투명한 가재를 잡는 것이었다. 참으로 청정했던 시절이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시간과 함께 사라져갔다. 아버지는 쉰 여섯 살 때 뇌일혈로 쓰러지신 후 건강을 잃으셨는데, 사촌형수가 형님과 이혼하면서 산을 팔아버렸다. 그때 서울서 나와 함께 살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부실하신 몸으로 산을 찾겠다고 동분서주 다니셨으나 헛일이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더니 산소 바로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었다. 산소에서 보면 멀리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던 화장터도 아파트 촌으로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골은 진주의 사촌동생이 고성에 가족 묘지를 조성한다며 이장해 아버지에서 비롯된 부산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부산 선암사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내 유년의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다.

社 說

'10돌' 108산사회의 아름다운 발자취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았다. 이 기도회는 지난 2006년 선묵혜자 스님이 도선사 주지 재임시절 시작했다.

매달 한 차례씩 사찰을 방문해 기도 정진하는 새로운 순례법회의 모델로 발기대회를 하자마자 종교를 초월해 5천여 회원이 모였다.

관계도 다양했다. 고부지간과 모녀 지간, 부부를 비롯해 수녀, 원불교 교무 등도 있었다. 불교 행사를 넘어 범 종교 행사로 거듭났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가는 곳마다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침체된 한국불교 신행문화에 새 지평을 연 일등공신이 분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뒤늦게 동참한 이들을 위해 선묵혜자 스님은 제2의 108산사 순례기도를 이어 간다. 9년간 여정을 마친 지난해부터는 53기도도량 순례법회도 진행한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들만큼 10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선묵혜자 스님은 108산사 순례기도 10주년을 맞아 10월 14일과 15일 서울 상계동 도안사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9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와 화보집 고불식도 갖는다. 총 5권으로 이뤄진 백서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신행현장을 비롯해 대사회적 활동과 언론 보도 등 9년간의 발자취가 총망라돼 있다. 그 속에는 108산사 순례 기도가 그동안 펼쳐 온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환경지킴이 활동, 다문화 가정과 군포교 지원, 장학급 지급 등 활동 영역을 넓히며 발전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0살을 맞은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다시 2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

현장에 맞는 포교 지원 필요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추진하는 전법중심도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에서는 전법중심도량이라는 위상에 맞는 혜택은 부족하고 번거로운 보고서 작성만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올리는 '옥상옥(屋上屋)'의 형국이다.

이런 불만은 올해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률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올해 대상 사찰은 총85곳인데 8월 30일까지 기한에 신청한 사찰은 절반을 밑돌았다. 포교원은 다시 9월까지 신청기한을 연기했지만, 수치의 변동은 없었다. 현재 재인가를 신청한 사찰은 85곳 중 47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상황이 이쯤되니 포교원은 재인가 신청 기한을 10월까지 다시 연장했다.

전법중심도량은 활동이 활발한 사찰을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포교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본지 취재 결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종단 권유로 신청하고 매번 재인가 때마다 난처함을 겪거나, 사찰에 도움도 안되지만 종단에 대한 사명감으로 재인가를 하는 사찰도 있었다.

전법중심도량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워지는 것도 아니다. 교보재와 예산 지원, 간판 게시 정도다. 현장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연령, 지역, 사찰별 특징을 감안한 포교 지원과 컨설팅이다.

뚜렷한 포교 효과도 없고, 현장 불만도 많으며, 관심마저 없다면 전법중심도량 제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매년 재인가율을 유지하며 이를 포교원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행정식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포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모범 선행 사례를 발굴하고 모델화 해 다른 현장에 적용시켜야 한다. 포교는 '현장이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제 2차, 각성 큰스님 초청
불교의식 원문 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제 1차 불교의식 강좌에 성원하여 주신 제방의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2차 강좌는 시다림, 다비의식, 천도재 원문 강의를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 20일(목) 오후 4시 (1박 2일)
장 소 : 고운사 화엄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대 상 : 종단 관계 없이 모든 스님
교 육 비 : 1차 참석하신분은 15만원 / 2차 참석하실분은 20만원 (숙식, 교재비)
입금계좌 : 농협 351-0897-4684-23 [예금주 : 이재현(용하스님)]
문 의 : 고운사 종무소 (054) 833-2324
동훈스님 010-2746-0088 해관스님 010-8855-0048
용하스님 010-5497-8018 화암스님 010-5348-4046
도행스님 010-3520-9350

주 최 | 제 16교구 고운사 주 관 | 통화불교 전강원 문하생

통화불교 전강원 제 3기 회장 동훈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깨달음 공개강좌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 강좌 (선착순33명 제한)
  예약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출입할수 없습니다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과거의 안목으로 고통을 만들어 왔고
현재도 안목이 진귀와는 다르며
앞으로 또 다른 안목의 고통멘토가
궁금하다면...?

※ 공개강좌 일정

〈2016년〉

1차 공개강좌 : 주제 : 암은 깨달음과 무슨관계인가?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3시

2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 해탈문
일시 : 2016년 8월31일 수요일 오후 3시

3차 공개강좌 : 주제:법화경과 깨달음
일시: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업(業)과의 전쟁
일시: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2시

〈2017년〉

5차 공개강좌 : 주제 : 입법계품의 지혜
일시 : 2017년 1월15일 일요일 오후2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살과 깨달음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유와 평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선(禪)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53 선지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달마와 원효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13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센터의 수행법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4차 공개강좌 : 주제 : 암과 사리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5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왜 오는가?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비와 사랑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참고 : 각 회차별 공개강좌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귀(眞歸)방장 과의 친견 ?

1. 진귀는 불가사의한 수행자로서 대다수 범부들의 안목인 종교,종단, 문중, 학력, 등등 유위적 분별심으로는 진귀 방장의 가치와 수행경계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오며 더욱이 이 세상의 기존 수행법들의 식견(識見)과 지견(知見)로는 믿고 받아 지니기가 어렵고 어려움이 백천만겁난조우의 비유와 같은 수행자 이다.
2. 2016년 현재, 진귀방장께서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및 선수행 등등을 일체 애써 수행치 않으면서도 늘 평온함이 물러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깨달음논강〉과 붓다의 깨달음 세계의 〈창조적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과 취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 배(10,000배 : 1:1 친견시만 해당됩니다.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 후 만 배 확인증을 제출하신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센터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NAVER 깨달음센터 검색

“으아! 나눔 별거 있나 일단 한번 들이댑시다”

김주일 부장의 데스크초대석

김흥국(58 · 대한가수협회 회장)



“아! 응애에요” “으아” “들이대” 오래 전, 한 시대를 풍미한 이 유행어의 주인은 개그맨이나 배우가 아닌 가수다. 세월이 흐른 요즘 사람들은 그를 ‘흥궈신’ ‘예능 치트키’로 부른다. 예능 프로그램 곳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웃음 코드로 대한민국을 웃게 하는 그는 ‘호랑나비’의 김흥국이다. 하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은 방송만이 아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등 말없이 많은 이타행을 해오고 있다. 그가 선사하는 진정한 웃음은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다. 늘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살아가는 호랑나비 김흥국이 날아온 길을 따라가 본다.

제2의 전성기, 김흥국에서 흥궈신으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 … 호랑나비야 날아봐~ ♬”

1989년, 한국가요사에 전무후무한 곡이 등장한다. 그 노래는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김흥국의 ‘호랑나비’이다. 노래도 가수도 다른 별에서 왔다. 한 마디로 무지하게 웃겼다. 노래도 웃겼고, 가수는 더 웃겼다. 그런 노래가 없었고 그런 춤이 없었다. 가사엔 호랑나비만 나온다. 그리고 콧수염을 기른 가수(김흥국)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춤을 춘다. 대한민국은 노래 하나로 매일 웃었다. ‘호랑나비’는 그해 10월 KBS 가요톱10에서 1위에 올랐고 MBC 10대 가수상도 받았다.

‘호랑나비’는 국민가요가 됐고, 김흥국은 국민가수가 됐다. ‘호랑나비’의 히트로 가수 김흥국은 음악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김흥국이 나오면 무조건 웃겼다. 독특한 억양과 어법, 익살스러운 표정, 어설프지만 준비된 것과는 다른 ‘김흥국’표 웃음에 사람들은 끌렸다. 노래로 시작된 웃음이 입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래하는 가수가 사람들을 웃겼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이다. 웬만하면 잊혔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김흥국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어느 순간 또 다시 그 옛날 그때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 옛날의 김흥국이 들어와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방송의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엔 그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아니, 중심에 서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개그맨, 아이돌, 배우 등 시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들 사이에 늘 그가 함께 있다. 육십을 바라보는 그가 이제는 흥궈신(중국어에서 ‘국’을 ‘궈’로 발음하는 것에서 착안한 ‘흥궈’와 ‘신(神)’의 합성어), ‘예능 치트키(컴퓨터 게임을 쉽게 풀기 위한 프로그램)’로 불리며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웃기고 있다.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면 그 삶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웃음’일 것이다. 하지만 ‘웃음’의 삶을 살고 있는 가수 김흥국의 삶에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남을 웃기기까지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웃지 못했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긴 무명의 세월이 있었다.

길었던 무명 세월

‘호랑나비’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김흥국이지만 그 시절을 맞기까지 그에겐 힘든 세월이 있었다. 그는 1959년 서울 번동에서 육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농사를 짓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달리했다. 어머니 혼자서 육남매를 키워야 했다. 집안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소년 김흥국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할 만큼 축구를 좋아했다. 축구부 한 달 회비가 6천 원. 김흥국은 축구를 계속할 수 없었다.

“홀로 서야했죠.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었죠. 그 길로 집을 나와 안 해 본 것 없이 여러 일을 했어요.”

소년 김흥국은 서라벌중학교와 서라벌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축구 대신 밴드부에 들어 음악을 시작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했고, 해병대를 제대한 후 부대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함께 ‘오대장성’이라는 밴드를 결성한다. 그는 밴드에서 드럼을 쳤고 나중엔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밴드 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쉽지 않은 세계였다. 그는 밴드 생활을 접고 1985년 ‘창백한 꽃잎’이 담긴 앨범을 발표하면서 솔로로 데뷔한다. 하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8년 MBC 다큐멘터리 ‘인간시대-정아의 겨울일기’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면서부터다. 가족처럼 지내던 선배의 딸 정아(당시 중3년)가 불치의 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김흥국은 정아의 병실을 찾아 정아에게 노래를 불러줬다. 가난한 가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파를 타게 됐고 화제가 된 것이다.

‘호랑나비’로 크게 날다
1989년 각종 가수상 휩쓸어
노래로 시작된 웃음 입담까지

무명시절부터 나눔행 펼쳐
1988년 선배딸 정아 돕기 나서
MBC다큐 인간시대에 소개돼

하지만 그것 역시 가수 김흥국을 세상에 각인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얼마 후 듀오 ‘배따라기’의 리더였던 이혜민으로부터 곡을 한 곡 받게 된다. ‘호랑나비’다. 김흥국은 기나긴 무명의 세월을 끝내고 전 국민이 알아보는 스타가 된다.

무주상보시…김흥국장학재단 설립

여기저기서 김흥국을 찾았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김흥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흥국은 굳이 간직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거울로 삼았다.

“제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축구를 접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분명 지금도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낙산사 홍련암에서 예불을 모시고 나서 발심했죠. 힘든 유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고.”

B2면에 계속

INSIDE

B3~5 新 불교콘텐츠, 우리가 연다
무아·핑크붓다·만만한 뉴스 등

B7~9 통일불사의 시작, 탈북민 포교
탈북불자가 전하는 바람

김흥국 회장은?



예능서 종횡무진 활약
삶의 키워드는 '긍정'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8년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산업관리자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호랑나비' 발표 후 '내게 사랑이 오면' '레게파티' '성공시대' '무정' '불타는 사랑' '친구' '으아!' '사나이 가는 길' '앗싸 월드컵' '형광나방 한 마리가' '불타는 금요일' 등의 앨범을 발표했다. 1989년 MBC 10대 가수상,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골든디스크 인기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제2 전성기 호랑나비…"무주상보시, 그것이 '극락'"



2000년 11월 설립한 김흥국 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장학금 수여식후 수혜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웃고있는 김흥국 회장.(사진 윗줄 왼쪽 첫번째)

'김흥국 회장' B1면에서 계속

2000년, 그는 김흥국장학재단을 설립한다. 그는 자신이 마련한 기금으로 매년 전국의 초등학생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2007년에는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기금 마련' 디너쇼를 열어 수익금 500만원 전액을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그 밖에도 많은 보시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가정결연사업 행사에 동참하고, 뇌성마비 축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한동안 불자가수회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무명시절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형편도 달라졌고 공인이 되었으니 그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부터 남을 돕는 일에 남달랐던 그의 이타행은 '무주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한 학생들과도 기념행사 하나 열지 않았다. 오히려 수혜자들이 모임을 청해올 정도다. 하지만 그는 그런 행사를 여는 순간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다며 행사를 열지 않았고, 외부의 후원도 받지 않았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엷은 미소를 볼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그 기분은 해 본 사람만이 알죠. 그게 바로 '극락'이에요."

왜 보시를 하는지 묻자 그는 그렇게 답했다.

'김흥국' 표 웃음 히트

"이승만 어린이가 그랬죠. '공산당이 싫어요'"

"붓통에 목화씨 들여온 사람 있죠. 문익환"

"아, 성격 차이였나요? (남편과 사별했다는 라디오 청취자에게)"

김흥국의 웃음에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다. 실수이든 계산된 것이든 결과적으로 관객은 그의 잘못된 문장으로 인해 웃을 때가 많은데, 그것이 '비호감'이거나 '모자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고 궁리하지 않는다. 그냥 솔직담백하게 망가진다. 자신이 망가져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다.

또한 럭비공처럼 방향성 없이 튀어나오는 예측불허의 단어가 관객의 웃음보를 건드리는 것이다. 아울러 타고난 익살스러운 표정은 또 하나의 무기이다. 부담 없는 그의 표정은 보는 이를 김흥국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예능에 있어서는 바야흐로 김흥국의 시대다. 가수가 본업인 그가 이 어렵고 건조한 시대를 웃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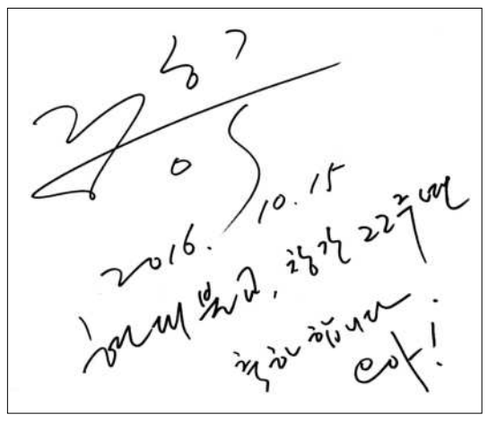
그것은 아마도 솔직함과 겸손함이 아닐까. 대부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손질하고 포장하여 내놓는 시대에 가수 김흥국은 이승복을 거침없이 이승만이라고 던지고, 문익점을 문익환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어버린다. 김흥국의 웃음은 1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것이 '김흥국' 표 웃음이 아닐까.

김흥국장학재단 만들다

올해로 17년째 저소득층 자녀 후원
무주상 이타행 원칙 철저히 지켜
개인이나 회사 등 외부 후원 안받아

김흥국과 불교의 만남

모정불심서 비롯… 항상 손목엔 단주
오늘의 김흥국 있게한 큰힘은 '불교'
최근 봉정암 참배후 제2 전성기 맞아



어머니 손잡고 불연 맺어

얼마 전, 그는 SBS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건모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가졌다. 그는 그 무대에서 드럼을 치며 김건모와 함께 '59년 왕십리'를 불렀다. 처음 보는 현란한 그의 몸짓에 관객과 시청자들은 모두 놀랐다. 그렇게 현란하게 드럼을 연주하는 그의 손목엔 붉은색 염주가 걸려있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그 붉은색 염주를 차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얼마 전 돌아가신 모친의 당부에서 시작된 염주였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에게 설악산 봉정암에 꼭 한 번 다녀올 것을 당부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얼마 전에 봉정암엘 다녀왔고 지금 손에 걸고 있는 염주는 봉정암에서 온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늘 손목에 찬다고 했다.

"어려서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가곤 했죠. 멋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고 어머니가 왜 절에 다니시는지 잘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고, 그 멋도 모르고 다닌 시절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마당을 걷고, 종소리 듣고, 스님이랑 얘기하고, 절밥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저를 그렇게 자라게 했고, 훗날 힘든 시절을 견디게 했던 것 같아요. 꼭 경전 독파하고 참선하는 일만이 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멋모르고 그냥 절에 가서 실컷 앉았다 오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시절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으니까요."

가수 김흥국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엘 다녔다. 가수 김흥국이 힘든 유년 시절을 이겨낸 것도, 긴 무명의 세월을 견디고 스타가 된 것도,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모두 그 멋모르던 시절의 힘에서 온 것이었다.

"인기는 거품과 같은 것"

그는 2015년 10월 7일 대한가수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대한민국 가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회장직을 맡았다고 했다.

"지금도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이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후배 가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 소외된 원로 가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뭉치면 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인기라는 거품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그들이 좀 더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회장직에 임했습니다."

밝은 웃음과 무주상의 이타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이다. 일초의 웃음과 한 사람의 이타행이 이 다급하고 메마른 시대를 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도 웃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웃음을 들이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들이대는 호랑나비 김흥국의 날개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날아오르길 바란다.

사진=박재완 작가

佛紀 2560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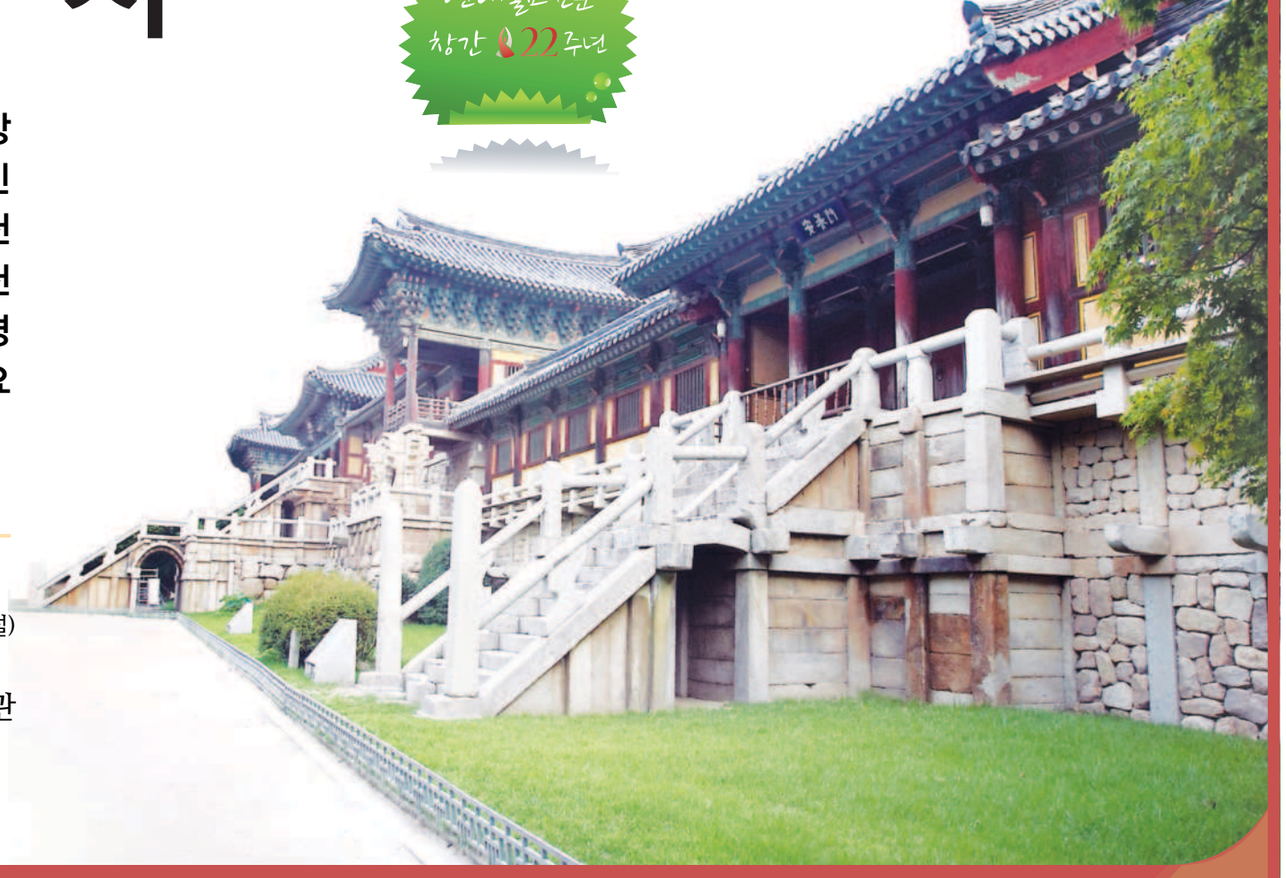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종천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호 법	성담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중일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불교창업벤처 '무아'의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담은 노트북을 보며 즐겁게 토론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보람, 전영우, 김동훈, 박찬현, 김아나 씨.

'불교'야 놀자… 청년 '불교덕후' 무아지경

새로운 콘텐츠의 시대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온라인 매체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아우른다. 이런 맥락에서 수천 년 역사를 지닌 불교야말로 최고의 문화콘텐츠로 꼽힌다. 과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심산유곡 절에서, 스님들을 만나야 접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핸드폰,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불교 경전은 물론 사찰 설화, 고승들의 수행담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영화, 출판, 모바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선 타종교에 비하면 불교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시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불교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너무나 좋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에 못지 않게 활동하는 노령 불자들, 이들의 활동을 전한다.

〈편집자 주〉



불교창업벤처 '무아'

젊은이들의 '불교 가지고 놀기'가 심상치 않다. 바로 '젊은 불교콘텐츠를 만드는 청년벤처, 무아'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시 중구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는 창업 동아리들이 모여 있다. 그 중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쌓여 있는 곳이 무아의 보금자리다.

'무아'는 6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만들었다. 무아는 영상의 박찬현, 디자인의 김보람, 마케팅의 전영우, 김동훈, 기획의 김민석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콘텐츠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제각각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궁금해졌다. 공동창업자 김아나 씨(24)는 무아 결성 계기를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재학 중 2년 간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어린이법회 교육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때 불교계에는 교육콘텐츠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교구재'를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고 학교 친구들과 지난해 12월 무아를 창업했습니다. 동국대 창업휴학제도의 도움을 받아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전영우 씨(26)는 "법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교구의 인기가 많은 것에 착안해 사경 · 사불 스크래치 키트를 만들었다. 검은 먹지에 선을 따라 그으면 경구나 불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글반야심경과 불화를 스크래치 기법으로 따라 그릴 수 있게 한 '마인드래치'는 구매욕을 자극했다. '지름신'을 불러일으키는 불교 콘텐츠 용품들을 보고 있자니 이들의 성공이 눈앞에 그려졌다. 이들의 발걸음은 교구재 제작에만 머물지 않았다. '무아'는 유튜브에 건봉사 템플스테이 체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영상제작에도 나섰다.

"산짐승이 출몰할 수 있으니 해가 진 다음에는 숙소에서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죽지는 않음'이란 자막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템플스테이 내레이션은 인기였다. 이 영상제작은 박찬현 씨(22)가 담당했다. 청소년영화제서 수상하기도 한 박 씨는 한국화를 전공했음에도 자신의 재능을 뽐냈다.

불교 교구재 제작 목적, 지난해 12월 창업
영상도 제작… 캐릭터 상품 출시 '눈길'
'yes! 서울 크라우드 펀딩 대회'서 우승도

"불교 대표 콘텐츠가 템플스테이잖아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템플스테이'를 검색하면 종단이나 정부서 배포하는 재미없는 홍보영상만 있더라구요. 고리타분한 영상에서 벗어나 재미가 있는 영상이 없을까 고민했죠. 요즘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처럼 예능같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영우 씨는 "영상을 통해 무아를 알리면 어린이용 교구나 가방, 필통 등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홍보되리라 생각했다"며 "템플스테이 영상 중간에 제작한 상품들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런 새내기 벤처사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팀원들은 불교계에 현대적 감각을 펼치는데 낯설음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사실 처음엔 우려도 많았어요. 저희 멋대로 콘텐츠를 만들면 스님들이 싫어할 거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힘든 삶에 애정을 품을 수 있는 마음수행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김아나 씨는 사회를 위로하고 힐링하는 큰 목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무아는 본격적인 도전의 여정에 나선다. 9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yes! 서울 크라우드펀딩 대회'서 우승을 한 이후 10월부터 교구재 제작을 위한 크라우딩 펀딩에 들어간 상태다. 제작된 교구재는 네이버 스토어 팜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11월에는 8박 10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서 열리는 '해커톤 대회'서 '무아'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해커톤 대회는 순수한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핵(Hack)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종의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다.

"'불교'를 내세웠기에 다른 팀을 제치고 뽑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한국불교의 현대화에 집중할 겁니다. '불교'라는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도전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보다는 패기와 기대감이 넘치는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뛴다. 불교에 무아지경으로 몰입한 젊은이들의 다음 행보가 무척 기대된다. **노덕현 · 이승희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

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사부대중일동



부설 사회복지법인수덕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 수덕사노인요양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 불교대학 승가대학

wwww.sudeoksa.com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전화 041)330-7700 | 팩스 041)330-7702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

대한불교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불교미술 아티스트그룹 '핑크붓다'

"핑크색처럼 톡톡 튀는 불교로"

2012년 작가 6명서 결성
'불교의 현대적 해석' 모토
음향 미술 등 예술 총망라
국제전시회 참가가 목표

화려하고 대담함, 활기를 의미하는 '핑크'. 금빛이 아닌 핑크빛 부처님은 말 그대로 진취적인 불자를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의 행보는 과감하고 도전적이다.

"보통 부처님과 핑크색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또한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불교는 이런 것이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

2012년 결성된 '핑크붓다'는 지금까지 6번의 전시를 진행해왔다. 서울대병원에서 환우들의 소원을 담은 핑크색 쪽지로 작품을 만든 '꿈을 붓다' 전, 뱀의 탈피와 불교예술의 미래를 표현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 전 등은 화제를 모았다.

불교를 재해석한 전시를 위해 프로젝트마다 설치미술, 음향 전문가 등이 합류하는 것이 핑크붓다만의 특징이다. 각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참여하는 멤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중심에는 핑크붓다 대표인 조수연 대표(38)가 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나온 조 대표는 2002년 개인전을 준비하며 미술계에서 불교미술이 소외 받는 것을 보고 울분을 느꼈다.

"'불교미술'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종교미술이란 굴레를 씌우고, 불교계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하더군요. 불교계 안쪽으로 보면 전통의 재현에만 갇혀 있었다고 봅니다. '과감히 현대화 작업을 해보자', '일반인들에게도 불교가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리자' 고 생각했죠."

프랑스 유학 후 귀국한 조 대표는 프랑스에서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는 이명아 씨와 전통가구 전문가 이정은 씨, 동양화 전공 전경희 씨, 서양화 전공 정윤영 씨, 대중미술 전문가 허효진 씨 등을 하나 하나 포섭했다. 여기에 객원으로 음향전문가 정금률 씨도 참여했다.

핑크붓다는 예배의 대상이나 교화 수단으로써의 불교미술을 벗어나고자 한다.

"불교가 발생하고 발전하며 초기 가르침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아 현재의 불교는 그 형식을 추앙하며 좇고 있습니다. 불교는 대중을 수용하며 불교 정신을 알려야 해요. 종교라는 무거운 주제로 대중이 다가서기 어려운 권위적인 불교가 아닌 친숙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시로 한국에 이런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핑크붓다 작가들은 "이런 우리의 활동이 불교미술을 선양해 작가들이 작품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로 향한 핑크붓다의 모습에서 전법에 나선 부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친다. **노덕현 기자**



핑크붓다 회원들이 불교미술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경희 씨, 조수연 대표, 정금률 씨.



서울대병원서 열린 '꿈을 쌓다展'에서 드림 페이퍼를 탑에 부착하는 환우들의 모습.

"시니어 불자 NO, 디지털 불자라 불러주오"

100만 파워블로거 '이기룡 씨'

일간지 사진기자 은퇴 후
봉은사서 깊은 감동, 발심
불교행사 소회 블로그에
콘텐츠 가공 필요성 강조

인터넷 등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어르신들을 칭하는 신조어 '디지털 시니어'. 이기룡 씨는 최근 가장 잘 나가는 '디지털 시니어' 중 한 명이다. 일흔의 나이에도 매일 불교계 행사 현장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이 씨의 열정과 의욕은 젊은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 씨에게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젊은 시절 언론사 사진기자로 활동했던 이 씨는 2011년 2월 퇴직 후 네이버 블로그 '바람의 언덕, 길 위의 풍경'(blog.naver.com/gainnal0171)을 운영하고 있다. 이 씨가 블로그를 개설한 것은 퇴직을 앞둔 2011년 1월이다. 30년이 넘은 사진기자 활동을 마치며 제2의 인생을 기획하면서부터였다.

개설 후 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씨의 블로그를 다녀간 누적 방문객은 100만 명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꾸준히 다녀갔다는 얘기다. 그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다.

이 씨의 블로그에는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누비며 본 신행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있다. 최근에는 관심분야가 확대돼 다양한 풍경과 명시 읽기, 문화예술에 대한 리뷰도 소개하고 있다.

그 시작은 2010년 아내가 다니던 봉은사를 우연히 방문하면서부터다. 이 씨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사찰에 오니 마음이 편했다. 법당에 걸린 주련의 내용이 모두 내 얘기였다"며 말을 풀어냈다.

"기자로 일할 때는 불교에 대해 좋은 일은 접하는 것이 드물었어요. 막상 알고 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짧은 법문 문구 하나 하나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블로그에 불교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한 계기죠."

이 씨가 블로그를 가꾸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상상 이상이다. 단순히 어느 사찰의 행사가 어떻고 하는 식의 글이 아니다. KBS와 JTBC 등 주요방송에 나오는 불교 관련 내용을 비롯해 생활 곳곳에서 접하는 불교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실었다.

"블로거로서 젊은 사람들이라면 20분이면 될 일을 하나 하려면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4~5시간 걸린 일을 키를 잘못 눌러 몽땅 날아가 하루 종일 매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도 블로그에 정성을 들이니 애착이 갑니다."

이 씨는 현재 파워블로거 활동과 함께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부 홍보담당 역할과 봉은사 시민기자단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 쉬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동반주 봉사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돕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함께 해왔다.

이 씨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던 불교의 매력을 나이가 드니 알게 된다. 이제 3000배 등 신행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부처님의 경전 내용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다른 시니어 불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내가 어디서 뭘 했었는데' 하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과 소외되죠. '하심'으로 함께 어울려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씨는 불교를 새로운 콘텐츠로 가공해 전하는 일에도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아직 불교계에는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구요.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금강경 얘기 해봐야 알아 듣는 사람 몇 없어요. 주변의 불교 요소 하나 하나를 요즘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관심을 가지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덕현 기자**



이기룡 씨의 블로그 '바람의 언덕, 길 위의 풍경'



이기룡 씨가 그의 또 다른 눈이 되고 있는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거산 운문사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장 명 성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 진
운문사 주지 진 광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www.samkwangsa.or.kr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삼광사 주지 김 무 원 스님 외 사부대중 일동 합장-

천태종삼광사 신도회 창립 47주년 기념대법회
• 2016년 11월 1일 오전 10시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 영산재 : 2016년 11월 18일 (음. 10월 19일)
• 수륙재 : 2016년 11월 19일 (음. 10월 20일)
• 예수재 및 회향 : 11월 20일 (음. 10월 21일)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051)808-7111~6 F.(051)803-1332

불교카투니스트
'만만한 뉴스'

"불교를 재밌게… Cartoon이 주는 매력이죠"

불교박람회서 만나 의기투합
최초 불교만화 플랫폼 개설
각자 작업 바빠 현재 휴식기
불교 철학 바탕한 작업 '꾸준'

웹툰은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한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현재 시장 규모만 2300억 원에 달한다. 웹툰 작가는 이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스타가 됐다. 불교계도 아주 미약하지만, 만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초의 불교만화 플랫폼 '만만한 뉴스'를 이끌고 있는 '만만 브라더스(지찬 스님 · 배종훈 · 양경수 · 김동범)'가 있다.

'만만한 뉴스'는 만화로 쉽게 선(禪)을 전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4년 만들어졌다. 4명의 작가가 만날 수 있던 계기는 '2014불교박람회'에서 열린 불교만화초대기획전 '만화로 만화(卍話)하다'였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지찬 스님, 배종훈, 양경수 작가는 곧바로 의기투합했고, 지찬 스님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동범 카툰 작가를 섭외했다.

"처음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김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불교 만화를 잘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어서 '만만한 뉴스'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김동범 작가는 작품이 불교철학과 맞닿아 있어서 섭외했죠."(지찬 스님)

"만만한 뉴스에 들어온 것은 지찬 스님의 추천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저의 그림이 불교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힘이 됐어요.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불자여서 불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구요."(김동범)

불교를 재미있게, 쉽게 전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작품 세계는 다르다. 지찬 스님은 오너캐(오너와 캐릭터의 합성어. 작가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를 의미함) '어라 스님'를 통해 일상의 깨달음을 전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불교만화를 그린 배종훈 작가는 4컷만화 형식으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김동범 작가는 한 컷을 통한 의미 전달력이 돋보이는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양경수 작가는 부처님을 클럽DJ로 10대 제자를 히어로로 변신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4명의 작가 모두 자기의 일상적 경험과 소재를 통해 불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당시에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은 요즘 말로 셀럽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에게 센세이션한 가르침을 전했고, 제자들은 각자마다 특출한 능력이 있었죠. 저는 이들을 '히어로'라고 생각했어요."(양경수)

"불교 경전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 현상에서 소재를 찾죠.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메모해요."(배종훈)

만만한 뉴스 창간이후 작가들은 사찰과 불교 관련 기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연재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작가로서 자기 발전도 이뤘다. 양경수 작가는 현재 '약치기 그림'으로 이 시대 소시민들에게 약을 치고 있다. B급 정서가 충만한 '약치기 그림'은 현실에 대한 비틀기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구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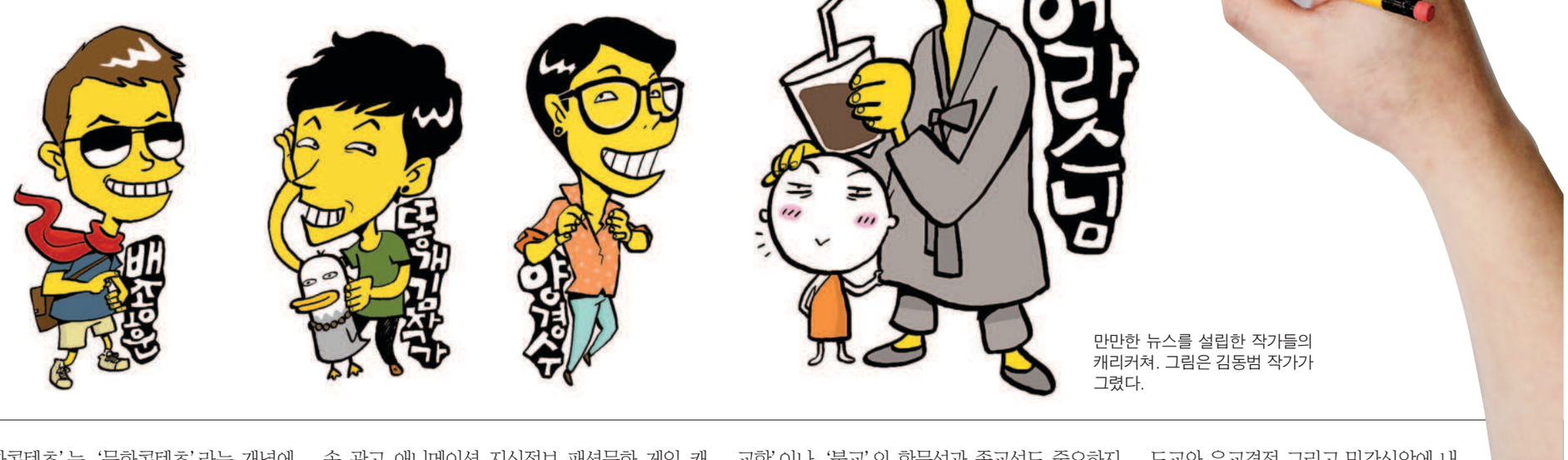
지찬 스님의 오너캐 '어라 스님'은 서주 스님의 동자승 '다워니'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책으로도 출판됐고, 이모티콘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2000년 초반부터 꾸준하게 불교 만화를 그리고 있는 배종훈 작가는 본지 연재를 비롯해 드로잉 수업, 개인 출판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동범 작가도 강의와 두 번째 여행포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 · 진행 중이다.

만만브라더스의 작가들은 불교 만화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창작 보장과 꾸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화라는 문화콘텐츠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포교에도 도움될 부분이 많아요. 불교계 차원의 불교만화 전문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김동범) "저는 불교 철학을 녹이는 작품을 많이 하려 합니다. '이것이 불교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양경수)

신성민 기자



만만한 뉴스를 설립한 작가들의 캐리커쳐. 그림은 김동범 작가가 그렸다.

불교콘텐츠 발전 제언

"고정관념 버려야 불교 산다"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불교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에 '불교'가 더해져서 생긴 용어이다. 불교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이 최종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수용하는 대상(소비자)과 생산 주체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어떻게 하면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되게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불교계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의 전반적인 과제로 확대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의 소재를 찾아서 전 세계를 탐색하는 미국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강국들의 사례를 보면,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특정 종교와 지역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불교문화를 상품화 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공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콘텐츠산업백서〉의 기준에 의한 콘텐츠의 장르(2012년 기준)는 "영화, 음악, 출판,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패션문화, 게임, 캐릭터, 만화"로 규정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장르에 부합되는 소재를 불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불교문화에 대한 전승이나 보존에 치우쳤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이 없이 기존의 불교문화를 답습하거나 복원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전통사찰에 함의된 '불상, 불화, 종, 북, 운판, 목어, 석탑, 전각, 기단' 등과 '염불, 제의, 춤, 음악' 등의 종교의례는 불교문화로의 원형성을 지니고 있다. 사찰에 내재된 문화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새로운 창작물이 없다면 과거에 치우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머물고 말 것이다. 원형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답습과 전승도 중요하지만 이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불교학'이나 '불교'의 학문성과 종교성도 중요하지만 변용의 자유를 통한 문화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원형에 너무 치우치면 이는 학문이 된다.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팩트를 두고 진실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좌우하기도 하고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기도 한다. 상상력은 어떤 원형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창작물들은 새롭고 신선함으로 종교적 신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불교문화의 원형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멀티-유즈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양의 문화콘텐츠가 그리스 ·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열린 세계의 신화와 결부시켜 재구성한 것처럼, 불교문화의 경우도 불경을 비롯해서 불교적인 요소가 습합되어 있는 도교와 유교경전 그리고 민간신앙에 내재된 원형적인 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물인터넷이나 빅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불교적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불교와 신 과학기술과의 통섭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부합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지닌 특수성을 사회일반의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보편성 속에 녹아들게 하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좁은 범주에서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특수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불교적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기가 불교의 기본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파워블로그 사용자, 웹투니스트, 신개념의 불교예술가, 청년벤처사업가, 만화가, 게임제작자 등 불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 을 축하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 시작되는 나눔의 기쁨,
그 아름다운 길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세요"
희망의씨앗
장기기증희망등록문의:02-734-8050
ARS후원:060-703-1133(한통화5천원)
홈페이지주소:http://www.lisa.or.kr
*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지정 장기기증 교육 및 홍보 전문기관입니다.
· 장기기증희망등록사업 · 조혈모세포희망등록사업 · 환자치료비지원사업 · 자살예방 힐링사업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귀중한 아호



아호 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호 설명서 첨부

신생아 작명



작명 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작명 설명서 첨부

★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

아호

법호 鏡虛(경허)	宋東旭(송동욱)	佛 대 선사
峨山(아산)	鄭周永(정주영)	前 현대그룹 총수
湖巖(호암)	李秉喆(이병철)	前 삼성그룹 총수
巨山(거산)	金泳三(김영삼)	前 대통령님

아호는 人生 삶에 바른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과도 같아서
훌륭한 사람들은 이름외 따로 아호나, 법호가 있다.
본 연구소에서 신생아 작명과 아호를 받은 동자 신준원은
스리랑카 대통령님이 안아주시는 영광을 받았다.〈사진 참조〉

인생 삶에 내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지혜롭게 아호나 법호를 받아
이 참된 도리를 깨우쳐 활동하게 할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인생 삶도 나를 어찌 하겠는가? 권세있고 재물이 많아도 人生 삶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잘될것을 구하려 하십니까?
아호는 결혼하는 예비 신부측에서 배우자가 될 예비 신랑의 사주단자를 풀어서 미리 알고
결혼하면 백년해로에 꼭 필요한 아호를 권장합니다.

♣ 자식이 귀중하니 귀중한 아호를 권합니다.

★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아기를 키우실때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환경을 맞추면
부모는 좋지만 체질이 다른 신생아는 아직 의사표시가 어려워 울며 고통스러워 할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작명은 평생같이 할 동반자이다.
동반자를 함부로 만나면 안된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이름을 함부로 지어준 부모는 천하에 무궁한데
작명의 이치를 알고 지은 부모는 능히 몇이나 되겠는가?
평생 쓰는 자기이름 뜻도 모르고 산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잘될것을 구하려 하겠는가?

법사 방필석 대내외 활동

-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받아감)
- 스리랑카 대통령님 각 4회 초청 방문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작명과 아호를 신청한 분은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낭독한
친필 메시지와 친필싸인(복사본)과 법사 방필석이 직접 촬영한 달라이라마 사진을 드립니다.



선행을 하는 법사 방필석과 스리랑카 대통령님.(2015. 8. 24.)
남을 위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는 일이다.



좌로부터 법사 방필석, 본 연구소에서 신생아 작명, 아호 받은 동자 신준원을
안아주시는 스리랑카 대통령님.(2015. 8. 24.)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8-5577, 팩스 02)738-2046

농협 : 053-02-155-065(예금주 : 방필석)

국 내외 우편 발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필석

佛法 아래 작은 통일 〈1〉 탈북민불자가 전하는 소박한 바람

"돈이요? 필요한 건 情이에요"

'그래, 저기만 건너면 된다.'

고작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다리가 달달 떨렸다. 두만강. 남한에서는 그저 고향을 그리는 노랫말의 일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약 20년 전,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녀였던 나에게 눈앞의 두만강은 생사(生死)의 경계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 벽을 넘고자 마음먹고 왔지만 문득 강을 건너다 죽어나간 이들의 소식이 떠올라 두려워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두려움이라는 족쇄는 점차 발목을 조여 왔다.

'에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족쇄가 다 채워지기 전에 냅다 뛰었다. 어느 초소의 총부리가 등을 겨누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무의미했다.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신발이 벗겨지고 강 속 돌부리에 발가락을 찧었을 땐 정신이 아득했다. 그래도 살려는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 둔치에 손이 닿았다.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둔치에 올라 황망한 가슴을 쓸어내리자 발가락에서부터 통증이 밀려왔다.

'아바이…. 내레 피난 왔시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생각났다. 가슴팍에 훈장 달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당에 모든 걸 바친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역적질을 한 반역자'라는 멍에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떠나라고 했다. 먼발치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공개처형식을 지켜본 뒤 함경도 꼭대기를 넘었다.

나는 두만강 연선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달렸다. 다행히 택시기사가 조선족이었다. 내 행색을 본 기사는 이해한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다. 강물에 젖은 돈을 건네고 내린 곳은 한 여관이었다. 그곳에서 며칠 묵고 연길 시가지로 나갔다. 연길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인근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기에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 남자와 친해져 동거를 하게 됐다.

10년쯤 지났을까. 애는 낳지 않았지만 동거남과 이별했다. 불법월경자인 나의 신분적 한계는 분명했고, 그 남자 역시 순탄치 못한 생활에 지쳤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에 가기 위해 준비했다. 한국에 들어간 다른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선망했다. 1년쯤 지나 브로커를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힘들게 모은 돈을 건네주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림 · 강병호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하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삶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오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딱히 종교가 있던 건 아니지만 나는 이곳에서 불교를 택했다.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냥 중국에서 커다란 절에 갔을 때 느꼈던 웅장함 때문이었다.

生死 경계 목숨걸고 넘어
우여곡절 끝 국내 안착
불교 만나 사회적응 원활

매주 일요일, 하나원 법당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과 생필품을 항상 선물로 가져다줬다.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이 들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걸까? 가진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인가?'

그때만 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다니…. 얼마나 많은 걸 가져야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한 봉사자에게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놓았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내 옹졸함을 무너뜨리는 철퇴가 됐다.

"많이 가져야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매달리면 나중에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기도 어렵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도 나눌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는 일, 그게 보시고 불교의 첫걸음이죠."

생각이 많아지는 대답이었다. 나는 과연 이걸 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궁금해졌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다.

하나원에 몇 달 머물면서 나는 불교를 통해 가정체험과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사회적응의 일환이기도 한 가정체험은 천안에 거주하는 어느 불자 노부부댁에서 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대인관계가 그리 넓지 않았던 나는 모르는 사람과의 첫 대면에 큰 불편을 느끼는 편이다. 그런데 이분들에겐 그런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인연 따라 이곳까지 왔으니 이제는 쉬어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말이에요."

가정체험 첫날밤을 어르신들과 눈물로 지새웠다.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다면 무척 행복하겠다는 꿈을 꿔봤다. 나는 이 집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템플스테이 때는 가정체험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었다. 바로 하나원에서 봉사자들의 친절을 접하며 가졌던 궁금증에 대한 답이었다. 108배를 하고 포행을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질 즘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요즘 받고만 삽니다. 제가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부처님께 절 올리다보면
이유 없이 눈물 쏟아져
탈북민 편견 걱정 '가득'

스님은 말없이 빙긋 웃었다. 그리곤 몇 걸음 더 걸었을 때 스님이 입을 열었다.

"받아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 지금까지 나는 어리석은 고민만 하고 있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더 나은 길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다짐했다. 받은 만큼 잘 일어서 나 역시도 나누겠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1박2일간의 템플스테이는 온갖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소중한 기회였다.

하나원을 수료한 뒤 나는 빠른 속도로 한국사회에 적응했다. 컴퓨터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면접을 통과했을 때는 세상 무엇보다 뿌듯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다짐을 하나씩 지켜나갔다.

하나원 법당을 찾아 봉사하는 분들에게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전해드렸다. 그분들은 극구 사양했지만 나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다. 그것이 나를 더 당당하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얼마 뒤, 그 돈으로 떡을 해서 하나원 법당에 잘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즐거웠다. 그 이후로는 사찰에 보시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잘 생활하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견뎌내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걸 느꼈다. 하나원에서처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할 사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저 하나원에 있을 때 인연이 닿은 몇몇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다.

그래서 외롭고 마음이 복잡해질 땐 집에서 가까운 사찰을 찾아갔다.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다보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마음 터놓을 곳 없어 법당에 홀로 앉아있으면 한결 편안해졌다. 다만 그 절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일은 만들지 않았다. 탈북민이라는 굴레가 어떤 편견으로 작용할지 두려웠던 것이다. 부처님의 절절한 가르침도 배우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절이 있을까?

내가 탈북민이란 걸 새롭게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생활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나를 위한 걱정이란 건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 마음 씀씀이에 감사하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다. 어차피 재정적 자립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응이 아닌 의존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만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 즉 사람냄새를 맡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로 함께 벽을 낮출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민 불자들은 그 장소가 법당이길 서원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위 내용은 탈북민불자들과 나눈 대화를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성명과 나이 등은 제외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명리학, 성명학 교육원 수강생 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 용신, 격국에 대한 중점 강의
010-3711-5072
▷수시접수가능◁
교육원장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필요한가

“탈북민 포교, ‘작은 통일’과 같아”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해 탈북민들과 거리감을 좁히고 민족의 정을 나누는 것은 ‘작은 통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사업을 활발히 펼쳐가는 것이 종교계에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명절 마다 탈북민을 초청해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물세트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탈북민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사찰 내 다양한 행사에 초청, 일반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탈북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무원 스님은 “신도들의 보시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의식주, 즉 근본적 생계 보장을 위한 후원이 선행돼야 한다. 스님과 사찰이 먼저 앞장설 때 신도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무원 스님은 탈북민과 인간대 인간으로 마주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불교를 알리고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남한 땅에 친구도 친척도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적 대화겠지요. 손잡고 당장 절에 데려가야겠단 조급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원 스님은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가야할 길은 멀다고도 말했다. 무원 스님은 “물량공세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서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교계의 강점”이라며 “그러나 개신교 등 이웃종교는 탈북민과 자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자주 보면 정 든다’는 말도 있듯이 이 점은 분명 배워야할 점”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그들 돕는 것, 우리의 사명”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탈북민은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불자들 모두의 과제입니다. 시대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은 여주 신륵사 주지로 재임할 당시 홍성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상임포교사로부터 ‘탈북민 가정체험’ 요청을 받으며 탈북민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당시는 탈북민이 1달에 1회 일반인들의 가정서 1박2일 숙식하는 ‘가정체험’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신도들이 없었지만, 스님은 종무원들과 일부 신도들에게 ‘반강제’로 동참을 권유했다. ‘참된 권위’의 행사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탈북민들과 1박을 보내고 돌아온 불자들은 환희심을 느끼며 행복해했다.

세영 스님은 수원사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탈북민 지원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돈이 없어 남편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지 못한 탈북 여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납골당 비용과 49재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 사상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탈북민 뿐 아니라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구나, 그랬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공감해준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영 스님은 최근 수원사 바로 옆 2층 건물을 매입했다. ‘탈북 여성 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월내에 탈북민 법회도 창립하며 탈북민 포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法 아래 작은 통일 〈2〉 현황 및 문제점

탈북 불자들, 어디로 가야하나…



2014년 2월 12~13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속 교육생 122명이 ‘가정체험’을 위해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 방문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원룸서 40대 탈북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집주인이자 여성의 연인이었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진 바 없지만, 싸늘한 주검은 최소 7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선을 넘어 남한 땅으로 건너온 북한이탈주민 2만9,688명(통일부, 2016년 8월 기준). 그들은 과연 이곳서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행복을 찾았을까. 현실은 상상과는 달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올 3월 발표한 탈북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8%에 달했다. 또한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입북자가 16명, 이민출국자 33명, 제3국 위장망명 신청으로 보호 중지된 자 53명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탈북민들의 ‘탈남(脫南)’은 차별과 편견, 정착 실패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도 녹록지 않은 현실서 ‘탈북민’이란 꼬리표는 이들을 ‘편견과 차별’의 구렁텅이로 더욱 몰아넣는다.

이 가운데 한국 종교는 민간단체 중에서도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정착을 돕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각 종교의 성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원에 앞장,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한국사회서 자아정체감 형성 및 사회 적응을 도왔단 평이다.

불교계에선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과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춘광),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 등 단체들이 탈북민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사단 내에 ‘통일팀’을 꾸리고 탈북민 포교를 전담했다. 통일팀은 현재 서울·인천 지역단내 총 3개 팀 50여명으로 구성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서 탈북민 대상 법회와 상담을 실시한다.

불교계의 탈북민 지원 정책 및 포교는 이제 막 기지개를 폈단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등에서 미약하단 견해가 많다.

절 가고 싶어도 포기하는 탈북민 多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이하 정착지원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망명한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통일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탈북민들은 이곳서 3개월 기간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특히 법당·교회·성당이 설치돼 탈북민들에게 가족을 떠난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서적 지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들이 한국 종교를 처음 접하는 기회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곳서 취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창기엔 개신교를 찾는 탈북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엔 법회 참석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단 전언이다.

그러나 정착지원사무소 밖 사정은 다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한 〈2015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2007년 후 입국 탈북민) 총 1만140명 중 기독교가 4,801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151명(11.4%), 천주교 1,101명(10.9%) 순이었다. 무종교는 3,051명(30.1%)이었다.

이 결과는 정착지원사무소서 불교에 의지했던 탈북민들이 수료 후에도 신행생활을 이어가지 못함을 반증한다. 북한에선 종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갑작스레 닥친 종교의 자유는 어렵게만 느껴질 터. 절에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갈지 모르거나 혹은 시선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권태근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통일팀장은 “탈북민들은 정착지원사무소를 수료한 후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현재 불교계서 불자 탈북민 모임이 조직된 곳은 서울 불광사가 거의 유일하다”며 “절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게 느끼는 그들을 위해 불교계가 먼저 모임을 조직해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쳐

탈북민 정서 지원을 위한 불교계 대표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와 명절 합동차례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가 해마다 탈북민 대상 템플스테이 및 합동차례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며, 이밖에 불교계 산하 복지시설서 명절마다 탈북민을 위한 합동차례를 산발적으로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

정착 못한 ‘탈남자’도 많아져

차별·상대적 박탈감 큰 이유

종교, 정서 지원 ‘선구자’

이웃 종교 비해 시스템 미약

유대감 형성해 ‘탈 불자’ 막아야

템플스테이는 탈북민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합동차례는 유교와 불교의 공통분모로써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단 점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시적 행사로 그쳐 탈북민들이 불교를 깊이 알고 불자로 전향하기엔 무리가 있단 지적이 많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탈북민 특화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관점도 제기된다.

김금희 前 나누며하나되기 과장은 “가장 아쉬운 점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일회성 프로그램은 불교에 접근하게 할 순 있지만 불자로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 탈북민들은 우리 정서와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교육·취업알선 지원 全無

민간단체들은 탈북민 지원 초창기에 대부분 물리·금전적 지원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탈북민들의 상대적 빈곤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 각 종교계 경제 기반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실시, 그들의 실질적 생계유지를 위한 원조에 나섰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특화된 대안학교의 확대가 절실했다.

종교계에선 개신교가 탈북민 교육 분야에 앞장섰다. 개신교서 창설한 탈북민 전문교육기관은 △(사)굿피플의 자유시민대학(前 굿피플대학, 2002년 개교) △사랑의 교회의 반석학교(前 느헤미야학교, 2006년 개교) △장대현교회의 장대현학교(2014년 개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이 201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안학교인 삼정학교(교장 채경희)에 1억1500만원을 기부한 사례는 있지만, 탈북민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남지심 통일바라미숲 대표는 “이웃종교가 물질적 지원은 물론 탈북민 교육, 취업알선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반해 불교계는 너무 미약하다”며 “미래 통일 시대에 북한민들에게 불교를 알릴 탈북민들에게 교육·취업알선·의료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불교계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불기2560

이시대 최고 선사들의 법문 대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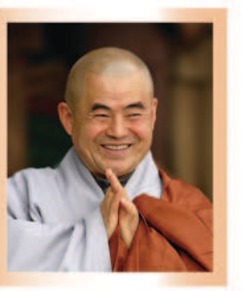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명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참나’를 찾아가는 최상근기의 수행, 간화선에서 해답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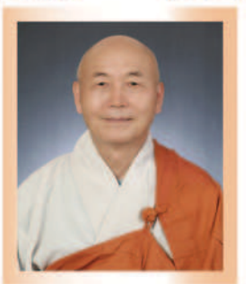
간화선 대법회


진제 법원 종정예하
(입재일, 10월 15일)


금곡 무여 대선사(10월 16일)
(봉화 축서사 선원장)


금아 해국 대선사(10월 17일)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함주 월복 대선사(10월 18일)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금산 지환 대선사(10월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두암 현기 대선사(10월 20일)
(지리산 상무주암 수좌)


학산 대원 대선사(회향일, 10월 21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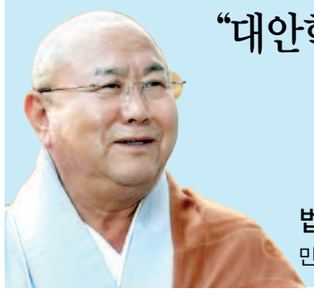
“심오한 깨달음, 정혜쌍수”

일시 : 2560(2016)년 10월 15일(토)~21일(금)오전 10시
장소 : 대구 동화사
문의 : 02) 922-9967 / 053) 980-7900

주최 :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재단법인 선원수화선문화복지회 | 주관 : 동화사 · BBS 불교방송 | 미디어주관 : BBS 불교방송 ·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佛法 아래 작은 통일 〈3〉 대안과 해법은?

거점사찰 지정·네트워크화 '시대적 요청'



"대안학교·취업알선 기구 설립, 종단이 나서야"

법타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가정체험 봉사자 섭외 어려워, 불자들 관심 절실"

홍성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상임포교사



"25교구 본사 중심 '탈북민 거점도량' 만들어야"

권태근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통일팀장

가정체험, '관심·협동'이 과제

'가정체험'은 정착지원사무소서 교육 중인 탈북민들이 1달에 1회 일반 가정집서 1박을 지내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1회 실시할 때마다 약 100명 탈북민이 참여하는 가정체험서 체험가정 섭외는 종교계가 맡는다. 불교계는 홍성란 정착지원사무소 상임포교사에 의해 이뤄진다. 홍 포교사가 사찰을 섭외하면 사찰서 체험가정을 모집하는 구조다.

가정체험은 탈북민이 일반인과 통하는 첫 경로로, 탈북민은 한국 정서를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험가정도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탈북민들이 정착지원사무소를 나온 후에도 체험가정과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자들과 탈북민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실제로 청주 용화사의 한 남성 신도는 가정체험했던 탈북민을 수양딸로 삼기도 했다. 그는 처음엔 가정체험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지만, 탈북민과 하루를 지낸 후 '부처님이 주신 인연'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홍 포교사는 "가정체험은 어떤 봉사자든 종교색을 배제하고, 오직 한국 일반가정 문화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다. 포교란 생각보단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후에 자연스럽게 종교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가 가정체험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사찰 및 불자들의 관심'이 핵심 과제다. 현재까지 청주 용화사·천안 각원사·서울 불광사·인천 보림사·여주 신륵사·인천불교회관·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등 사찰이 참여했지만, 그때마다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쉽지 않았다.

홍 포교사는 "가정체험 장소를 섭외하는 게 매우 어렵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또한 불자들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가정체험에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정체험에 참여했던 서울 불광사 이형 포교사(포교사단 통일팀 소속)는 수월한 봉사자 모집을 위해 지역 사찰과 연계가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형 팀장은 "정착지원사무소서 탈북민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때부터 봉사자 모집을 시작하는데 항상 부족하다"며 "최근엔 이웃 사찰들에 도움을 요청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지역사찰과 연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거점사찰, 2개로 부족하다

탈북민 거점 사찰 육성은 포교 현장가들이 입 모아 요청하는 사안이다. 홍 포교사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사찰들이 탈북민들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줬음 좋겠다.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면서 불교를 쉽게 알려줄 담당자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 말했고, 권태근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통일팀장은 "25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탈북민 거점사찰을 마련하고 이곳에 포교사들을 대거 배치, 전국적으로 통일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권 팀장은 "통일팀을 구축하면 체계적인 불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고, 종국엔 탈북민 출신 포교사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거점사찰 육성 시 탈북민들의 사찰 접근성이 높아지고, 종국엔 탈북민 포교 네트워크망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란 의견이다.

즉 탈북민 불자들 간에도 친분 쌓을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거점사찰들 간 연합으로 가정체험 봉사자 모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서울 불광사와 청주 용화사를 '새터민 전법도량'으로 지정하고, 탈북민 포교에 집중할 것을 독려한다.

불광사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탈북민 법회를 연다. 평균 15명 정도의 탈북민이 꾸준히 참석 중이며, 주지 본공 스님의 지도 아래 생활법문과 〈부모은중경〉 등 경전을 배운다.

이형 팀장은 "너무 종교적으로 다가가면 탈북민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까봐 초창기엔 반야심경도 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교교리·마음수행·찬불가 등 배우며 불교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탈북민을 위한 법회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이 팀장은 "탈북민들이 대부분 멀리 산다. 인천에서도 주말 아침마다 2명의 탈북민이 법회 참석을 위해 온다"며 "곳곳에 거점사찰이 많이 생겨 탈북민들이 쉽게 절에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화사는 정기 법회를 열진 않지만 일반 신도들의 행사에 탈북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는 "여러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한국 사회에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성수 용화사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탈북민들이 각종 사찰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탈북민을 '도움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이 봉사자로 나섬으로써 주체의식을 기르는 것은 물론, 신도들에게도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향후 '새터민 전법도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이 탈북민 포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급선무"라며 "또한 이주민 포교를 실시 중인 스님들이 탈북민에도 관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법도량 지정을 독려할 계획"이라 밝혔다.

"근본적 생계유지 원조해야"

현재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은 사찰 혹은 스님들의 산발적인 장학금 수여가 대부분이며, 취업알선은 포교사들의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이로 소개해주는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전문 교육기관 및 취업알선 기관이 부재하다.

> 가정체험 봉사자 모집 어려워
> 거점사찰 늘리고 조직화 하면
> 탈북민 유대감 형성 뿐 아닌
> 지역 네트워크 구성 효과 기대
> 포교원 "전법도량 육성할 것"
>
> 정서 지원 외 생계도 보장돼야
> 교육·취업 알선이 한 방법

그러나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초기정착비용 지원이 아닌 교육·취업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 자립을 도와야 한단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은 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은 공식 컨트롤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고, 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타 스님은 "교육은 생존능력 양성의 출발점이다. 북한의 교육 체제와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며 "불교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만큼, 탈북민에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종단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운영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법타 스님은 취업알선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친분으로 진행되는 취업알선은 한계가 있다. 종단 내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탈북민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타 스님은 교육 및 취업이 이뤄진 후에도 탈북민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법타 스님은 "한국사회는 간혹 자신과 다르단 이유로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을 떠난 탈북민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종단 및 스님들이 앞장서 탈북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솔선수범을 보이면 불자들도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팀장도 "탈북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라며 "당장 취업을 시켜줄 수 없더라도 평소 취업교육 내지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물질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난 8월 27일 진행된 서울 불광사 탈북민 법회서 상불사 동효 스님이 명상 실습을 교육하고 있다.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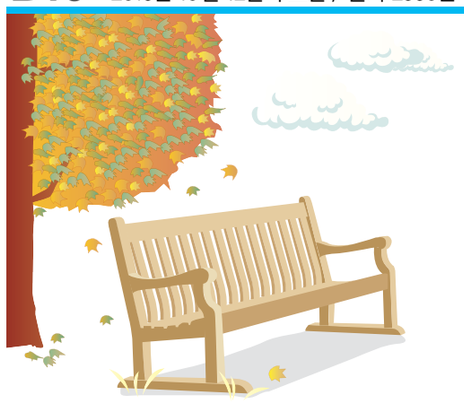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열쇠

불광출판사

틱낫한 기도의 힘

틱낫한 스님이 평소 기도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들어온 질문 다섯 가지와 그에 대한 답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고, 참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다가온다.

명성

한국 비구니계의 '등불' 명성 스님의 일대기. 당시 폐허나 다름없던 운문사 강원을 오늘날 한국 비구니 교육의 '심장'으로, 선원과 율원을 갖춘 대가람으로 일으키기까지 혼신을 다한 스님의 생애가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의 유려한 필체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불법의 근본에서 세상을 바꿔라

'중국 역사를 바꾼 근대 4대 고승' 시리즈 중 마지막 편.

태허 대사가 주장한 인간불교는 현학이나 미신에 치우친 기존의 중국 불교를 반성하고 인생에 직접 도움을 주는 불교가 되자는 것으로, 청나라 말 혼란했던 시기 자선 사업과 항일운동을 펼치며 현대 중국불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문의 02)420-3200

비움과 소통

무량수경 심요

정토종과 선종, 화엄과 밀교의 정수를 담은 최후의 불경 '무량수경' 회집본을 최초로 강설한 책. 하련거 대사가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회집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경문으로 삼아, 황념조 거사가 그 요점을 풀이(요해)하고 정공 큰스님이 강의(강해)한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상세한 무량수경 해설서이다.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불력수행

선(禪)과 유식(唯識), 정토종 법문을 통해 염불이 말법시대 중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생사해탈법임을 밝힌 책. 중국 근대의 고승 담허대사의 '염불론', 대만의 대덕(大德)인 오총룡 거사의 '정토도언'과 '임종훅문', 중국의 대덕 이원정 거사의 '불법도론', 한중 선지식의 염불선 법문이 망라되어 있다.

백봉 거사의 선문염송요론

선종의 교과서인 『선문염송』의 난해한 선문답이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 거사가 번역과 강론을 통해 화두를 풀어헤쳐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선종(禪宗)의 핵심 종지를 깨닫는 기연(機緣)을 갖게 될 것이다.

■ 문의 02)2632-8739

민족사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한국 현대불교사의 산증인이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신 태공 월주 큰스님의 법문집.

큰스님의 사상과 원력이 담긴 이 법문집은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으로서 우리 사회를 맑고 밝은 정토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

대승경전은 기원을 전후하여 반야경을 시작으로 많은 경전이 성립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전이자 대승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 대표적 대승경전들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담았다.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불교를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책. 젊은 불교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자랑 교수와 이필원 교수가 글을 쓰고, 배종훈 작가가 도표를 그렸다. 도표만 봐도 불교의 윤곽이 그려지고, 상세한 주(註)를 달아서 불교사전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했다.

■ 문의 02)732-2403

담앤북스

신해행증(信解行證) 관점으로 풀어낸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중국 근대 격변기, 불교연구와 포교에 평생을 바친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을 정리한 책. 총 1,116쪽으로 「금강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요하리만치 꼼꼼히 해석한다. 감히 '불교 대백과'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티베트 스님의 인생특강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버드대, 예일대, 베이징대 등 세계 100여 곳의 명문대에서 강연한 켄포 소달지의 인생특강.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돈, 사랑, 행복에 관해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한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켄포 소달지는 불교와 서양철학, 현대과학을 넘나든다.

어린이를 위한 명상연습 마음이 아플 때 따라 해 봐!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명상 그림책이다. 아이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불안, 걱정, 긴장, 화, 산만함 등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과 상상연습 9가지를 제안한다. 아이 눈높이에 맞는 그림과 설명이 담겨 있다.

■ 문의 02)765-1251

운주사

정토삼부경 역해

『정토삼부경 역해』는 평생 정토를 신앙하며 학문적으로 정토교학을 깊이 연구하여 다수의 정토 관계 저술을 해온, 한국 정토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이라 할 수 있는 태원 스님이 정토삼부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것이다.

경전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 기존의 여러 원전 판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교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아미타경 핵심강의

정토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인 『아미타경』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책이다. 『아미타경』의 주요 경문에 대해 선도대사의 칭명염불 사상에 의거해 해설함으로써 정토법문은 누구나 닦기 쉽고, 그 효과가 빠르며, 염불만 하면 다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선도대사에 의해 완성된 칭명염불의 순수한 정토법문을, 대만의 혜정법사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고 닦기 쉬운 법문을 만날수 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 부르는 그 아미타불이 어떤 부처님이며,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를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 문의 02)926-8361

지혜의 나무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 내었다.

마음이나 알자

마음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을 환히 다 보고 다 아는 묘각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 석가세존이 묘각의 불안으로 밝혀 놓으신 경전을 근거로 마음의 생원설에 대한 이야기로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 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수능엄경 (상·중·하)

이 책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이다.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하다. ■ 문의 02)730-2211

유교와 기독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통찰 합니다. 수학과 숫자, 십진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다.

대도대한

천비록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지비록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 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족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루며 이어 왔던 대한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문의 063)643-7285

BOOK STORE

※ 전국 유명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틱낫한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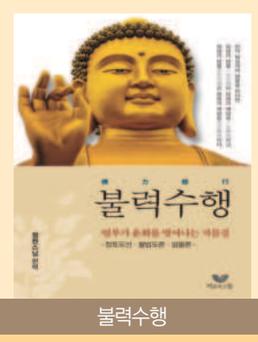
명성 | 남지심 | 불광출판사



불법의 근본에서 세상을 바꿔라 | 태허 대사 | 불광출판사



무량수경 심요 | 정공스님 강해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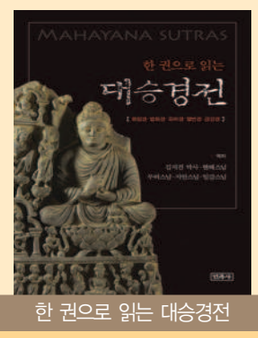
불력수행 | 정전스님 편역 | 비움과 소통



선문염송요론 (전3권) | 백봉거사 지음 | 비움과 소통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 월주 |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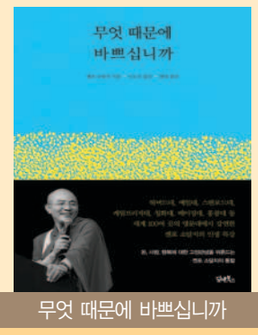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 | 김지견, 현해, 무비, 지안, 일감 | 민족사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 이자랑 · 이필원 | 민족사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 강미농 | 담앤북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 켄포 소달지 | 담앤북스



마음이 아플 때 따라 해 봐! | 휘트니 스튜어트 | 담앤북스



정토삼부경 역해 | 서주 태원 | 운주사



아미타경 핵심강의 | 정종 법사 | 운주사



염불하여 왕생하고… | 혜정 법사 | 운주사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 천명일 | 지혜의 나무



마음이나 알자 | 천명일 | 지혜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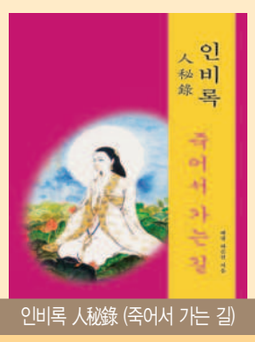
수능엄경 (상 중 하) | 천명일(해설) | 지혜의 나무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 해광 하순천 | 대도대한

지혜의 보고 佛書

클릭! 이 책

벌거벗은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앵 지음 | 임희근 옮김
문학동네 펴냄 | 1만 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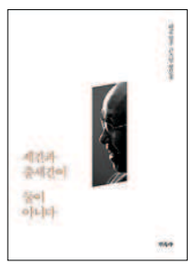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왜 이리 힘든가?

이 책은 강박관념과 약점과 혼돈과 상처, 그리고 숱한 삶의 모순 속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기록이다. 저자는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온 철학자다. 졸리앵은 태어나 지금껏 하루도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이 책은 졸리앵이 철학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삶의 진실과 의미,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신의 내밀한 정념에 대해 쓴 일기 형식의 글이다. 그가 쓴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쓰기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가장 개인적인 글이며 그렇기에 이 책은 기만과 가식 없이, 말과 담론과 일상 사이에 있는 심연서 나온 글이고, 거기서 이뤄진 자신의 정념(passion)과의 전투 기록이다.

"부처님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 해답 나와"…부처님 닮으면 된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월주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6500원



태공 월주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 중앙종회의장(15대) · 총무원장(17대, 28대) 등을 역임하며 한평생 불교 중흥에 힘쓴 한국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쓴 불교계 원로요, 우리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다. 지금은 작고한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기독교의 강원룡 목사와 함께 우리나라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3대 종교지도자로 손꼽혔다.

또한 태공 월주 스님은 불교계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 등 다양한 시민활동의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사)지구촌공생회 · (재)함께 일하는 재단 · 나눔의 집 이사장 등으로 활동을 펼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친근한 종교 지도자다.

이번에 새로 펴낸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태공 월주 스님이 앞서 말한대로 보통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법회와 행사 등서 한 법문과 축사, 권두언, 언론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정수(精髓)를 가려 뽑아 편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법문집이 아니다. 태공 월주 스님의 사상과 원력과 실천행이 오롯이 담겨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는 행복의 나침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태공 월주 큰스님의 일상을 담은 김묘광 작가의 사진들이 삽입돼 이 책에 깊이 배어 있는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환기시키고, 법문할 때 즐겨 인용한 경전 구절들이 편편마다 맨 앞에 실려 있어 이 책의 깊이를 더해준다.

법문과 축사, 기사 등서 정수 뽑아
한평생 깨달음의 사회화에 바쳐
"보현행으로써 깨달음 확신 얻자"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 내면의 부처를 믿고,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처의 마음으로 나누고, 스스로 부처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지극한 안락을 누리며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서로 이어져 있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을 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연기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입니다"라고 당부한다.

태공 월주 스님은 1954년 6 · 25 전쟁이 끝난 직후 출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전쟁을 통해 체험한 뼛속까지 저며 드는 아픔은 존재에 대한 탐구로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혼란한 세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발견한 수행자의 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분명 고뇌를 해결할 진리가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불법의 망망대해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 60여 년 동안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태공 월주 스님. 고통 받는 중생을 보며 발심 출가한 스님은 한평생 오로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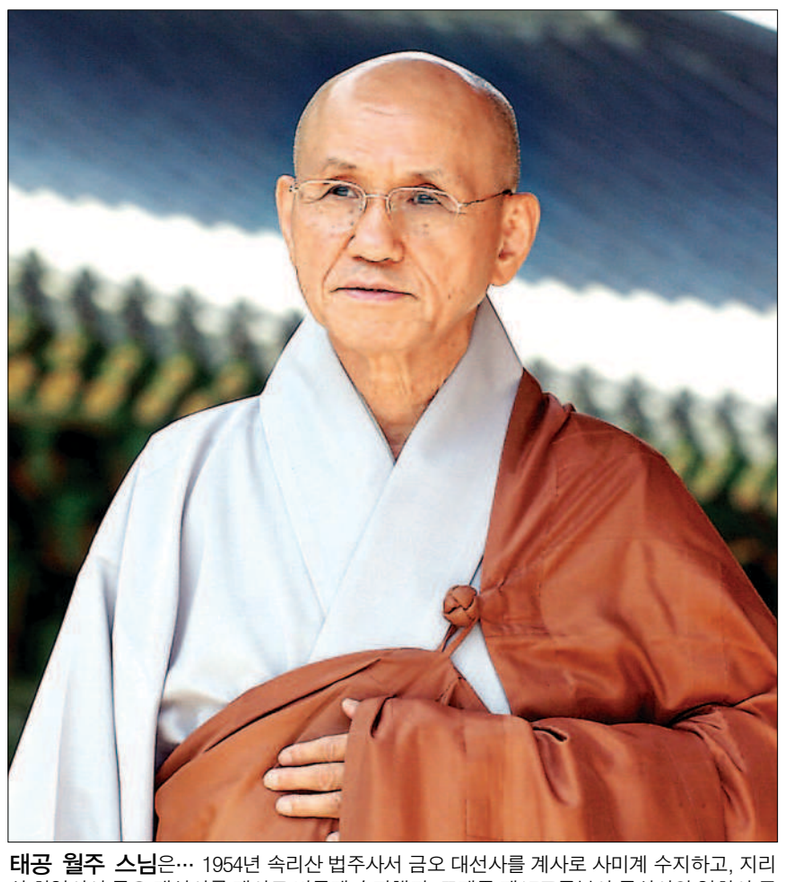
월주 스님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 곧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닮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삶에서, 아니 부처님의 출가 정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영원히 사는 길,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 갈구하는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하신 부처님을 보면서 마음에 미세한 변화라도 생겼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불러 일깨우고 부처님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한다.

또한 태공 월주 스님은 자비행 · 실천행을 다음과 같은 한 마디로 표현한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주어야 한다"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현실선 실현하기 힘든 일이다. 태공 월주 스님은 지구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고통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심과 발원에 따라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을,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물을 파주는 보살행을 펼치셨다. 전쟁과 기근, 각종 질병으로 쓰러져 가는 무수한 생명체들을 위해 그들이 사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수없이 찾아다닌 월주 스님. 사회고와 시대고로 불행을 겪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염원으로 고통이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시며 대자비 보살행을 실천한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눔을 통해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윤회의 고통서 해방된 부처님이라는 월주 스님의 법문, 그 삶과 진정성 담긴 주옥같은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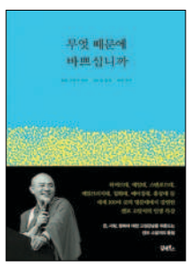
"불법은 세간에 있으며(佛法在世間)/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하네(不離世間覺)/세간을 떠나서 보리(깨달음)를 찾는다면(離世覓菩提)/그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恰如求兎角)."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공 월주 스님은… 1954년 속리산 법주사서 금오 대선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지리산 화엄사서 금오 대선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영화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통합종단 이전, 제2,3,4,5,6,7대), 제5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17대, 28대)을 지냈다.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 공동대표 겸 이사장도 역임했다. 현재 금산사 · 영화사 조실로서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재)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월주 스님은 불교계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다.

"인생의 바탕색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켄포 소달지 지음
신노을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 6천원

이 책은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를 하루'를 반복하는 현대인에게 티베트 스님이 던지는 화두다. 세계 100여 곳의 명문대에서 강연해 온 켄포 소달지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돈, 사랑, 행복에 관해 직설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강단에 선 켄포 소달지가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동서양의 철학과 현대 과학을 넘나들며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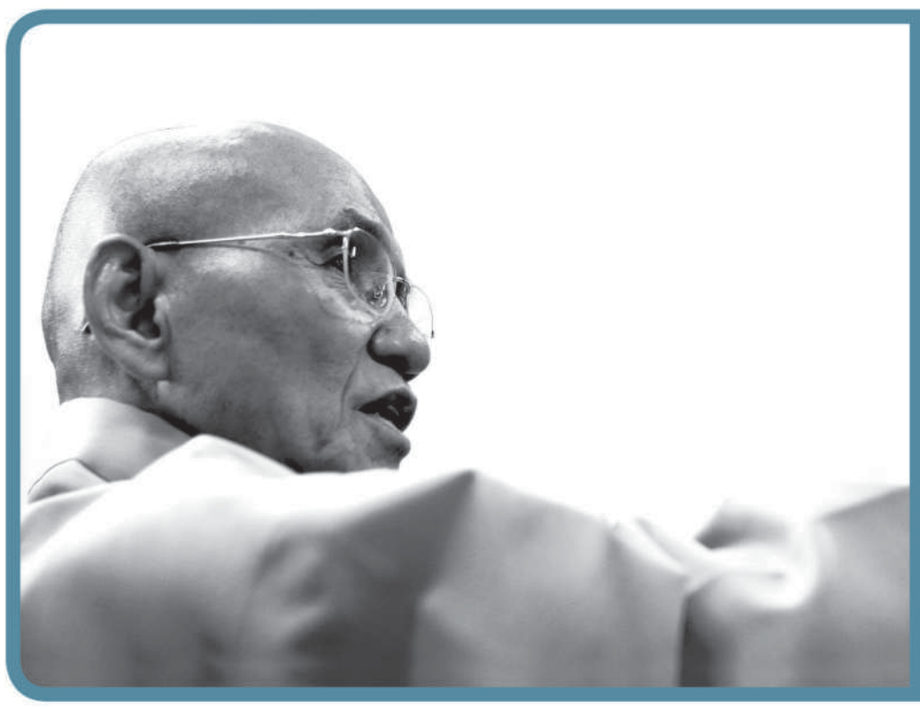
켄포 소달지는 현대인 대다수가 열망하는 부와 사랑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으며, 사랑이란 감정도 영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서 전하는 공성(空性)과 무상(無常)의 이치를 조금만 이해해도 삶이 한결 편안해진다고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은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변하며 소멸한다. 사랑, 슬픔, 분노 같은 감정과 생각 역시

부 관리 지혜, 선 수행으로 계발
마음 속 번뇌 줄이는 방법은 '자족'
운명 바꾸려면 '선한 마음 품어라'

마찬가지. 켄포 소달지는 이러한 불교의 이치를 고대 철학, 현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례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세상사가 무상하니 스님들처럼 산속에서 수행만 하며 살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켄포 소달지가 강연장서 수없이 받은 질문일 것이다. 그는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기 위한 실천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좌선, 봉사, 채식, 동물보호… 등등. 그가 제안하는 여러 방안의 전제 조건은 나 자신, 즉 '아(我)'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일상서 겪는 모든 괴로움이 바로 이것에 대한 집착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는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심을 키우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서 벗어나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과 행동, 즉 불교서 말하는 보리심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노동과 수고 없이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 우리 모두 '갑'인 동시에 '을'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켄포 소달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책은 모두 12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강연 현장서 이뤄진 '즉문즉설'이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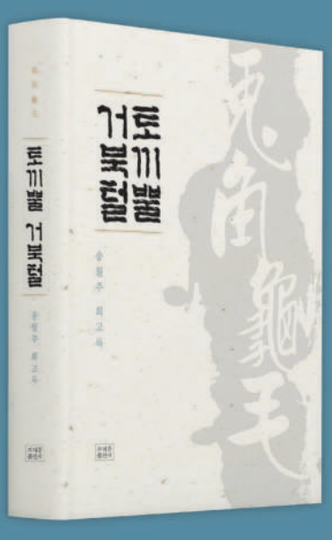
불교 정화 / 10·27 법난 / 개혁종단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현장에서
IMF 구제금융사태 / 위안부 할머니 문제 / 세계 반곤 한국사와 세계사의 현장에서
온몸 부딪혀 실천해온 송월주 대종사의 보현행원의 길

/송월주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

| 글 · 월주 스님 | 46배판 변형(175X230) | 724쪽 | 양장 및 케이스 | 가격 30,000원 | 조계종출판사 |

"이 책은 송월주 스님이 출가 이후 절차탁마하며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수십 년 시민사회운동에 발 딛고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유했던 여러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왔던 스님이기에 책 속에 실린 이야기는 때론 조계종의 근현대사이며 또 때론 질곡과 영광을 함께했던 한국사이기도 하다."



월주스님과 〈토끼뿔 거북털〉에 보낸 언론의 찬사!

- 회고록은 한국 현대 불교의 역사와 불교계 사회복지 역사와 다름없다. * 조선일보
- 월주 스님의 개인사는 조계종단의 개혁사와 맥을 같이 한다. * 중앙일보
- "이판이 아니면 사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사판을 하지 않으면 이판도 의미 없다." * 동아일보
- 월주 스님의 보리심은 국경을 넘었다. * 한겨레
- 월주 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자비행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형행'이라고 표현한다. * 한국일보
- 불교가 세상을 등진 채 산중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 연합뉴스

조계종 출판사 (주)조계종출판사 문의
02-720-6107~9 www.jogyebook.com

성보에 담긴 영원한 이상향 '극락세계'

불교중앙박물관, '꿈꾸는 즐거움, 극락' 특별전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아미타 신앙 성보 97점 전시해
흑석사 아미타상 첫 공개 '눈길'
"현대인에 희망 메시지 전할 것"



국보 제282호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외부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간은 두렵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극락'을,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도교계열에서는 '무릉도원' 등의 이상향을 제시한다. 이 같은 이상향들은 모두 현실을 위로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희망을 보여준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이 개최하는 올해 특별전의 주제는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아미타 여래와 극락세계를 표현한 성보문화재 총 97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극락의 주재자, 아미타 여래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 극락세계 △극락으로 가는 방법, 극락구품도 △극락을 염원하다 △극락으로 인도하다 등 5부로 구성된다.

'극락의 주재자, 아미타여래'에서는 아미타 여래를 설명할 수 있는 불상과 복장 유물들이 전시 된다. 특히 1부에 전시되는 국보 제282호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및 복장 유물과 보물 제1890호 익산 심곡사 7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은 이번 전시회의 중심에 있는 성보문화재다.

조선 전기 불상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흑석사 목조아미타좌상의 경우 복장 유물이 외부 전시에서 공개된 적은 있지만, 불상이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물 제1890호 익산 심곡사 7층석탑 출토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2012년 심곡사 석탑 해체 수리 당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은 수작이란 평가를 받아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 극락세계'에서는 경전 등에서 묘사된 극락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표 문화재로는 '서울 흥천사 아미타회상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7호)'와 '서울 흥천사 극락구품도', '상주 황령사 아미타후불도(경북 유형문화재 제337호)' 등이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관경변상도에서 파상된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를 보여준다. 극락구품도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아미타극락회를 중심으로 구품연못과 연화하는 장면만을 부각해 묘사되고 있다. 전시에는 표충사, 운문사, 수국사 등의 극락구품도가 전시된다.

4, 5번째 주제에서는 극락에 대한 염원과 인도가 그려진다. 대표 문화재로는 보물 제11-2호 문경 김룡사 동종, 보물 제1724호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발원문, 보물 제1857호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등이 전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은 "현대인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인성이 척박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고 극락이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02)2011-1965

신성민 기자



서울 흥천사 극락구품도.

'보물' 죽림사 괘불탱 통도사 나들이

10월 8일부터 제34회 전시회



보물 제1279호로 지정된 나주 죽림사 괘불탱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오는 10월 8일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제34회 괘불탱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관 이래 매년 괘불탱 전시를 해오고 있는 통도사의 이번 전시에는 전남 나주 죽림사 괘불탱이 선보인다.

죽림사 괘불탱의 화기에는 사찰 중정에서 이뤄지는 야외 법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고 기록돼 있다. 제작 시기는 1622년으로 현존하는 괘불탱화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승으로는 수인, 신헌이 참여해 조성했다.

'죽림사괘불탱화'는 족자형태로 족자의 총 높이가 509cm, 가로 폭이 263cm이며, 화면은 그보다 작은 높이 436cm, 가로 폭 240cm 로 조선후기 괘불탱화 중에 가장 크기가 작다. 바탕의 천은 총6폭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중간의 두 폭은 견직물이고 좌우 네 폭은 마직물로써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본존의 얼굴 중앙에는 비단의 연결선이 지나가는데 화폭을 연결할 때에는 경배의 대상인 존상에 연결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배려 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는 당시 어렵게 구한 귀한 비단에 존상을 그려 넣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설명이다.

통도사는 "죽림사 괘불탱은 조선시대 괘불탱화의 발생과정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괘불은 초대형 크기 불화라는 특성으로 평소에는 잘 보기 힘들다.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괘불탱화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번 전시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5)382-1001

신성민 기자

내 마음 '힐링'하는 명상음악들

콘텐츠코리아, 가을 맞아 명상 음반 잇달아 발매

도이터, 명상음악 베스트 콜렉션
던스터의 '팔정도' 주제 음반도





친마야 던스터의 앨범은 '팔정도(八正道, 사진 왼쪽)'와 도이터의 베스트 컬렉션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사진 오른쪽)'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명상음반이 잇달아 발매됐다.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는 최근 인도 전통악기 사로드의 마스터 친마야 던스터와 독일계 뉴에이지 명상음악의 대가 도이터의 명상음반을 출시했다.

콘텐츠코리아가 내놓은 친마야 던스터의 이번 앨범은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주제로 음악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친마야 던스터의 음악은 동서양인들 모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창작됐으며, 많은 세대를 걸쳐 수행되고 실천돼 온 팔정도를 신성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도의 사로드와 산투르, 켈틱 하프, 플룻, 기타와 같은 전 세계 어쿠스틱 악기들과 절묘한 하모니도 눈길을 끈다.

신효철 콘텐츠코리아 대표는 "음반에는 팔정도와 내면 풍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용 가이드가 특별히 삽입돼 있어 본 음반의 활용에 매우 유익하다"면서 "조용한 묵상, 명상, 힐링 등을 위해 완벽하고 효과적인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상음악가 도이터의 '베스트 컬렉션' 앨범도 눈길을 끈다. 도이터가 발표한 7개의 앨범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곡들을 선별한 이번 베스트 앨범에는 '옐로우 만다라', '성찰', '머나먼 섬', '사랑의 손길' 등 총9개의 곡이 수록됐다.

특히 수록곡들은 자연의 소리와 기악 편성이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힐링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

신 대표는 "도이터는 특히 힐링 명상 및 요가전문가, 심리 및 물리 치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가"라며 "이번 앨범은 선명상 및 요가 수련, 긴장의 이완과 숙면 등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1661-316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적 상징 옻으로 화현하다

불일미술관, 이상의 '옻칠 그림'展



이상의 작가의 '버드나무'

서울 삼청동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제1관에서 이상의 작가의 '옻칠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일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신진 작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상의 작가의 일관된 주제인 무릉도원의 연속시리즈로 '여민해락(與民偕樂)-함께 즐거움을 나누다'를 부주제로 작업했다.

민화를 모티브 삼은 책가도 작업들, 목련, 연꽃, 수련, 불수감(佛手柑) 등 일상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조형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불일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옻칠과의 교감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www.emille.kr

에밀레전

신라 소리축제

대 신라왕국 체험 축제

REAL 4D CUBE

신라 대종 타종 체험 · 3D프린팅 체험
신라 간등회看燈會 재연과 야경 연출
40여 가지의 신라문화 체험

2016. 10. 21(금) ~ 23(일)

낮10:30~밤10:30 /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신라 왕경에 울리는 천년의 소리

〈신라소리 에밀레전 프로그램 안내〉

	10월 7일 (금)	10월 8일 (토)	10월 9일 (일)
공연	천년의 울림 에밀레전 개막식 (17시) 시와 국악의 만남 (18시) 최정상급 국악인 출연 BBS-TV 실황 녹화	신라의 향기 - 국악과 놀다 (19시) 경북도립국악단 특별 주제 공연	청년의 소리 (16시) 지역 대학 동아리 연합 공연
2016 특별 기획	오감으로 느끼는 SMART 에밀레전 4D로 만나는 경주여행(불국사, 첨성대, 경주 남산, 동궁과 월지 등)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신라 문화유산(첨성대, 석굴암, 석가탑, 상원사 동종 등)		
체험	금관 만들기, 신라 복 입기 체험, 소원 백등 꾸미기, 전통 국악기 체험, 6톤 무게의 신라대종 타종 체험 등 40여 종의 체험 학습		
전시	에밀레 주제관, 이야기가 있는 열린 시청각실(에밀레 설화 영상 등) 성덕대왕신종, 운주지 소장종 등 신라시대 범종 전시		
야간 전시	신라 간등회 재연 (매일 밤 6시~10시 30분) 40여개 전통 등으로 첨성대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 연출		

※ 전 프로그램 무료 입장, 무료 관람입니다!

주최 BBS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후원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聖鐘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3DBank 신라만파식적보존회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2〉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다

과도한 '희망'이 현재를 망친다



마음챙김은 온화한 자각

팀은 자기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안정된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은퇴 후 노후를 보낼 자금도 넉넉했다. 매일 밤 술을 좀 과하게 마시긴 했다.

그 때문에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곤 했지만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내와 사춘기 딸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자신을 떠나기 전까지 말이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경황이 없었던 그는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팀은 지금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야 했다. 치료 세션에 임한 그는 마치 스승에게 깨달음을 구하는 제자와 같았다. 그런 그에게 스승은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를 보아라." 다시 말해 깨달음이란 우승 트로피처럼 쟁취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지금 있는 자리에 존재하면서 거기에 현존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다(to be mindful)' 함은 부드럽게 자각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대상을 자각하는 의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예컨대 자각을 하되 마음속으로는 저항하는 의식도 있다. 또 오직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식도 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암세포 조직을 관찰하는 연구원처럼 냉정하고 무심하며 분석적인 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어릴 적 학교 선생님이 "주목!"을 연발할 때 학생인 우리들이 기울여야 했던 의식도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마음챙김이 아니다. 마음챙김, 즉 깨어 있는 마음은 '지금'을 산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한 일과 내일 할 일을 팽개친 채 그저 지금만 잘 살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챙김은 과거를 치유하는 동시에 미래를 돌보고 헤아린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러한 성향은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덕분에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약물 중독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인간의 성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약물 중독자는 '쉬운 길'을 택한다. 즉 그들은 고통에 직면하여 그것이 주는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저 고통에 무감각해짐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한편 마음챙김은 이와 전혀 다르다.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즐거움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점령당하지 않는다. 마음챙김은 온화한 자각(warm awareness), 보살피는 자각(caring awareness)이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

호흡 관찰하고, 충동 자각하라

마음챙김은 붓다가 얻은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붓다'라는 말도 '깨어 있는 자'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간간이 깨어 있을 뿐인 우리는 '파트타임(시간제) 붓다'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매 순간 또렷하게 깨어 있는 자가 진정한 붓다이다. 깨어 있을수록, 우리를 부정적인 반복 사이클에 가두는 고착된 행동 패턴을 더 쉽게 해체시킬 수 있다.

약물을 남용하면 삶이 선사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약물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쾌락 역치(threshold: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강렬한 자극을 주는 약물에 일단 중독되면, 그 밖의 경험은 민숭민숭 싱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마음챙김은 이와 정반대의 상태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미세한 것들에 마음을 활짝 열기 때문이다. 은은한 초록빛 나뭇잎, 천진난만한 아기의 미소, 신문을 가지러 나갔을 때 밀려오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더 잘 감지하게 된다. 마음챙김은 쾌락 역치를 낮춘다.

그렇다면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중독 상태에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각 경험의 미세한 질감과 맛,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챙김은 상황에 적절한 명료한 자각을 키워준다. 그리고 이 자각으로부터 적합하고 효과적인 행동이 나온다. 명료한 자각이 있어야 그에 따른 적합하고 효과적인 행동이 나온다.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 "약물 남용은 쾌락역치 올려
> 단순한 즐거움 놓치게 돼
> 호흡 따라 현재감각 되살리면
> 명료한 감각으로 창조력 상승"

그렇다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중 하나가 자신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호흡으로 돌아가면 환상과 두려움의 세계, 조건화된 세계를 떠나 지금 나에게 실재하는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려 하지 말고, 다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호흡을 관찰한다. 숨을 들이쉬는 동안 들숨의 감각을 가만히 느껴본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는 동안 날숨의 감각을 가만히 느껴본다. 호흡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호흡을 느끼고 맛보는 것이다.

중독 회복 과정에서 흔히 겪는 문제가 있다. 별안간 불끈 올라오는 중독 물질에 대한 강한 충동이 그것이다. 충동은 다른 모든 생각이나 느낌과 마찬가지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문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덧붙이는 두려움이다.

충동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일어나는 충동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챙김으로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끈 일어나는 충동이라도 단지 일시적으로 지속할 뿐임을 알게 된다. 바로 이를 두고, '충동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한다.

초월명상(TM)에 대한 연구 결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면 약물에 대한 충동과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명상과 같은 정신 훈련이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중독의 회복뿐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허상'과 '실제' 구분하기

각종 미디어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더 행복하고 사교적이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최면을 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의 이러한 효능은 알코올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음주자의 심리적 기대감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알코올이 그 자체로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런 효능을 기대하기 때문에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헤로인을 심각한 약물로 간주한다. 반면 알코올은 약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헤로인 금단은 심한 독감에 걸린 것과 같아서 확실히 불편하고 불쾌하긴 하지만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알코올 금단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는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

보통 우리는 희망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기대할 만한 뭔가를 갖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불교는 희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에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하는 경우에 희망이 문제가 된다. 다음 휴가철이나 특별한 이벤트만을 학수고대하며 산다면, '지금' 당신 앞에 놓여진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실제로 휴가기간이 되어도 당신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휴가에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상적인 관계나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된 삶, 학위를 딴 인생이라 해도 또 하나의 삶일 뿐이라는 점이다. 종이 한 장과 펜을 앞에 둔 채 잠시 눈을 감아보자. "나는 ~하다면 행복할 텐데." 그런 다음 ~에 들어갈 내용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본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으면 이제 적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마음챙김은 신기하고 멋진 일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신기하고 멋진 일만 좇을 경우, 애당초 중독의 덫에 빠지기 쉽다. 마음챙김은, 신기하고 멋진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법을 발견하는 일이다. 불교 경전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上) 없는 완벽한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것은 결코 신비스럽고 대단한 무엇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을 '위 없는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업(業)을 일종의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자각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앎이야말로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업이란, 오늘 명료한 자각과 깨어 있음으로 행한 행위가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명료한 자각과 마음챙김의 상태에 있다면 일과 건강, 여가, 인간관계 등에서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100㎝ | B형 65㎝×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또 다시 가을

곧 나뭇잎 붉어지고 하늘은 깊어질 텐데. 그리운 것이 기어이 문을 열게 하고, 뼈아픈 후회가 기어이 하늘을 보게 한다. 공부는 늘 책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은 늘 인생을 앞서지 못하나니. 방 안에 쌓인 책들을 어찌할 것이며, 문 밖에 닥친 계절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인생은 짧건만 날은 길고, 문 밖엔 또 다시 가을이 와 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나쁜 말 (上)

판다곰은 왜 거짓말을 할까

도망 다니기 시작한지 1년 만에 외삼촌은 판다곰이 되었다.

점점 살이 쪄서 배가 불룩해지고 얼굴이 둥그레지더니 손가락 발가락까지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허옇게 떴고, 눈 주변이 검어졌다. 외삼촌은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뒹굴며 지냈다.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었고, 앉아 있기보다는 누워 지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노트북으로 게임을 할 때도,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도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먹었다.

밥보다는 빵, 빵보다는 면이라며 아침으로 라면을 먹고, 점심으로 빵, 저녁으로 짬뽕이나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 어쩌면 외삼촌은 진짜 판다가 되어 온종일 대나무 잎을 씹어 먹게 될 지도 모른다고 은성이는 생각했다.

외삼촌이 끙, 하고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다. 일어난 길에 냄비째 라면 국물을 들이켜고, 소매로 입가를 쓱 닦고는 길게 트림을 했다. 외삼촌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똥을 싸러 갈 때뿐이었다.

"똥 싸러 갈 거야?"

"아니."

"빨리 싸. 나 씻고 나가 봐야 해."

외삼촌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룩뒤룩한 엉덩잇살이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외삼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쪽 다리를 들더니 방귀를 뽕- 뀌었다. 차마 코로 맡을 수 없는 이상야릇한 냄새를 온 방안에 퍼트리고는 푸실푸실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외삼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똥 누러 가면서 왜 '아니.' 라고 대답하는지 은성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외삼촌의 거짓말에는 목적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외삼촌의 입은 사실과 반대되는 말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 같았다. 어쩌면 진짜 거짓말을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은성이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외삼촌의 직업은 사기꾼이었다. 외삼촌의 지갑에는 수십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이름은 모두 같았지만, 직업이 달랐다.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호사, 무슨 무슨 회사의 사장……. 외삼촌의 레이더는 귀 얇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냈고, 뱀처럼 날렵한 혀로 달콤한 말을 속삭여 그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냈다.

크고 작은 사기를 수도 없이 쳤지만, 지금 외삼촌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외삼촌 옆에는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프로 중의 프로 사기꾼이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합심해서 대형사기를 쳤고, 따뜻하고 먼 나라에 가서 몇 년 쉬었다가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친구는 외삼촌을 데려가지 않았다. 사기 쳐서 번 돈을 혼자 다 가져가기가 미안했던지, 외삼촌의 잘생긴 얼굴을 수배 전단에 올려 외삼촌을 유명 인사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답을 했다.

덕분에 외삼촌은 친구를 잡으러 따뜻하고 먼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도, 또 다른 사기를 치러 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 좁디좁은 월세방에



그림 · 강병호

서 끓어오르는 화를 라면 국물로 달래며 포동포동 살을 찌우는 일 말고, 외삼촌이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우쿨렐레를 조율하고 있는데 판다곰이 데굴데굴 은성이 옆으로 굴러왔다.

"어디 가냐?"

"돈 벌러."

외삼촌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성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4학년 1학기가 마지막이었다.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다.

공부 대신 돈 버는 법을 배웠다. 어린이가 돈을 버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은성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받을 수도, 식당에서 음식을 나를 수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열두 살의 은성이에게 일자리를 주려 하지 않았다.

은성이가 처음 했던 일은 공원에서 공병을 줍는 일이었다. 맥주병은 50원, 소주병은 40원. 하루 종일 주워봐야 5천 원을 채 넘기기가 힘들었다. 병을 주우려고 공원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심부름을 시키는 할아버지들이 있었다. 소주나 담배, 안줏거리를 사다 주고 얼마씩 받았다. 편의점은 멀고, 할아버지들은 바둑을 두느라 바쁘고, 무엇보다 그 나이엔 다들 다리가 아프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래도 벌이가 제일 괜찮은 건 노래를 하는 거였다. 방과후 수업에서 배운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최백호나 심수봉을 불렀다. 마이크가 없어서 노랫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몇몇씩 모여 은성이의 노래를 들었다.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 대목에서 은성이의 주특기인 꺾기에 돌입하면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모금함에 동전 몇 개, 운이 좋으면 색깔이 다양한 지폐를 넣어주었다. 은성이의 나이와 맞지 않는 가사와 창법.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어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은성이는 나이도 어리고, 실연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달콤한지 씁쓸한지 알 길이 없었지만, 마음이 텅 비어버린 쓸쓸함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 짧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은성이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것들을 지나온 길에 묻어버렸던 것이다.

"돈은 벌어서 뭐 하게?"

어쩜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외삼촌이 능청스럽게 굴 때면 은성이는 판다곰의 머리통이라도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외삼촌, 우리 담양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거기에는 대나무가 많다니까. 판다곰의 먹이로는 아무래도 라면보다는 대나무가 제격이지."

외삼촌은 대답 대신 끄어억 하고 신트림을 올렸다.

"너 엄마 안 보고 싶냐?"

은성이는 우쿨렐레를 조율하던 손을 멈췄다.

은성이가 새 아빠와 싸웠던 날, 무지막지한 주먹이 은성이의 얼굴을 후려쳤던 날, 씩씩거리며 달려온 외삼촌이 은성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던 날, 맨발로 달려 나와 은성이의 주머니에 만 원짜리 몇 장을 넣어주며 더러운 손바닥으로 뺨에 흐른 눈물자국을 쓸던 모습, 그것이 은성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은성이는 우쿨렐레를 들쳐 메고 현관으로 나섰다. 바닥에 누워 열심히 콧구멍을 후비고 있는 판다곰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에게는 엄마가 없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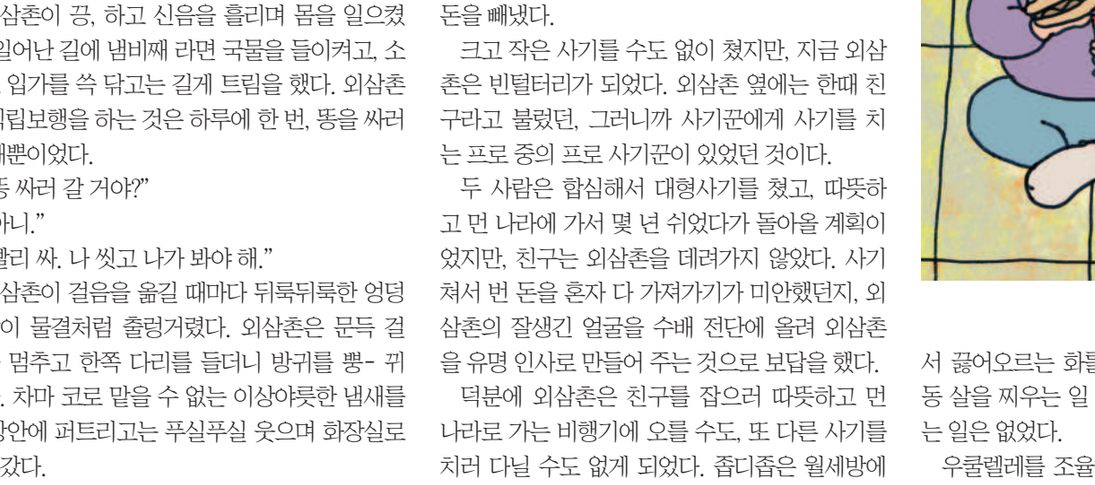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뜨시고 따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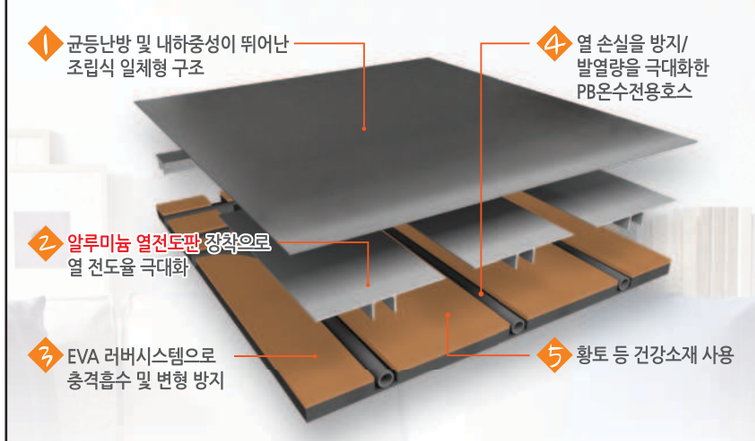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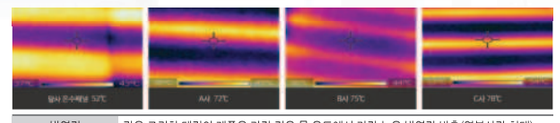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율 극대화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4 열 손실을 방지/ 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5 황토 등 건강소재 사용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 냄새 나서 좋아” “현대불교 색깔 찾아야”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창간 이후 논설위원을 맡아온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신심을 증장시키는 다양한 콘텐츠를 신문에 담아줄 것을 당부했다.

법산 스님은 “현대불교가 창간 당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침체 위기를 거치며 아직까지 그 여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듯하여 안타깝다”며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맡았고, 신행수기 공모전을 직접 진행한 입장에서 신문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계 신문에 특출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포교지로서 불자들이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독자들이 보고 불교를 믿어야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으면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불교계 언론과 같이 사건 위주로 가면 문제가 커지고 신심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너무 교리 위주로 가면 딱딱하고 사람들이 싫증을 느끼게 돼요.” 스님은 이어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한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털어 놓으며 한마음선원과의 유대를 더욱 다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최근 사장 스님이 바뀌는 등 현대불교에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신문사 내부에서 이에 발맞춘 힘을 가지려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초창기 있던 이들이 없기에 그만큼 새로운 구상을 통해 새로운 신문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여여원 원장

“22년 간 지켜본 결과, 다른 언론에 비해 현대불교는 대중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를 담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람 향기 나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이란 여여원 원장은 현대불교가 창간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챙겨본 애독자다. 그만큼 현대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터.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전했다.

이란 원장은 현대불교에 ‘밝은 기사’가 많이 담겨 좋다고 한다. 특히 화엄만다라의 ‘그대는 자비보살’과 교리면 ‘향봉 스님의 일체유심조’는 이 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다.

“사회곳곳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단 점이 매우 좋습니다. 미처 몰랐던 숨은 이야기들을 찾는 것도 쏠쏠한 재미지요. 민초들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줘 읽을거리가 풍족합니다.”

‘향봉 스님의 일체유심조’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도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대불교에 연재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을 만날 수 있다면 향봉 스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스님의 글은 진솔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스님의 성품도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현대불교의 미래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현대불교가 세월의 흐름 따라 잘 발전해온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기쁩니다. 앞으로는 불자들을 위해 불교용어를 쉽게 풀어준다든가, 혹은 신행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아주길 바랍니다.”

홍영호 변호사

“현대불교신문의 장점이자 단점은 ‘무난함’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간지가 아닌 종교전문지이기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명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를 떠나 의혹·부정에 대한 비판 기능에 있어서 미약한 점은 단점입니다. 현대불교만의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아 종종 아쉬움을 느낍니다.”

현대불교신문 초창기부터 신문을 받아본 홍영호 변호사는 최근 본지의 편집에 대해 ‘칭찬 반, 아쉬움 반’이 담긴 얘기를 전했다. 홍 변호사는 “마냥 좋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잘못됐다고만 할 수도 없다”며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식과 논란이 되는 이슈를 적절히 섞어달라”고 당부했다.

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재물은 ‘손오공이 기가막혀’다. 서유기를 불교적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이 연재는 다른 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그가 앞으로 본지를 통해 접하고 싶은 소식은 ‘초기불교’와 ‘남방불교’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모두 대승불교이기에 신문 역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남방불교에 대한 문화가 보급되고 있고, 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승’과 ‘대승’ 무엇이 더 좋은가를 논하는 게 아닌 서로 어떤 점이 다르고, 남방불교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브레이크 역할만이 아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엔진이 되는 신문. 사회문제를 비판하면서도 불자들의 신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론직필을 부탁한다고 홍 변호사는 말했다.

박명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아리회 회장

“법문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문의 활자를 통해 꼼꼼히 살펴봄으로 더욱 깊이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감동은 저의 삶을 바꿨으며 지금도 감로수와 같이 시원한 말씀이 담긴 내용들을 매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희(64·부산 금정구 장전동) 불자는 창간 때부터 빠짐없이 본지를 받아보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행과 법문 코너는 빼놓지 않고 읽으며 생활에 적용하고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특히 교직생활 중 학생을 대할 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했고 작년에 정년을 다해 은퇴했어요.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좋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양하고 환경이 달라 그 아이들을 원만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신문을 보고 공부하며 그 아이들을 바라보자 점차 제 자신도 밝아지고 그 아이들의 어두운 면이 곧 나의 모습이란 걸 확인하기도 했어요. 정년을 마치고 지금 돌이켜 보면 교사와 학생이 하나 되고 행복한 교실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신문을 통해 가르침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이 힘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이어 혼자서만 보는 것이 아쉬워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동료에게도 신문을 추천하며 전법의 도구로 사용했다.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께 읽어보길 권했어요. 근데 그 분이 종교가 달랐는데도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분의 어머니도 타종교인으로 믿음이 깊은 분이셨는데 신문을 보시고 절에도 가끔 오실 정도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분이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마음 법이 소개가 많이 되어 더욱 좋았다고 하셨죠.”

박 씨는 앞으로 젊은이를 위한 포교지로도 활동해 줄 것을 본지에 당부했다.

“지금도 너무 좋지만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함께 보고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젊은 불자 포교에도 노력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창간 당시부터 현대불교신문을 애독하고 있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불교계 언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본지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고 교수는 “현재 불교계 언론의 한계는 대중성에 있다. 대부분의 불교계 신문이 종교전문지라는 성격에 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불교계 언론 기사 대부분이 불교, 특히 교단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런 성격 탓에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기획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교단 외의 내용을 접하길 원하는 독자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창간 22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이 교단을 넘어 문학과 역사, 철학에 대한 담론을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기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사적으로 석·박사 출신 인재들을 충원하고, 기자들의 능력개발에도 사측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초기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비상임으로 박사 출신 인력을 기자로 둔 적이 있다”며 “기자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단시일 내에 힘들다면 이러한 제도를 다시금 고민해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를 통해 현재 불교계 언론의 전문성 취약이란 한계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 윤호섭 · 박아름 · 하성미 기자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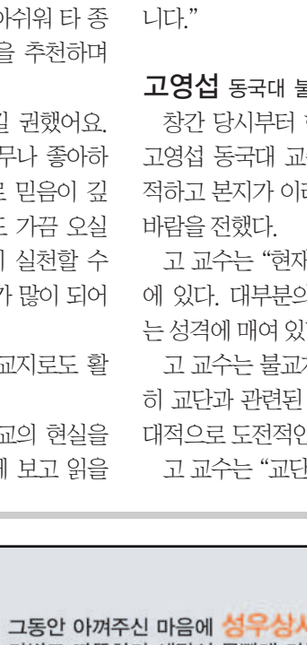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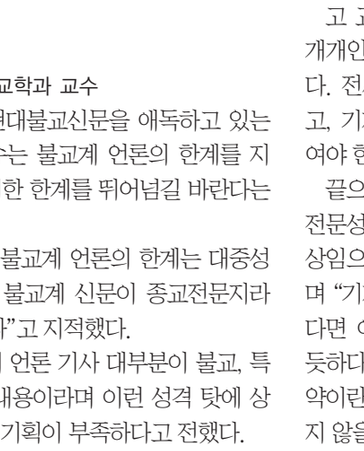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통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증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잔누비두루마기 88만원


반통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5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6만원
색상선택 M/L/XL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램수 조절 가능)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

현대불교신문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진실한 마음으로 구해야
진실한 깨달음의 소식을 얻는다

대행선사법어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그림. 임효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석수동) Tel.031-470-3100 Fax.031-470-3116